

월간

우리 문화

M A G A Z I N E



2001 **8**

월간 우리문화 · 2001년 8월호(통권154호) · 등록번호: 라-3627(1984.7.12)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1-1 성우빌딩 1202호(우 121-715) · 값 3,000원



특별기고 한국의 고인돌과 민족의 동질성

문화 상품을 만드는 사람들 ⑥ “핸드백여어요, 지퍼 대신 보자기로”

전통의 멋과 맛 기능과 미적 감각 뛰어난 기마

서울의 옛문화 중국에 까지 알려진 정자 ‘입구정’

한강이 낳은 용산의 부군당

제16회 전국향토문화연구발표회 논문(사료) 공모

■ 취지

전국문화원연합회는 민족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향토문화의 체계적인 연구와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전국 각지의 향토사료를 발굴, 새롭게 조명함으로써 향토사가의 연구의욕을 진작시키기 위해 제16회 전국향토문화연구발표회 논문(사료)공모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공모요강

- 응모부문 (1)논문부문 (2)사료부문
※ 사료부문은 논문형식을 취하지 않은 단순 보고서도 무방함
- 연구분야 지역의 역사, 민속 등 향토사 전반
- 원고매수 200자 원고지 100매 이상
- 응모기간 2001. 5. 1 ~ 10. 15(마감일 소인유효)
- 발표 2001년 11월 초 개별통보 및 본회 홈페이지(www.kccf.or.kr) 발표
- 시상식 및 발표회 2001년 12월(일정 및 장소 추후 통보)

■ 응모자격

- 논문부문
- 일반인, 향토사가, 대학생 및 대학원생(석사학위자 및 박사학위과정자 포함)
문화원(시·도지회 포함) 임직원 및 회원, 문화원 소속 향토사가
- 사료부문
- 문화원(시·도지회 포함) 임직원 및 회원, 문화원 소속 향토사가
- 기타
- 박사학위취득자(명예박사포함) 및 대학(교)에서 전임강사 이상(겸임, 객원교수 등 포함)은 응모할 수 없음
- 기 대상수상자는 수상 연도부터 3년 동안 응모할 수 없음
- 위 규정에 저촉되는 결격자 수상시 추후 수상자격 박탈 및 상금 회수

■ 시상내역

1. 논문부문 대상1편(국무총리상) 300만원, 최우수상1편(문화관광부장관상) 200만원, 우수상2편(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상·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상) 각150만원, 장려상4편(전국문화원연합회장상) 각100만원
2. 사료부문 최우수상(문화관광부장관상) 200만원, 우수상2편(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상·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상) 각100만원, 장려상3편(전국문화원연합회장상) 각 50만원

■ 응모요령

- 추천서 모든 응모작은 해당지역 문화원장의 추천서를 첨부해야 함.
※추천서는 지방문화원에 비치되어 있으며 본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음
- 첨부물 응모시 이력서 및 논문(사료)을 입력한 디스켓을 필히 첨부해야 함
- 응모수량 개인별 응모 수량은 제한 없으며, 논문의 각주표기는 일반적 용례를 따를 것

■ 유의사항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논문(사료)은 공모할 수 없으며, 입상되더라도 심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낙선으로 처리함
- 국내외에 이미 단행본으로 발간했거나 기타 간행물에 게재했을 경우
 - 다른 사람의 논문(사료)을 모방했거나, 허위사실을 작성한 경우
 - 이력서에 학위를 허위 기재 했을 경우

■ 접수 및 문의

- 접수방법 방문접수, 우편접수, e-mail 접수
- 주소 (우)121-715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1-1 성우빌딩1202 전국문화원연합회
- 전화 (02)704-2311 팩스 : (02)704-2377
E-mail : mcchun@kccf.or.kr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회 담당자에게 문의 및 홈페이지 참조 <http://www.kccf.or.kr>

전국문화원연합회



제주도 서귀포시 중문의 대포해안.
수만·수억년의 파도에 부딪치며 서있는 육모형 바위군
'주상절리'. 제주도 지정 문화재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다.
공항에서 서부산업도로를 타고 중문관광단지에 도착한 후
국제컨벤션센터쪽으로 가다보면 길이 나온다.

2001년 8월호(제15권 8호 통권 154호) 등록 / 라-3627(1984. 7. 12) 발행처 / 전국문화원연합회 주소 / (우:121-715)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51-1 성우빌딩 1202호 전화 / 704-2311~3
FAX / 704-2377 인터넷 / www.kccf.or.kr 발행권 편집인 / 李 秀 洪 사무총장 / 安 辰 洙 인쇄소 / 크리홍보(주) 발행일 / 2001년 8월 1일 정가 / 3,000원
*월간 「우리문화」는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고 있습니다.

C o n t e n t s

차례

4 ◆ 권두칼럼	성곽 보존의 필요성	오필근
6 ◆ 특별기고	한국의 고인들과 민족의 동질성	임효재
8 ◆ 특별기고	지방문화를 생각하는 재정정책을...	이흥재
10 ◆ 제언	충효사상을 되살리자	안종일
12 ◆ 우리문화특강	한국지역문화의 창조	김정욱
14 ◆ 문화계 소식	“창 관광은 국토사랑에서” 김한길 장관 쾌적한 여건조성 강조 8월12일 까지 ‘여름철 옛 士大夫들의 멋·석창포전’ “더위야 썩 물러가라”	편집부
16 ◆ 문화상품을 만드는 사람들 ㉔ - 전통문화에 실용성 접목해 가방·머리핀·머플러등을 만드는 바인아트 김난 대표	“핸드백 얼어요, 지퍼 대신 보자기로”	강민철
18 ◆ 이달의 문화인물	‘새김벌레’라 불리운 근대의 대표적 전각가 오세창	편집부
19 ◆ 앞서가는 문화원을 찾아서 ㉔	민영근 당진문화원장/김낙성 당진군수 인터뷰	강민철
27 ◆ 기행문	중국, 龍井을 다녀와서	권태하
30 ◆ 기행문	한국과 일본의 새로운 가교 (하)	정갑섭
36 ◆ 서울의 옛문화	중국에 까지 알려진 정자 ‘압구정’ 한강이 낳은 용산의 ‘부군당’	유현석
43 ◆ 2001, 지역문화의 해 뉴스 파일	여수세계박람회·영산강 축제등 ‘광역권 남도문화’에도 관심음... ‘문화프로그램운영조직자’ 직종부터 만들자 8월말까지 영화·게임 제작위한 기초 시나리오 공모 ‘2001, 지역문화의해’ 사무국	강민철 강민철
51 ◆ 민속	이천시 호법면 매곡리 우물제사	이천문화원
54 ◆ 이사람 - 담양 가사문학관 해설가로 일하고 있는 이정옥씨	시조 2백편 줄줄... 송강 정철이 여자로 다시 태어난듯	강민철
56 ◆ 내고장 명소	靑岩亭과 溪西堂	봉화문화원
58 ◆ 내고장 설화	노성의 옥천말랭이	노산문화원
60 ◆ 세시풍속	칠석과 백중	박후식
62 ◆ 전통의 멋과 맛	기능과 미적 감각 뛰어난 가마	류장수
67 ◆ 문화원 소식		편집부
75 ◆ 문화산업뉴스	‘홀대받던’ 공예문화상품 해외 수출길 오른다	편집부
76 ◆ 오피북	물에 잠긴 내 고향	제천문화원
78 ◆ 신간안내		편집부



성곽 보존의 필요성

역사의 흐름에 따라 문화가 바뀌어진다. 그러나 옛 문화 유적을 보존하고 계승하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다.

로마에 가면 길하나 마음대로 바꾸지 못하고, 개인 건물에 페인트도 마음대로 칠하지 못한다. 콜롬세움으로 가는 언덕길에는 옛날 그대로의 흙길이고, 칼리칼라의 목욕탕은 옛날 그대로 폐허다.

세계적인 문화유적이어서 그대로 보존해 두어야 한다는 논리만이 아닌 것이다. 문화유산은 그대로 보존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미 엄청나게 훼손되었다면, 우리는 더 이상 훼손되는 것이라도 막아야 한다.

규식(規式)에 맞지 않는 재건축과 재개발은 어쩌면 파괴보다 더 심한 훼손일 수도 있다. 성곽의 건축물은 이미 사라져 돌 위에 돌 하나 없혀져 있지 않더라도, 지금 남아있는 성터라도 보존하여야 하고, 성터 안에 남아있는 건물의 위치를 찾아내어 표지라도 세워 두어야 한다.

이미 흔적도 없어진 지역에서는 적어도 성지(城址)라도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다. 그 지역의 역사자료가 사라져가고 고증을 해 줄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영원히 명멸하고 말 것이다.

이 과도기에 역사 보존에 관심을 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여 하나의 자료를 만들어 후세에 남기는 사업은 매우 소중한 가치있는 작업이다.

정부에서 성곽을 조사한 전국 읍성의 109개 지역의 현황을 보면, 그 지역민의 지역사랑이 어떠한가에 따라 성곽의 보존에 상당한 차이가 난다.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성곽을 쌓기 시작하였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문헌 등으로 살펴보면 고조선 시대부터 성곽을 쌓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사마천의 '사기(史記) 조선전(朝鮮傳)에 보면 "한(漢)이 위만을 침공했을 때 왕검(王儉)에 이르니 우거(右渠)가 성을 지키



오 필근
사천문화원장

우리나라의 성곽 양식을 보면 시대에 따라 다르고 축조 목적에 따라 다르다. 특히 읍성이라는 성은 지정학적, 군사적인 상황을 근거로 나름대로의 축성방법을 고안했고 발전시켜왔으며 나름대로의 행정적인 면에서도 매우 유용하게 이용된 성으로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형태를 가진 성이다. 그래서 오늘날 지방자치제가 활성화되자 각 지방에서는 읍성을 매우 소중히 여겨 성을 다시 쌓고 건물을 지어 옛 성으로 복원시키고 있다.

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으로 보면, 적어도 기원전 2세기 전에 우리나라에 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성곽의 목적은 군사적으로는 방어와 경계를 목적으로 하고 지리적으로는 영역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성곽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있는 축조물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분포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성곽을 보면, 독특한 양식을 가지고 있는 성이 있고, 땅의 넓이에 비례하여 다른 나라와 달리 상당히 성곽이 많다. 그래서 조선 세종 때 집현전 부교리 양성지(梁誠之)는 우리나라는 성곽의 나라라고 말하였다.

도성(都城)이나 읍성(邑城)을 축성한 일은 물론이고 산성(山城)을 매우 많이 축조하였다. 산성이 많은 이유는 외침에 대한 대비시설이기 때문이었는데 지역적으로 보면 하삼도(下三道) 즉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에 매우 많이 축조되었다. 경상도의 경우 조선조에 약 800여 곳의 크고 작은 산성이 있었다. 경상도의 성은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나라의 성곽 양식을 보면 시대에 따라 다르고 축조 목적에 따라 다르다. 특히 읍성이라는 성은 지정학적, 군사적인 상황을 근거로 나름대로의 축성방법을 고안하였고 발전시켜왔으며 나름대로의 행정적인 면에서도 매우 유용하게 이용된 성으로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형태를 가진 성이다.

그래서 오늘날 지방자치제가 활성화되자 각 지방에서는 읍성을 매우 소중히 여겨 성을 다시 쌓고 건물을 지어 옛 성으로 복원시키고 있다.☞

人 事

류장수 편집주간 퇴임

월간 ‘우리문화’를 담당해 오던 류장수 편집주간님이 8월 1일자로 퇴임하셨습니다. 류장수 편집주간님은 지금까지 12년동안 월간 ‘우리문화’ 취재 편집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박계현 취재·편집기자 입사

월간 ‘우리문화’ 취재·편집기자로 박계현 씨(28)가 입사했습니다. 박계현 기자는 서울 예대 문예창작과와 방송통신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국내 유수의 편집회사에서 기획·편집 팀장으로 일했으며 현재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 문예창작학과 석사과정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월간 ‘우리문화’

한국의 고인돌과 민족의 동질성

우리 한민족의 기원에서부터 시작하여 그 발전과정을 당시에 사용된 유물과 유적발굴을 통해 우리의 먼 과거 역사를 밝혀내는 학문이 고고학이라고 할 때, 남·북한에 남겨진 유적의 유물은 모두 우리 나라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것임에 틀림없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나라 전체적인 역사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그 어떤 분야보다 남북상호간의 교류 및 협동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 분단 50년이 지난 오늘, 불행한 현재의 분단상태로 말미암아 북한의 자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없어 그간 남한에서 해명된 사실들이 어떻게 북방과 관련되고, 그 원류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남방으로 이동·전파되고, 정착되었는가를 직접 구명할 수 없는 불행이 계속되고 있다.

한반도의 문화는 시베리아나 중국 방면으로부터 전파·정착된 것도 있고, 독자적인 것도 없지 않다. 우리 나라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특징 있는 묘제인 고인돌은 지금부터 3,000년 전인 청동기 시대에 속하는 유적으로, 작년 11월 29일 유네스코(UNESCO) 세계유산위원회가 우리 나라 고인돌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정식 등재함으로써 고인돌은 비단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의 자랑거리로 부상한 것이다. 선사시대에 속하는 것으로 사상 처음으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사실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실상, 우리 나라에서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아득한 옛날인 구석기시대부터이다. 그러나 이 시대의 유물은 고작해야 석기가 대부분이며, 그 다음 단계인 신석기시대에 들어와서는 땅을 파서 움집을 짓고 빗살무늬토기를 만들어 사용하는 정착 생활을 한 점에서는 중요하지만, 우리 민족문화를 대변할 만한 정형화된 유적·유물은 썩 마땅한 것이 찾아지지를 않았다.

그런 면에서 수십 톤이 넘는 거대한 돌을 깎아 만든 고인돌은 외형적으로 독특한 모습으로 世人의 관심이 쏠리고, 또한 건축학적으로나 미학적으로 보아도 한민족이 남겨 놓은 한국 고대문화의 가장 특징있는 증거물이라



임 효 재
서울대 교수
· 한국선사고고학회장



△ 민족의 동질성을 보여주는 북방식(왼쪽)과 남방식 고인돌

아니할 수 없다. 강화도를 가 보아도, 전라도를 다녀보아도 너무나 많은 고인돌 무리가 전국토에 분포되어 있다. 이것은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매장 형태의 하나로, 또는 제사를 지내는 기념물로서, 외형적 구조 특징에 따라 나누면 크게 북방식(北方式)과 남방식(南方式)의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탁자형태를 가진 고인돌은 땅 위에 드러난 판석을 네모나게 조립한 후 그 위에 납작한 큰돌을 올려놓는 것이다. 우리 나라 북쪽지역에 주로 분포한 점에서 북방식으로도 불리고 있다.


아주 큰 돌 밑에 두꺼운 돌 밑에 둥그런 돌을 고여놓은 남방식 고인돌은 이 모양이 마치 바둑판과 같다고 해서 바둑판 모양의 고인돌이라고도 부르고 있는데, 주로 호남과 영남지방에 많이 분포하고 있어 남방식으로 불린다. 고인돌의 어느 것이 수백 톤이 넘기 때문에 웅장하고 거대한 고인돌의 불가사의한 축조는 사람들에게 많은 호기심을 자아내기도 한다. 지금까지 북한에서 발견된 고인돌은 평양을 중심으로 한 평남과 황해도 일대에서 1,000여 기를 포함한 도합 1만여 기가 확인되었다.

남한지역에서는 모두 2만 5천 개 정도가 확인되었는데, 전라도 지역에만 2만기 가까이 되니, 과연 고인돌의 최고 밀집지역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남북한의 고인돌을 합하면 3만 5천 개나 된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중국에서는 요령성(遼寧省)을 중심으로 한 옛 만주지역에 400여 기, 그리고 일본에서는 한반도와 거리상으로 가까운 서북 큐슈(九州) 지역에서 600여 기가 분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고인돌은 한국으로부터 전파된 것들이다. 이처럼 아시아에 있어서 한국은 동양에서 고인돌 왕국이라 하여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자랑할 만한 것이다.

이처럼 우리 고인돌은 우리 한민족이 이룩해 놓은 위대한 역사적 문화유산이다. 청동기시대의 무덤형태를 대변하는 것으로 우리 단일 민족이 이 땅에 이룩해 놓은 증거물이다. 세부적으로 그 외형상 북방식, 남방식으로 나눌수 있지만 북방식이라고 해서 북한에만 분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전남 고창이나 남쪽 지역에서 발견되는가 하면, 남방식 역시 북한 지역에도 적지 않게 분포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한 어느 한쪽의 연구만으로 우리 단일 민족의 소산인 고인돌 巨石文化像의 전부를 파악할 수 없다.

우리 단일 민족이 이룩해 놓은 우리 역사의 대표적 상징물인, 우리 역사의 전체 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도 또한 우리 민족의 동질성을 증명하는 고인돌에 관한 남북한 공동조사와 연구가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하겠다. 

지방문화를 생각하는 재정政策을...

지금은 지방시대다. 그런데 지방시대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치, 주민자치, 분권화를 달성한 경우에 가능한 이야기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는 아직도 3할자치(3割自治)에 불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이다.

중앙과 지방간 세원이 적절히 배분되어 있지 않은 탓에 재정자치가 요원하여 만성적인 중앙의존이 불가피하다. 주민들의 자치능력이나 지방정치의 수준도 아직 자립과 자치를 노래하기에는 한참 모자란다. 행정사무와 권한의 적절한 배분기준이 마련되려면 아직도 많은 시행착오와 자치학습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것이 우리나라 3할자치의 현실이다. 이는 좋다, 나쁘다, 능력이 있다 또는 없다는 문제라기 보다는 역사적 경험의 축적으로 생긴 관행에서 비롯되며, 단절적 진화를 가져오는데 고민과 필요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지방문화원에 대한 지속적인 국고지원의 필요성은 이에 대한 변화가 가져올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의 양측에서 균형있게 살펴볼 수 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면 내지 한계는 고쳐가야되고, 긍정적인 면은 더욱 살려야 하기 때문이다.

먼저 국고지원 필요성은 앞에서 본바와 같이 지방자치의 한계 때문에 절실하다. 더구나 선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성 때문에 행정책임자는 차기 선거에서의 득표를 염두에 둔 정치행태적 행정, 전시행정을 펼치게 되어있다. 문화를 다루는 정책은 근본 속성상 정책 회임기간(懷妊期間)이 길고, 비가시적이어서 우선순위가 밀리고, 충전(充電)보다는 방전(放電)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하기 쉬워 의식적으로 회피하기 쉽다. 이런 성격은 전국 모든 자치단체의 공통적인 현상이다. 이같은 문화의 속성을 감안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 흥 재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연구실장

국고지원 필요성의 긍정적인 면은 문화시대 속에 살고 있다는 점에서도 기인한다. 주 5일근무와 5일 수업으로 바뀌면, 문화와 관광이 더욱더 중요시된다. 여가시간을 집안에서 가사나 돌보던 소극적인 소비가 아니라 자동차 확대에 따라 무한이동이 가능해져 적극활용되고 있다.

더구나 문화를 통한 지방경영 전략의 효과가 점차 드러나면서 경제적인 문화활동을 창출하는데 지방단체가 발벗고 나서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문화가 이제 더 이상 명목적인 목표가 아니라 실질적인 목표(real goal)로 전환되어야 함을 뜻한다. 문화사업은 미래를 꿈꾸는 자만이 자신있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재정은 목표에 정확히 맞춰서 사용해야 한다는 논리에 비춰보면 지방문화원에 대한 재정지원의 목표는 명쾌하고 정확하다. 정확한 목표와 사업에 알맞게 재원을 활용함으로써 국가 전체적인 재정합리성이 보장된다. 지방행정은 종합행정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다. 종합행정의 틈바구니 속에서 문화행정을 지방에 맡겨두면 하나의 장식으로 전락될 것이 뻔하다. 중앙집권체제하의 문화행정과 다를 바 없다. 지방자치의 행정의 자기개혁을 통해 달성된다. 자기개혁을 통한 문화분권화와 문화정책 전문화가 갖춰지지 않은 지방문화행정에 크게 기대할 것이 없다고 본다.

특히 문화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지방비로 문화인프라를 확충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지방정치의 관행상 문화사업의 획일화가 이뤄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재정의 격차가 문화수준의 격차로 이어짐은 문화선진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다. 미국에서 재정분권화 필요성을 논할 때 '발에 의한 투표'라는 말을 쓰는데, 이는 이왕 세금을 낼 바엔 문화혜택이 좋고 문화여건이 갖춰진 지역으로 옮겨가는 이동현상이 증가됨을 말한다.

프랑스의 경우도 최근 지방분권화를 위한 움직임

이 많다. 문화정책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전국 22개 지방정부가 창설되고 지방정부에는 예술관계 관할 부서가 설치되어있다.

그런데 지출에 대해서는 권한 일부를 지방에 이양하는데, 대개 이전적 경비나 계약적 협정 형태이다. 경상지출의 80%까지를 시·읍·면 직영시설의 운영에 충당하도록 한 적도 있다.


복지적 문화권이 가장 잘 보장되는 스웨덴의 경우도 중앙정부의 예술관계 지출비율이 높다. 문화예술지출에 대해서도 결정권한이나 법률에 의해 중앙정부에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

물론, 그러나 그 집행은 분권화된 경향이 강해 소위 '집중적 분권화'라 불리고 있다. 이 시스템을 둘러싸고 물론 재원의 이양이 이뤄지고는 있다.

주민과 자치단체의 문화수요를 파악하고, 지역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해야 하는 것이 지방문화원이 풀어 가야할 새로운 과제이기도 하다. 또한 지식정보 기반사회를 맞이하여 다양한 사회교육은 문화원이 그동안의 많은 노후유를 활용해서 추진해야 할 중요한 21세기적 과제이다.

지역의 문화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문화협동과 지역문화 발신 구심체 역할을 해야 하는 것도 문화원에 새로 부과된 막중한 역할임이 분명하다. 더구나 문화원은 종래의 문화축제를 좀더 새롭게 추진해야 한다.

이렇듯 산적한 지방 문화수요를 짊어질 문화원의 과제를 감안한다면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은 전에 비해 더 증액되어야 할 것이다.

순전히 지방재정논리만 가지고 판단하더라도 결론은 명쾌하다. 지방재정이 확충되어 만족할 만한 수준의 문화사업 지원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문화원에 대한 중앙의 재정적 보살핌이 필요하다. 피어오르는 문화열기에 부응하는 재정정책이 요청되는 시점이다. 문화국가로 가는 길목을 앞서서 열어가는 재정정책이 되기를 바란다. 

충효사상을 되살리자

8월은 광복의 달이다. 우리가 일제 36년의 질곡에서 해방돼 광복한지 어언 56년이 되었다. 그런데도 아직 완전한 통일 독립국가를 이룩하지 못하고 있으니 안타깝기 짝이 없다.

우리의 광복은 국제연합군이 일본과 싸워 이긴 전승의 선물이지만 그 이면에는 많은 애국지사들이 목숨 바쳐 싸운 항일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우리 국민은 특히 충효사상이 투철하여 건국이래 930여회의 외침을 당했음에도 불굴의 의지로 굳건히 나라를 지켜온 위대한 국민이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충효사상이 점차 그 빛을 잃어가고 있다. 나라를 지키면서 문화대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 정신문화의 바탕이 되어온 충효사상을 되살리지 않으면 안된다. 충효사상은 가정과 나라를 지탱해주는 버팀목이기 때문이다.

충효정신은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선(善)에다 두고 그 근본을 안에서 밖으로 표출하는 선행의 표현이다. 따라서 인간의 가치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최대의 이성(理性)이며 덕(仁義禮智信)의 근본을 뜻함이다(孝德之本).

효(孝)와 충(忠)을 다한다는 것은 바로 인간 각자의 양심과 중심을 지켜나가는 것이며 먼저 나(我)를 진실로 사랑하기 때문에 미루어 남(他)을 존경 애호하는 최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인간정신에서 나오는 인본주의적인 인류평화의 길이 바로 충효사상이다.

효(孝)는 은혜에 대한 보답이며 이 은혜에 대한 보답이 확충되어 국가에 대한 보답으로 이어지는데 이것이 곧 충(忠)이 되는 것이다. 가깝게는 내 부모형제를 사랑하는 혈연관계, 그리고 민족과 국가의 주체성을 확립하는데 자주적 충성을 한다는 뜻이다(충효사상). 이렇게 충효사상은 먼저 나와 가족과 민족 그리고 국가에 대한 은혜의 보답이다.

안으로는 민족과 국가 밖으로는 인류평화의 지름길이며 인간 생명이 뚜렷한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충효사상이다. 스스로에 대한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 바로 효행(孝行)으로서의 부모형제요 또 민족과 국가에 대한 의무가 충(忠)



안 종 일
청양문화원장

의 길이다. 이렇게 볼 때 상대적으로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가 서로 존중될 때 평등이며 인류애로 연결되는 것이 바로 충효사상이다. 충효사상은 곧 인류평등주의 사상이며 인도주의정신인 것이다.

효(孝)의 의무와 은혜는 가장 가까운데서 시작하여 먼데까지 미쳐가고 이것이 바로 인간존엄성에 대한 가치관이며 양심이기도 한 것이다.

충(忠)과 효(孝)는 언제나 평등과 사랑에서 성립될 수 있는 것이지 억압이나 강제에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남에게까지 미쳐갈때 충(忠)이 나온다. 이상과 같이 충효사상의 본의를 찾아 보았을 때 효(孝)는 충(忠)이요 충은 효가 된다. 그래서 이효사충(移孝事忠)하고 사충이 효(事忠移孝)가 되는 것이니 충과 효는 동일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효를 하면 충을 하고 충을 하면 효를 하게 된다.

한국민족의 오천년 역사상 위대했던 충효절의(忠孝節義)한 선현들은 모두 충과 효를 다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다.

자랑스런 우리 고장 청양의 충효절의한 선렬들의 사례는 너무도 많다. 임진왜란 때 충절 순국한 두촌(杜村) 임정식(任廷植) 선생을 비롯하여 충민공 양지선생의 충절정신을 들 수 있으며 병자호란 때 살신성인 했던 광성군 이제길 충신과 한독신장군 그리고 정묘호란 때 충신인 택수 박신통 장군을 꼽을 수 있다.

또 구한말 기울어져 가는 국운을 바로 잡기 위해 분연히 쫓겨갔던 의열사들도 많이 있다. 자주성 내지는 주체성으로 충궤기 의병활동을 주도한 최익현·민중식·안항식·채광묵·김경태·안항찬·박윤식·이식·윤기중·김덕진·이규하·안병림·윤병일·임궁호·신현도·임승주·이세영 등이 있고 철원애국단으로 정상길·서승렬·유한방·유경재가 있다. 또 의열단으로는 윤병구, 군자금 모금에 안태석·임중구 광복회에서 활동한 김성환·홍현주·황학성·박재희가 있으며 제등총독암

살을 시도한 한 훈도 있다. 또한 기미의사(己未義士)로 권홍규·한학수·홍범섭 선생도 빼놓을 수 없다.


이밖에도 우리 고장 청양에서 태어나 타지방에서 구국운동에 선봉의 역할을 했거나 고향 청양에서 독립투쟁을 하다가 타지방으로 이거하여 그곳에서 공훈록에 오른 숫자가 무려 2백여명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 당국의 집계에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청양은 뚜렷한 충효절의의 발상지로 청양인의 긍지를 높여주고 있다.

이렇듯 선현들은 모두가 먼저 부모에게 효를 다했고 나라가 어려울 때는 한결같이 충절을 다했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 역시 고차원적인 국가안보와 국란극복을 위해 충효사상을 발휘하고 이것이 나라 사랑의 길로 이어질 때 안으로는 민족화합을 이룩할 수 있고 밖으로는 우리민족의 저력을 과시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맞고 있으며 과학 문명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국가간의 국경마저 없애버렸다. 이같은 문명사적 변혁기를 맞아 우리가 세계 무한경쟁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는 충효정신을 바탕으로 온국민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민족의 가장 큰 덕목이었던 충효정신이 크게 훼손된게 사실이다. 이는 일제침략하에서 민족분열과 전통문화 말살정책을 실시한 영향도 크지만 광복이후 서양의 저질문화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인 책임도 크다.

그러나 우리 민족정신 속에는 아직도 충효정신의 불씨가 살아있다. 우리가 지난 5천년 역사속에서 수많은 국란을 겪으면서도 불사조와 같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충효사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선현들의 충효절의의 위대한 정신을 되살려 가정과 이웃이 화합하고 국력을 키우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한국지역문화의 창조

중앙과 지방이라는 생각은 달라져야 합니다. 사람은 흔히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기 쉽고 특히 지배사상을 가졌을 때 자신이 자리잡은 공간이 중심이요, 중앙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흔히 우리나라는 中國의 中華思想의 그늘에서 변방의 小國이라는 생각을 해왔고 極東의 오지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극동의 오지라고 생각한 것은 西歐를 중심으로 생각했을 때 그것도 인도양을 거쳐, 또는 시베리아를 거쳐 서쪽의 길을 택했을 때 일이고 美國을 거쳐 太平洋을 횡단해서 우리나라를 찾아온다면 極西라는 이름이 주어졌을 것입니다.

즉 세계의 모든 곳이 수시로 중심이 될 수 있고 변두리가 될 수 있습니다. 韓國에서도 서울이 모든 문화예술의 중심이고 상대적으로 나머지 지역은 地方이라는 생각이 지배해왔습니다. 그러나 中央과 地方이라는 구도는 적어도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불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中央과 地方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모든 地域이 그 지역의 독특한 문화예술을 보존 발전시키고 창조한다는 '地域文化創造'라는 개념으로 바뀌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화·정보화는 시대적 대세

情報化의 물결 속에 불가피하게 世界化가 가속되고 있습니다만 그 世界化는 支配와 정복자의 世界化가 아니라 해방의 세계화여야 하고 서로의 文化的 正體性을 존중하고 발견해 주는 世界化여야 합니다.

世界化와 情報化는 어쩔 수 없는 추세이고 그 추세가 가져오는 文化의 위기의식을 극복하기 위해서 모든 나라와 모든 지역의 문화적 다양성과 정체성이 존중된다는 전제로부터 지역문화창조는 출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지역문화창조도 그러한 전제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지방자치가 몇년전부터 시작되면서 적어도 지역문화창



김정욱
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조라는 측면에는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가 갖는 긍정적인 측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만 적지
않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역축제 재고할 점 많아

첫째로 충분한 검토없이 유형적으로 창설되는 문
화축제가 문제입니다. 지역문화 창조가 문화축제만
만들면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
니다.

둘째로 대중성과 상업성 그리고 창조성의 조화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어떤 신문에 政治 논리
가 우리의 경제를 망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경제논리가 우리의 文化를
망친다는 얘기도 성립됩니다. 경제논리만 가지고
文化를 재단해서는 안되지만 그렇다고 文化에서 경
제논리를 완전히 배제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문화축제는 대중의 참여를 전제로 한것임으
로 문화 산업의 성격을 띄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화축제가 돈벌이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관광수입을 올리는 데만 의의를 찾는다면 본질이
망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는 지역간에 불필요한 경쟁의식과 그러한 경
쟁으로 불필요한 낭비와 향수자에게 균형있는 향수
를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를 문제점으로 들 수 있습
니다. 같은 주제로 여러 지역이 경합을 하는 경우는
흔히 볼 수 있지만 개최기간도 서로 겹쳐서 그 효과
를 반감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어린이날 무렵에서 전라도를 내려갔는데 全州에 영
화제, 풍납제, 南原에 春香祭, 長城에 洪吉童祭, 咸
平에 나비 祝祭가 몰린다는 것은 아무래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접 지역끼리 祝祭를 통합하
는 것도 방법이며 통합이 어려우면 서로 보완적 관
계를 정립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가장 좋은 관광시
즌에 祝祭를 여는 것도 방법이지만 반대로 관광씨
즌 아닐 때 축제를 열음으로써 관광객 유치에 균형

을 이룰 수도 있고 필요없는 번거로움과 혼잡을 피
할 수도 있습니다.

넷째로 축제가 그 지역 주민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지만 타지역 나아가서는 국제적 관심을 어
떻게 불러일으키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축제란 언
제나 만남을 전제로 한 것이며 만남은 필연적으로
타지역과 다른 나라와의 만남을 전제로 하기 때문
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주체이지
만 경우에 따라서는 처음부터 타지역의 전문가를
영입해서 기획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지역
의 기획자 또는 예술가를 영입함으로써 오히려 그
지역의 정체성이 살아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로 지역 자치단체 또는 관리와 민간단체
또는 예술가가 어떻게 협력하고 어떻게 상호보완해
나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최근에 지역축제는 사
실상 관이 주도하는 축제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습
니다만 지나친 관도주는 중앙정부나 지방 자치기관
이나 마찬가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역할을 정리하고 동시에 서로가 뒷받침해주
는 자세가 필요하며 외부 전문가를 영입했을 때는
그 전문성을 최대한 존중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문화 창조적으로 발전시켜야

우리는 오늘의 지역문화를 창조해야 합니다. 그
지역문화는 전통에 뿌리를 박고 동시에 미래를 향
해야 합니다. 우리의 음식문화도 지역적인 맛을 간
직하면서 세계적 음식문화로 창조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국에 전승되고 있는
탈춤이나 가면극 등 공영유산도 문화적 축제로 계
승되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
다. 우리의 지역문화는 世界를 향해 열린 문화여야
하지만 동시에 그 지역의 특성과 전통성을 상실하
지 않아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 관광은 국토사랑에서” 김한길 장관 쾌적한 여건조성 강조

8월은 여름휴가의 절정기이다. 더위를 피하고 격무에 시달린 몸을 추수려 활력을 재충전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게 휴가제도이다.

김한길 문화관광부장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대한매일 ‘공직자 에세이’에서 ‘참 관광’을 제창했다.

김한길장관은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외화를 벌어들여 경제적인 이득을 얻고 자랑스런 우리의 문화유산과 아름다운 자연을 해외에 널리 알려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광산업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우리국민들의 윤택한 삶을 실현시키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의 관광정책이 외국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국민들이 편리하고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올해를 ‘한국방문의 해’이자 국내적으로는 ‘다른 지역 방문의 해’로 정하고



△김한길 문화관광부장관

우리국민들이 즐겁고 보람있는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김한길장관은 우리 모두가 휴가철에 교통체증으로 인해 차안에서 답답하고 지루한 시간을 보내고 간신히 도착한 피서지에서 바가지 상혼에 시달려 본 경험이 있을 것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모처럼 떠난 휴가여행이 재충전의 기회가 아닌 피로의 누적이 되어

버리는데 이러한 짜증나는 여행 형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휴가 연중분산제를 학교 방학제도와 연계하여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한길장관은 이제 참여행은 먼저 우리것에 대한 소중함과 의미를 깨닫는 데서 출발해야 하며 특히 청소년기에 우리 강산 구석구석에 배어 있는 전통문화와 유적의 의미를 재발견하고 수려한 우리 자연에 대한 사랑과 감동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참되고 알찬 여행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춘천인형극제 2001

‘춘천인형극제 2001’이 8월8~9일(아마추어 인형극대회)과 9~15일(춘천인형극제) 춘천인형극장 물의 나라 꿈의 나라, 강원평생교육정보관, 춘천여행의 집, 강원도립화목원등지에서 열린다.

2001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2001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가 10월 5일~21일까지 청주예술의 전당 일원에서 열린다.



여름철 옛 사대부들의 멋 ‘석창포전’ ▷

8월12일 까지 '여름철 옛 士大夫들의 멋-석창포전' "더위야 썩 물렀거라"

서울종합촬영소내 '운당' 서

'모시관복 한 벌과 석창포(石菖浦)로 무더위를 씻자' 조선후기 함양군수를 지낸 담정(潭庭) 김려(金慮)선생(1766~ 1821)이 여름철에 쪽물을 들여 입던 모시 관복 한벌과 함께 옛 사대부들이 여름취미로 수반(水盤)이나 정로(鼎爐) 돌틈에 심어 푸른 바다와 호수와 섬들을 상상하며 더위를 씻었던 석창포를 선보이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사)우리문화가꾸기회와 서울종합촬영소는 (사)한국자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회장 광진회) 후원으로 7월 14일부터 8월 12일까지 서울종합촬영소내의 명소인 99칸 한옥집 '운당'에서 '여름철 옛 士大夫들의 멋-석창포전(石菖浦展)'을 열고 있다.

옛 관료들의 관복은 모두 사(紗)를 사용했으나 김려선생은 사(紗)는 우리나라 소산이 아니고 중국에서 나는 비단이라 하여 모시에 쪽물을 들여 바깥은 아청색으로 안감은 옥색으로 물을 들여 관복을 지어 입었다. 옷이 헤어져 기운곳이 많았으나 '백성이 헐벗어 굶주리는데 어찌 그 녹(祿)을 먹는 자가 호사를 하겠는가' 하고 당당히 입어 사대부의 기개와 멋

을 느낄 수 있다.

석창포는 더러운 물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기능을 하는 식물로 등불의 그림도 흡수해 옛선비들이 서가 가까이에 두고 길러 '문방오우'라 불린다. 천남성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로 잎의 길이가 3~5cm의 작은 것과 5~15 cm의 큰 것 등 2종류가 있다. 조선초 문신 강희안의 '양화소록'을 비롯해 온갖 양화기록엔 빠지지 않는다. 석창포는 난초 잎의 유연함과 송죽(松竹)의 늘푸른 덕성을 모두 갖췄지만 난초가 지금까지 대중의 사랑을 받아 지천으로 넘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난초보다 더 사랑을 받던 석창포는 안타깝게도 선비·선비정신과 함께 이 땅에서 잊혀지고 말았다. 이에따라 석창포를 좋아하는 몇몇이 종자를 나눠 기르던중 30년 동안 홀로 석창포를 가꾸고 지킨 임영재씨((사)분재협회 감사)가 합류해 전시회를 개최하게 됐다.

이곳에 가게되면 모시관복·석창포와 함께 운당의 주인인 고미술가 이훈석씨가 30여년에 걸쳐 수집한 고미술품중 하나인 추사 김정희선생의 친필 등도 감상하는 기회를 부가적으로 얻을 수 있다.(敗)☞



전통문화에 실용성 접목해 가방·머리핀·머플러 등을 만드는 바인아트 김난 대표

“핸드백 옆어요, 지퍼 대신 보자기로”

강민철 기자 (mckang@kccf.or.kr)

“우리나라 문화상품은 갖고 다니기에 애매한 구석이 있다고 생각해요” “뭘 만드느냐?”는 물음에 대한 김난 바인아트 대표의 첫마디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자리잡은 바인아트는 한국의 미가 깃든 가방·머리핀·머플러 등을 개발하는 문화상품 업체.

이 회사는 한국적인 이미지에 포인트를 주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실용성을 강조한 문화상품들을 다양하게 만들어 오고 있다. 이를테면 보자기를 보자기 그대로 내놓지 않고 손가방에 보자기를 접목하는 식이다. 금속성 소리를 내는 지퍼 대신에 우리의 보자기 매듭을 스르르 푸는 멋을 담았다. 캐주얼한 핸드백의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디자인만은 둥그스름한 복주머니 형태를 채택하고 있는가 하면 머리핀에도 조각보를 결합해 색다른 느낌을 갖게한다. 세계적 명품인 프라다 소재에 천연염색을 하거나 청자상감 연당초 주자·할미탈 등 한국의 전통문양 액세서리를 박아 동서양의 오묘한 조화를 자아내기도 한다.

대학 졸업후 성도어페럴 디자인실에서 근무하던 김씨는 대학원과 세 번의 전직을 통해 이론과 현장 경험을 탄탄히 쌓았다. 우리의 미와 실용성을 가미한 문화상품 컨셉을 세운 것도 그때다.

“회사는 실용성만을 강조하는 반면 작가는 아트성만 고집하더라고요”

회사를 그만두고 인사동을 돌아다니며 시장조사를 해봐도 마찬가지였다.

“문화상품은 많으나 정작 지니고 다닐만한 문화상품은 없었어요”



△바인아트 김난 대표

캐주얼한 실용성에 할미탈 등 문양 결합

김씨는 지난해 1월 바인아트를 창업했다. 한쪽 벽에는 지금까지의 노력을 말해주듯 수십가지의 문화상품들이 걸려 있다. 여성기업 우수상품전이나 바인아트 패션 악세사리전·2000서울문화상품전 등 각종 전시회에도 참가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김씨는 디스플레이할때 가방과 스카프·머리핀 등을 따로따로 내놓지 않고 종합적으로 코디해 이미지 상승효과를 유도한다.

국내외 잡지나 시장을 통해 패션 트렌드를 눈여겨 보며 소비자들의 수요에 맞춰 재빠르게 새상품을 내놓는다. “지금 퍼플 색깔이 유행한다 싶으면 보자기를 퍼플색으로 만들어요”

대체로 가방은 10만~14만원선. 그러나 여느 문화상품 업체가 그렇듯 바인아트도 그리 많은 매출을 올리지는 못한다.

1년7개월여 동안 일하면서 문화상품이 밀빠진 독처럼 투자는 많고 소득은 적다는 것도 뼈저리게 느꼈다.

“우리나라는 저가 상품 아니면 브랜드 상품이라야 되는데 현실이에요”

문화상품은 전체 매출의 일부분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모두 대기업체에 납품해 벌어들이는 돈이다. 아예 김씨는 문화상품에 대해 큰 매출을 기대하고 있지 않는 눈치다.

그는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돈을 벌기위해서가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한다. 중앙대·경문대·용인 송담대 등 3개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나가고 있는 김씨는 작가 개념으로 일하며 새로운 것을 구상하고 또 이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데 더 큰 매력을 느끼는 표정이다.

“예전엔 아트라는 것이 액자에 끼어넣는 것으로 땡이였어요” 그래서 김씨는 학생들에게 소재에 염색을 해 다른 느낌을 주도록 하거나 모티브를 개발하면 착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재구성하도록 가르

치고 있다.

더욱 그녀의 속셈(?)이 궁금해졌다.

“돈 안되는 문화상품을 굳이 하는 이유는 뭐니까?”

“이건 내꺼예요. 기업체 요구에 따라 납품하는 상품과는 달라요. 보람을 느껴요...그리고 금속·도자분야 문화상품은 많지만 섬유쪽 문화상품은 아직 없잖아요” 문

바인아트의 문화상품들

캐주얼한 손가방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지퍼 대신에 보자기를 달아 고상한 분위기를 낸다. 머리핀에도 조각보를 결합한다. 세계적 명품인 프라다 소재에 천연 염색을 하거나 청자상감 연당초 주자·할미탈 등 한국의 전통문양 액세서리를 박아 동서양의 오묘한 조화를 자아내기도 한다. 가방·머리핀·머플러 등.



‘새김벌레’라 불리는 근대의 대표적 전각가 오세창

위 창 오세창(吳世昌 · 1864~1953). 근대를 대표하는

서예가 · 전각가(篆刻家)이자 탁월한 감식안(鑑識眼)을 지닌 서화사(書畫史) 연구자인 그는 조선말기의 역관(譯官)으로 개화사상의 선각자다.

그는 우리나라 언론 1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한성주보(漢城周報)> 기사를 지냈고, <만세보(萬歲報)>와 <대한민보(大韓民報)> 사장을 지내면서 개화운동과 애국계몽운동에 투신했

는가 하면, 광복 후 서울신문 초대사장 등을 역임하기도 했다. 또 1902년 개화당(開化黨) 역모사건으로 인해 일본으로 망명하여 그곳에서 천도교(天道教) 교주였던 손병희(孫秉熙)를 만나 그를 통해 독립운동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귀국 후에는 손병희 · 권동진(權東鎭) · 최린(崔麟) 등과 함께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으로서 항후 독립운동의 전환점이 된 3·1 만세운동에 앞장 서다 투옥되기도 했다.

오세창은 10대 말부터 부친으로부터 전각을 배운 이래 자신을 “조충(雕蟲: 새김벌레)”이라 불리웠을 정도로 전각에 몰두했다. 그의 전각은 크기 · 형태 · 재료 등에서 다양할 뿐만 아니라, 각풍(刻風)에 있어서도 종정금문(鐘鼎金文) · 상형고문(象形古文), 진(秦) · 한대(漢代) 고인(古印)의 각풍 및 청대(清代) 명가들의 각풍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수용하였다. 또 인문(印文: 인장에 새겨진 글)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 위창(葦滄)이란 호를 “韋倉” 등의 동음이자(同音異字)로 새기거나 여러 가지 별호(別號)를 지어 작품에 응용하여 전각과 서예를 겸비한



면모를 갖추고 있다. 더욱이 그의 서예가 실제 전각의 수련을 바탕으로 진보될 수 있었다는 점과 그저 신표(信標) 정도로 이해되던 전각에 본격적인 예술성을 더해갔다는 점에서 근대 전각의 선구자로 평가된다.

오세창은 전서(篆書)와 예서(隸書)에서 예술적 성과를 이루었고, 옛 명적을 보고 베껴쓰는 임서(臨書)로부터 엄정 · 단아한 서풍의 자기세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풍을 보였다.

전서(篆書)는 상(商) · 주대(周代) 종정문(鐘鼎文)으로부터 진(秦) · 한대(漢代) 이후의 와전문(瓦塼文) · 각석(刻石) · 비갈명(碑碣銘)은 물론이요 청대(清代)의 여러 전서풍에 이르기까지 전 영역을 섭렵하였다. 또 그것들이 지닌 금석학적(金石學的) 의미를 탐구하는 등 이론과 실제 양면에서 근실한 연찬을 수행했다. 그 중에서도 상형고문(象形古文)이나 종정금문(鐘鼎金文)을 응용한 것과 엄정한 소전(小篆)을 특유의 필법으로 소화해낸 것이 백미이다.

탁월한 감식안을 바탕으로 그는 서화자료의 수집과 서화사 연구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그가 정리해낸 편저물로 우리나라 고서화를 집대성한 ‘근역서휘(槿域書彙)’ · ‘근역화휘(槿域畫彙)’ · ‘근묵(槿墨)’, 조선시대 명인들의 인영(印影: 인장을 찍은 것)을 모은 ‘근역인수(槿域印數)’, 우리나라 역대 서화가에 관한 문헌사료를 모은 ‘근역서화징(槿域書畫徵)’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편저물은 오늘날 한국서화사 연구에 있어 귀중한 참고서로 평가되고 있어 그를 작가라기보다 서화사 연구자로 강조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국**



영치기 영차! 중요무형문화재 제75호인 당진의 기지시 줄다리기. 당진문화원은 당진의 자랑거리인 기지시 줄다리기를 전국 규모의 행사로 성장시키기 위해 국내외 자료수집을 비롯 성공한 축제의 벤치마킹을 시도하고 있다.

앞서가는 문화원을 찾아서24 당진문화원

문화원 · 문화의 집 통합 조성... 연간 6만명 방문

강민철 기자 (mckang@kccf.or.kr)

민영근 당진문화원장 인터뷰

민 영근 당진문화원장은 젊다. 나이가 이제 갓 50. 전국 문화원 원장들의 나이에 비춰보면 막내동생뻘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민원장은 생각이 젊다. 오는 10월 임기가 끝나는 민원장은 딱하니 문화원의 염원인 원사도 하나 지어놓았다. 이만하면 재선을 위한 표(?) 한무더기는 확보해 둔 셈이다. 문화의 집과 함께 조성된 당진문화원은 숲을 바로 등지고 있으면서도 시내 중심권과 가까와 주민들의 왕래가 많다. 변변한 문화시설 하나없는 당진에서 종합문화센터로서 더할나위 없는 구실을 하고 있



민영근 당진문화원장

다. 당진문화원의 사령관 민영근 원장을 만났다.

당진문화원이 가장 역점을 두고 실시한 사업은?

당진문화원은 1958년 설립된 이래로 많은 사업들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중 가장 역점을 두고 실시한 사업 몇가지를 말씀 드린다면 당진의 고유한 전통문화 및 향토사의 연구와 국내외 문화예술의 활발한 교류사업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당진문화원 향토문화 창달의 종합문화센터로 자리매김하고자 우선 지역민의 숙원이었던 문화원사를 새로이 신축했습니다. 특히 문화원사를 문화의집과 함께 조성해 지역민에게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진문화원은 중국의 전통문물과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민속공예품전시를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연 바 있으며 중화인민공화국 건국50주년기념사진 전시회를 당진문화원 문화관람실에서 전보진 중화인민공화국 주 대한민국 대사관 공사를 비롯한 육사덕 문화참서관등과 지역기관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또 미국 스노우 미시군(씨애틀)셋별전통예술단원을 초청해 공연한 것을 비롯 백제문화의 흔적이 물씬 풍기는 일본규슈지방을 문화원 회원들과 순례해 한국과 해외 문화를 비교연구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우리지역 당진과 지명이 같은 일본 당진 지역의 세계적인 축제 '쿤치'를 통해 일본의 공동체를 체험하는 한편 송봉화사진전<일본당진 '쿤치'>전시회를 문화원에서 개최하는등 국제문화예술교류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진을 널리 알리고자 천혜의 자원을 소재로 '그리

운 삼교호' '내고향 당진' 등 가요를 제작해 국내의 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진만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문화강좌를 개설해 지역민에게 수준높은 문화생활로 윤택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당진의 향토사 발전을 위해 향토사료관 설치와 함께 유명무실했던 당진문화원 부설 당나루 향토문화연구소를 부활시켜 지역민에게 고장의 뿌리를 찾아주는 한편 나아가 애향심을 고취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당진문화원은 특히 당진문화의집으로도 유명한데 어떻게 이를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당진문화원과 당진문화의집을 최초로 통합 조성해 놓고 보니 각 지방문화원과 문화의집에 서 운영과 관리에 관한 문의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시설을 새로이 신축하는 지역에서는 지자체 실무담당자들이 저희 시설및 운영 관리를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아 직접 방문해 살펴 보고 있는 실정 입니다. 문화원과 문화의집은 각기 고유의 사업을 바탕으로 상호 보완적이고 유기적인 체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운영관리자가 동일 하기 때문에 업무의 일원화를 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문화원이 정적인 사업이라면 문화의집은 동적인 사업으로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 지난 1999년도에 전국문화기반시설 운영 평가에서 문화원부문 문화관 광부 장관상을 수상했고 2000년도에는 문화의집 부문에서 문화관광부장관상을 2년연속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문화원장으로 일하면서 보람 있었던 일과 힘들었던 일이 있으면 각각 하나씩 말씀 해 주십시오

보람이라면 문화원의 오랜 염원이었던 원사를 신 축한 것입니다. 이제 당진문화원· 문화의 집은 명 실공히 지역민의 문화사랑방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꾸준히 문화원의 역할과 기능을 홍보하



△당진문화원· 문화의 집 전경



△대호지4.4독립만세운동 기념 행사에서 민영근 당진문화원장(50)과 주민들이 독립군과 일본군사로 변장해 그 당시의 상황을 재현하고 있다.

고 문화계몽운동을 펼친 결과 이용객이 월평균 6천 여명으로 연간 6만여명 이상에 달하고 기타문화행 사까지 포함하면 연간 10만여명 이상이 직· 간접적 으로 문화원을 통해 문화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문화원이 지역 종합문화센터로서 자리매김 을 해나가는 것을 보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기 보다 는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할 수 있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며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있



△당진문화원이 주관한 남이홍장군 문화제 기념식 모습



△'남이홍장군 문화제' 무과 재연행사에 참석한 두 청년이 무술 시범을 보이고 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75호 기지시줄다리기 제례행사에 참여하는 민영근 당진문화원장

습니다. 좀더 지역민에게 다양하고 수준높은 문화 프로그램으로 다가가 최대한의 문화혜택을 누리게 하고 싶고 지역의 향토문화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고부가가치의 관광산업을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여건이 충분치가 않아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향토문화 연구사업과 전통문화 계승사업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가?

대학교수 및 향토사학자들로 구성된 문화원 부설 '당나루향토문화연구소'에서 활발한 향토문화연구 조사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현재 향토문화논총을 비롯한 당나루맥락 21집인 당진문화등을 CD로 제작해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 전통예절 및 제례 그리고 전통다도예절과 전통한복바르게 입기등 다양한 전통문화의 계승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년 설날과 추석에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지역고유전통 민속놀이 경연대회 및 전통문화토론회를 열어 조상의 지혜와 슬기와 얼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당진문화원의 문화행사중 독특하거나 인기를 끌었던 프로그램이 있다면?

매년 문화원 주관으로 실시되는 행사중에 남이홍장군문화제가 있는데 몸을 불살라 나라를 지킨 호국충절을 기리어 후손들에게 그 얼을 이어 받게 하고자 남이홍장군의 탄신기념일에 맞춰 실시되는 행사입니다. 이 행사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지만 실제로 남이홍 장군이 알성무과에 합격하는 과거시험을 재연하는 행사는 인기가 많아 지역민의 참여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역문화의혜를 맞이해 문화예술인들의 한마당 잔치를 비롯 불꽃놀이·성악·국악·타악·대중가요등 인기연예인을 초청해 다채롭게 열었는데 총 관람인원 약 4천여명이 참석하는등 인기를 누렸을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로 부터 '좋은 행사를 보았다'는 평을 받았습니. 또한 서울대학교 김일철 교수의 정년퇴임기념으로 기획해 서울대학교 출판부에서 간행된 <한국의 사회구조와 지역사회> 사회발전연구총서 161쪽 부터 185쪽까지에는 국내의 대표적 문화단체로 당진문화원을 선정하고 당진문화원과 일본의 후미지정 공민관과의 사업활동 및 주민참여에 대한 비교를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책은 현재 서

을대학교 학생들의 연구교재로도 활용하고 있어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사 설립예산은?

지난 97년 시범문화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문화원과 문화의집 신축사업비로 국비4억원, 도비2억원, 군비10억원, 문예기금 2억원등 총18억원의 예산을 들여 99년 5월 19일 연면적 341.8평 지상3층의 신축문화원사를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지방문화원처럼 당진문화원도 인구나 환경의 변화가 클 것으로 본다. 농촌형 문화원, 중소 도시형문화원으로 구분하자면 어디에 가깝나?

언뜻보기에 당진은 농촌에 가까우나 생활방식면에서는 서울의 웬만한 구와 비슷합니다. 문화원도 농촌형에서 중소도시형 문화원으로 변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충남 당진은 서해안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서해대교 및 서해안 고속도로로 서울과의 거리가 1시간 10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따라서 서해안 태안반도와 내포지역의 명소로 이동할 수 있는 교량적인 통로로 당진의 문화 유적 및 문화행사의 발굴이 필연적으로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당진의 대표적인 축제는 무엇이며 문화원의 역할은 ?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75호 기지시줄다리가 있는데 매년 소제 및 대제행사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저희 문화원에서는 당진의 자랑거리인 기지시줄다리를 전국적인 행사로 성장시키기위해 국내외 자료들을 수집하고 성공한 축제의 벤치마킹을 통한 세계적인 자랑거리로 성장시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일본 와세다대학에 의뢰해 오키나와현 줄다리기 행사 녹화 테잎을 입수, 금년도 대제 행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2001, 지역문화의 해' 추진위원회에서 개최한 컨설팅에서 논의된 사항

은 다음 행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단계적 토론회를 개최해 향상방안을 도출, 기지시줄다리가 당진문화축제의 대표적인 행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전국문화원연합회에 건의할 것이 있다면?

얼마전부터 기획예산처에서 지방문화원진흥법을 이유로 지방문화원의 국비지원을 지자체로 이양시킨다는 방침이 나와서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현재 지방문화원의 사업활동비등 각종 지원비가 국비지원 전제아래 도비와 지방비가 피동적으로 지원되어지는 현 상황에서 혹여 지자체가 재정자립도를 이유로 문화사업 예산을 감축한다면 지방문화원의 존립기반마저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각 지역의 문화향상과 보급의 최일선에 지방문화원이 서 있다고 볼 때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중앙정부는 시행전 다양한 채널을 이용해 심사숙고 해야 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간의 경쟁이 문화에서 비롯된다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인 문화계몽 정책과 문화 마인드 제고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문화원이 각기 고유의 역할을 다하는 가운데 서로 삼위일체가 되어 '문화의 세기'를 실현해 나가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이에 대한 교량적 역할을 전국문화원연합회가 수행해 문화원간 유기적 연대강화와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21세기의 중심에 문화가 우뚝 설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을 따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미 주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돼야 합니다. 한 예로 문화원이 부담을 안고 있는 전기요금등을 미술관·도서관·박물관과 같이 감액 받으면 전체적으로 운영비가 늘어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문화원 운영에 대한 발상전환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이젠 문화관광!”...국내 최초 함상공원 조성

김낙성 당진군수 인터뷰

당진은 농업과 공업이 어우러진 도시다. 그런가 하면 타 지역과는 다른 '내포문화'를 유지해 오고 있다. 김낙성 당진군수(59)는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는 화두에 걸맞게 주변의 자연과 문화유적지를 활용한 관광도시로 거듭 태어나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화관광의 도시 당진'을 주창하는 김낙성 당진군수와 서면인터뷰를 가졌다.

당진 하면 무엇이 떠오르기를 바라는가?

우리고장 당진은 맛있는 쌀을 생산하는 전통적인 농업군이요, 꿈과 희망이 살아있는 공업군이며, 문화의 정체성을 가꾸어 나가는 문화 관광도시입니다



△김낙성 당진군수

다. 첫째로 우리군은 김제시 다음가는 경지면적을 갖고 있으며, 석문 방조제내 농경지가 조성되면 전국에서 제일 많은 경지면적을 갖게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당진쌀을 '97년과 '98년 그리고 2000년도 전국 최고의 당보당 쌀 생산량 1위를 달성했고 미질면에서도 명미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둘째로 당진은 미래지향적인 신항 공업군으로서 크고 작은 많은 공장이 입주하고 있으며 앞으로 많은 첨단산업이 입주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한보 부도 이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고장 당진하면 꿈과 희망을 찾아 세계의 젊은이들이 구름같이 몰려드는 기회의 땅으로 연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로 우리군은 무엇보다도 전통문화와 볼거리가 많은 고장입니다. 심훈 선생과 기지시줄다리기 등 많은 유무형의 문화재가 살아 숨쉬고 있으며, 서해유일의 해뜨고 지는 왜목마을 등 많은 관광지가 있습니다. 특히 서해대교 개통이후 우리고장은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진하면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하는 사상과 정체성을 가진 다채로운 문화의 도시로서 찬란하게 떠오르는 아침 해와 서해대교 그리고 진달래를 연상하는 미래의 고장이라는 명성을 듣고 싶습니다.

당진의 문화발전 전략이라면?

20세기가 자연 그대로의 문화를 발굴해 보전하는데 머물렀다면 21세기는 문화의 정체성을 살리고 그것을 상품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군은 예로부터 바다·평야·하천 등이 연계되어 다른 지역과 구분이 되는 독특한 문화가 발달되어 왔습니다. 이를 일컬어 내포문화라고 하는데 이는



△ 김낙성 당진군수가 자랑하는 '맛좋은 당진쌀'



△ '해뜨는 지는 왜목' 일출



△ 안국사지 석불입상(보물100호 · 101호)



△ 영탑사 금동삼존불(보물409호)

백제문화권 · 경주문화권 · 영산강유역문화권 등과 구별되는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문화자원을 발굴하는 한편 관광산업과 연계하기 위해 추진중에 있으며 건설교

통부에 문화관광 특정지역으로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당진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을 든다면?

우리 당진군은 보물 409호인 영탑사 금동삼존불 등 많은 문화재와 문화유적지가 산재해 있는 역사와 문화 · 충절의 고장입니다. 대표적인 문화유적으로는 무형문화재 제75호인 기지시줄다리기와 농촌 계몽소설 심훈선생께서 상록수를 집필하신 필경사, 우리나라 최초의 김대건신부가 탄생하신 솔피성지, 안국사지 보물100 · 101호 석불입상, 신암사 보물 987호 금동좌불상등 중요한 문화유적들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조들이 물려주신 친화적인 자연환경은 당진의 보배입니다.

지금 지자체들간에 문화관광상품화를 경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당진은 어떤가요?

외국인 관광객 1인은 소형컬러 TV 10대, 3인은 자동차 1대를 수출하는 것과 같은 경제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관광객들로 하여금 그 관광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접하고 기억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 따라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산업임에 틀림없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문화관광자원을 테마별로 연계시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해안관광, 성지순례, 불교사찰 탐방 등 테마별 관광 코스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차별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해군과 해병대의 독특한 문화를 관광상품화 하기 위해 전국 최초의 함상공원을 삼교호관광지에 조성하고 있고 기 지정된 삼교호와 난지도 관광지를 비롯한 해 뜨고 지는 왜목마을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관광지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관광 추세가 단순히 문화유적지를 관람하거나 자연경관을 둘러보는 형태에서 벗어나 직접 체험하고 참여하는 동적인 관광형태로 바뀌고 있음에 따라 관광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문화축제와 살아있는



△ 상록문화제행사

서해바다의 갯벌체험 등 참여형 문화관광상품 개발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기타 지역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다양한 문화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우리 지역만이 갖고 있는 정체성을 최대한 부각시켜 타 지역과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당진군의 문화예술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은?

문화의 세기담게 지금 우리고장에서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은 전시회·음악회·공연 등이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은 문화행정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와 소양을 향상시키기 위해 꾸준히 전문위탁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진군의 문화기반시설은 어느 정도인가?

우리군에서는 민선 자치이후 향토문화사업의 인식을 달리하고 많은 재원을 투자해 문화원과 문화의 집·합덕소들문화회관·송악도서관 등 향토문화를 담아낼 인프라를 구축해 왔습니다. 또한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한 수도권 인구의 접근성과

관광수입을 겨냥해 해군 군함을 이용한 국내 최초의 함상공원을 조성해 개장을 앞두고 있고 이와 더불어 종합문예회관·다목적체육관·합덕수리민속유물전시관 등 문화 체육 기반시설을 금년도에 착공함으로써 우리군 문화기반 시설은 상당히 이루어진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임기중에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민선 2기가 출범된지 어느덧 2년이 지나고 이제는 모든 사업을 마무리 지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는 말처럼 그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마지막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고장 당진은 지금 세련된 도시 문화와 순박한 농촌문화가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때 보다도 새로운 문화가 정립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20만 도시건설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스키업유치 및 공단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산업의 전략적 육성으로 관광 휴양지의 집중 개발 △저소득층 생활안정으로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사회 구현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등에 역점을 두고 ‘위대한 당진, 복되고 건강한 당진 건설’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지역의 항구 발전을 위해 △당진항 지정과 △석문·부곡·고대 공단의 첨단 산업 조기유치 △국세의 지방세로 이양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해대교

중국, 龍井을 다녀와서

- 조선족 문화가 북한 일색이어서는 안된다 -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3박 4일의 여정으로 동대문문화원 김 영섭 원장을 비롯해 이사, 운영위원 등 일행 22명이 용정시조선족문화발전추진회(회장 리준일)의 초청으로 중국을 다녀왔다.

길림성 용정은 중국 내 조선족 진출 100년 역사의 근거지라고 할 정도로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 동포들이 뿌리를 내린 곳이다.

두만강 땅이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인근의 연결시가 용정시에 비해 훨씬 더 발전하여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주도(州都)로서 공항 또한 연결공항을 이용해 용정에 들어가지만 '용드레 우물'을 비롯해 '일송정', '대성중학교', '운동주 생가' 등 조선족 역사유적의 대부분이 용정지역에 밀집해 있고 중국대륙에 진출한 일본이 제일 먼저 중국땅에 영사관을 설립한 곳이 용정임을 보면 예전에는 용정이 연결보다 훨씬 큰 규모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우리 일행의 중국방문은 여행 일정에 백두산과 장백폭포 관광이 잡혀 있던 했지만 단순히 관광목적으로만 간 것이 아니었다.

지난 4월 중순, 통일부 변경섭국장 소개로 우리 동대문문화원을 방문한 바 있는 용정시조선족문화발전추진회 리준일 회장이 우리 문화원을 둘러보고 양 단체간의 교류를 희망해오에 따라 성사된 여행이었기 때문이다.

리준일 회장은 조선족으로서 매우 고위적인 용정시 행정부시장을 역임한 작가 겸 체육회장으로서 조선족사회에서는 명망이 꽤 높은 분이다. 특히 용정시 부시장으로 재직 중에 오래 전 일제의 간악한 흉계에 의해 사멸한 일송정(一松亭)소나무를 60년이 지나 비암산 자락, 즉 예전에 그 나무가 서있던 자리에 다시 심고 일송정을 기리는 정자를 세움으로써 '선구자' 노래를 생각하며, 또한 옛날을 회상하며 용정을 찾는 많은 동포들에게 조선족의 아픈 역사를 상기시키며 민족혼을 일깨우는데 큰 기여를 한 분이다.

또한 1930년대 『北郷』이라는 문학잡지를 창간해 안수길(安壽吉), 박영준(朴榮濬), 강경애(姜敬愛) 등 수많은 민족작가를 동원하여 민족계몽운동을 펼친 간도문학을 복원하는 차원에서 순 한글로 쓰여진 『일송정』이라는 문예



권 태 하
동대문문화원 사무국장·작가



지를 2년 연속 발행해옴으로써 지금도 중국에서 우리 글로 문학활동을 하는 조선족민들의 발표의 장이 되고 있다.

중국행 며칠 전에 초청측인 용정시조선족문화발전추진회 측에서 우리 일행의 용정 도착 다음날에 우리 일행을 환영하기 위한 공연이 준비되어 있기에 우리측에서도 문화원 운영위원인 가수 임부희씨와 역시 운영위원인 김양수 무용단장과 단원들을 대동하여 그곳에서 합동공연을 가지기로 합의했다.

약 300여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연장은 넘치는 인파로 인해 발 디딜 틈조차 없을 정도였다. 맨 먼저 무대에 오른 용정시 노인학교 합창단, 비록 노인 합창단이라 했지만 중국은 우리와 달라서 50세부

터 노인학교 학생이라니 합창소리는 젊고 우렁찼다. 이제는 우리 귀에 설지 않은 북한노래 '반갑습니다'와 '용정시의 노래'를 들려줬는데 멀리서 오는 동포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기 위해 며칠동안 연습을 했다하더라도 합창실력이 거의 프로에 가까워 우리를 감탄케 했다.

이어서 소학교(초등학교)어린이들의 손품금(아코디온)합주, 단체무용, 중학생, 고등학생 순으로 가야금 합주, 사물놀이 등 독창, 독무 보다는 주로 단체적인 프로그램이 많은 편이었지만 그 실력은 그 모두를 데려가 당장 세종문화회관에 올려도 크게 손색이 없을 것 같았다.

우리측에서 데리고 간 가수 임부희씨의 「달타령」은 이미 그곳에 진출한 노래방을 통해 동포들 귀에 익숙어인지 많은 관객이 따라 불렀고 재창으로 '눈물젖은 두만강'을 부르며 '그리운 내 님이여'를 애절하게 넘어갈 땐 장내가 한순간 숙연해지기도 했다.

김양순 운영위원이 함께 한 단원들과 주머니 받거리 뱃노래를 열창하자 관객들 중에 많은 이들이 무대로 몰려나와 출연자들과 한데 어우러져 덩실덩실 춤을 추는 모습을 보며 우리 일행은 무척 감격스러워했다. 문제는 조선족이 많이 모여사는 중국의 동북3성(길림성, 흑룡강성, 요녕성)의 조선족 문화가 북한 일변도라는 점이다. 반 옥타브쯤 높고 성대를 써서 가성(假聲)을 내는 듯한 목소리, 그것도 행진곡풍의 빠른 노래 일변도로 가는 북한식 노래가 대중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로서는 간단히 보아 넘길 문제가 아니다. 이것이야말로 민족의 먼 장래를 생각할 때 참으로 큰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지리적으로 북한과 가깝고 그래서 중국 내 조선족 중에 북한지역 출신이 많아서도 그렇고 또한 남북분단으로 인해 남쪽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이 오직 북한문화만 유입되다보니 그랬을 것이라고 충분히 이해는 된다.

그러나 오늘날 중국 내 조선족들이 다들 말하듯이 남쪽(한국)문화는 노래방문화, 맛사지문화, 섹

스문화라는 식으로 우리 문화가 잘못 이해되거나 폄하되는 일이 있어선 더욱더 안될 일이다.

남쪽에 집체(단체) 놀이문화가 없다고 하는데 '강강수월래'며 '쾌지나칭칭나네' 등 찾아보면 얼마든지 좋은 것들이 많다. 뿐만 아니라 판소리며 마당극, 품바타령 등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은가.

바로 이러한 남쪽의 전통민요, 전통문화가 중국 내 조선족들에게 바르게 심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조선족문화가 북한 일변도를 탈피하고 한국의 전통문화가 어우러져 한반도 문화가 되어야만 우리 민족이 염원하는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전국문화원연합회가 매년 연결시를 방문하여 연변조선족문화발전추진회와 함께 조선족전통음악제(민요경창대회)를 갖는 것은 참으로 선견지명이 있는 훌륭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남쪽(한국)문

화가 중국 내 조선족에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한다. 비록 힘이 들겠지만 그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기야디아(어기야디아)' '에헤에에 어야디아(어야디아)'로 이어지는 뱃노래 후렴을 다라 부르다가 절로 흥이 나서 무대로 뛰어올라와 춤을 추는 그들 또한 우리와 같은 피, 같은 신명을 가진 우리 동족이니 말이다.

우리 동대문문화원 용정방문단 중 많은 분들이 "그동안 발리섬도 가보고 유럽, 중남미 등 다 둘러봤지만 이번 여행처럼 감동적인 여행은 처음이었다"면서 고마워 했을 때 이번 일을 기획한 김영섭 문화원장과 사무국장인 나는 참으로 큰 보람을 느꼈다.

어쨌든 우리는 해마다 용정방문단을 조직해서 공연을 갈 것이며 더욱 문화교류를 활성화하여 우리 문화를 조선족에게 심는데 더욱더 정성을 기울일 것이다. **문**



용정시 소학교 어린이들이 신랑각시 타령을 부르고 동대문문화원측 가수 임부희씨가 노래를 불렀다. 김양순 동대문문화원 운영위원이 뱃노래를 열창하자 흥겨움에 조선족 여인들이 무대에 올라와 춤을 덩실덩실 쳤다.

한·일관계가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로 급냉하고 있습니다. 본지는 우리나라 정부를 비롯 국민대다수의 견해에 동의를 표하면서 얼마전까지만 해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한국의 지방문화원과 일본의 문화 단체간의 교류 내용을 지난해에 이어 보도합니다. 다시 한번 일본당국의 역사교과서 수정과 반성을 촉구합니다.(편집자주)

한국과 일본의 새로운 가교 (하)

요우카이치시와 문화교류협정을 체결하고

작은 아씨들의 승전무

분장을 하고 아까부터 한쪽에 압전하게 앉아있던 우리의 작은 아씨들은 공연시간이 되자 아연 활기가 돌았다.

책상과 의자를 한쪽으로 물리고 20여명의 공간을 확보하여 그 마루를 무대로 삼았다.

자리가 정돈되자 김은혜(한려초교 3년)가 남색치마 빨간장삼 예쁜 족두리에 한삼끼고 무대 중앙으로 조신조신 걸어나왔다.

카세트테이프에 담아간 음악이 흘러나오자 그 어린 아이가 금방 날아갈 듯이 화관무를 추는데 '허, 참' 하는 탄성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뒤를 이어 장보리(유영초교 4년)가 창작전통무용 '봄소식'을, 김혜정(유영초교 5년)이 창작전통무용 '갈대꽃'을 추었다.

봄을 상징하는 초록저고리 빨강치마, 가을을 드러내는 갈초록저고리에 노랑치마가 무대가 좁다하며 휘젓고 돌아가니 일본관중들은 눈이 부신 듯 하였다.

일본의 전통무용을 볼 기회가 많지 않아 함부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일본춤에 비하여 우리춤이 원색의상에 스텝도 빠르고 회전반경이 커서 보다 격정적이고 율동감이 더하지 않나 싶다.

거기다가 썩긋썩긋 웃는 모습이 가슴마저 설레이게하니 춤이 끝날 때마다 환호와 박수소리가 실내를 메웠다.



정갑섭
통영문화원 이사

마지막으로 춘 승전무 칼춤은 8명이 추어야 제격이지만 임시방편으로 신가영(충무초교 6년), 오예진(충무초교 6년)에 김혜정, 김은혜 4명으로 추었다.

파랑저고리 빨강치마 검은쾌자에 한삼끼고 전립쓰고 나와서 큰절부터 너부죽이 하고 나더니 두손으로 찰그랑 찰그랑 칼춤을 추니 관중들은 큰 박수로 이들을 반겼다.

마래지향의 시가학원고등학교

공연을 마치고 6모집에서 밖으로 나오니 찰쌀떡을 연방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뿌리는 민속행사를 하고 있었다.

‘찰쌀떡 던지기’는 축제의 하이라이트라고 하는데 요우카이치시에서는 이 날을 축제일로 정한 모양이었다.

행사장을 나와 길건너 청수관에서 일본식으로 점심을 먹고 시가학원고등학교(滋賀學園高等學校)를 견학했다.

이 학교는 사립으로 당초에는 재봉(裁縫) 따위를 가르치는 여자실업고교로 출발했으나 2년전부

터 남녀공학을 실시하고 교과목도 대폭 바꾸었다고 한다.

교과과정이 A·B류(類)로 나뉘어져 있는데 A류(특진반)는 유학코스와 국영코스로, B류(총합반)는 진학, 복지, 생활정보코스로 되어 있었다.

토요일 오후라서 학교는 비어 있었다.

안내교사를 따라 복지실습실에 들어갔는데 20여 평쯤 되어 보이는 이 방은 병원용 침대, 휠체어, 변기, 소독용구에 깨끗한 시트와 타올이 정돈되어 있었다.

여기에서 학생들은 치매에서부터 기동이 불편한 노인에 이르기까지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노인환자들을 간병하는 요령을 배워 나중에 홈헬퍼(Home Helper)로 일한다는 것이다.

안내교사는 이 학교에서 유학반과 대학진학반이 있지만 특히 복지와 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컴퓨터실습실은 25개의 컴퓨터를 설치한 교실이 2개인데, 따로 2개를 두는 것은 컴퓨터의 개발속도가 빨라 50개의 PC를 한꺼번에 교체하는 것보다 25개씩 바꾸어가는 것이 경제적이고 합리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일본말차(抹茶)의 향미 느끼며

마지막으로 차실(茶室)에 들어가 일본의 차도를 견학하며 말차(抹茶)를 맛 보기로 했다.

일본집의 분위기가 느껴지는 열두어평되는 다다미방에 우리일행 20여명이 L자로 빙 둘러앉았다.

창쪽에 다다미 한 장 넓이의 까만천이 깔려있고, 그 위에 앞쪽으로 차구(茶具)가 제자리를 잡고 놓여 있었다.

50세 전후로 보이는 차도지도교사(茶道指導教師)가 푸른색 기모노 차림으로 방 가운데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얼굴 가득히 웃음을 담고 차근차근 차도를 설명



△ 동영문화원과 요우카이치시 문화교류관계자들이 기념식수를 하고 있다.

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저쪽 방에서 기모노 차림의 여학생 하나가 아장아장 걸어나와 까만천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리고는 말차를 더운물에 풀어 적절히 섞은 다음 찻잔을 우리 앞에 가만히 내밀어 놓았다.

내가 말차를 마셔보기는 이때가 처음인데 나는 그때 차의 색·향·맛을 음미하기 보다는 엉뚱하게도 내 앞에서 차를 타고 있는 여학생의 동작 하나하나에 넋을 빼앗기고 있었다.

화사한 연분홍 기모노차림으로 단정히 꿇어앉아, 차기의 물끼를 품속의 수건을 꺼내 닦고, 적당량의 말차를 차기에 옮겨 담고, 적절히 식힌 물에 말차를 타고 섞어 내놓는 일련의 손놀림이 하도 우아하고, 표정 또한 진지하여 나는 참으로 황홀했던 것이다.

전교 18학급에 660명의 학생들을 포용하고 있는 이 학교는 한 사람의 지체부자유학생을 위하여 모든 시설에 휠체어통로를 만들어 놓고 있었다.

교세를 계속 확장하고 있는 이 학교는 사립인데도 막대한 시설비와 교육비를 학생들 수업료와 민간기업이나 단체의 기부금으로 충당한다고 했다.

일정 때문에 시가학원과등학교 시설을 세군데 밖에 보지 못하고 학교를 나서면서 우리보다 훨씬 앞서 달려가고 있는 일본의 교육에 대한 부러움과 절망감이 한꺼번에 엄습하는 느낌을 어쩔 수 없었다.

아카카미야마(赤神山)의 타로보우(太郎坊)를 둘러보고 누노비키(布引)운동공원 연 조형탑(大形造形塔) 앞에 기념식수도 했다.

축제를 즐길 줄 아는 사람들

저녁에는 연회관별관(大形會館別館)에서 연축제 전야제가 열렸다.

우리는 미리 받은 빨간색의 축제용 덧저고리를 걸치고 전야제에 참가했는데 오다코별관과 그 앞마당은 벌써 축제분위기로 달아올라 있었다.

옥내외에 음식과 술이 차려진 테이블과 의자가 놓여있고, 아무나 자연스럽게 권하고 마시며 즐기는데 진행을 맡은 젊은 남녀 1쌍이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었다.

의식을 진행할 때도 등단인사의 스피치는 짧고 빠르고 격양되었다.

일본은 축제의 나라답게 주민 모두가 축제분위기에 젖어 있었고 진행측과 주민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축제를 즐기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지방화시대가 오자 지자체마다 너도나도 축제를 만들어 개성도 고유성도 없이 백화점식으로 떠벌리고 있다.

그런데 몸통따로 손발따로 도무지 재미가 없으니 이거야말로 억지춘향 아닌가.

우리의 축제가 남녀노소 모두 어우러져 즐기는 대동놀이가 되기 위해서는 일본의 마쓰리에서 배울 점이 많아 보였다.

슬금슬금 뿌리던 가랑비가 개이자 우리는 앞마당으로 나갔다.

바깥에는 닭구이와 소등심구이가 있었는데 등심구이가 입에 맞아 이걸 안주삼아 일본청주를 마시며 우리는 이국의 축제분위기를 만끽했다.

우리를 좇아 바깥으로 나온 나카무라 시장은 작은 아씨들에게 싸여 입이 함박만해졌다.

마음씨 좋은 옆집 아저씨같은 이 화안(和顔)의 중년사내는 아까 애들 춤을 보고 마음을 뺏긴터에 이번에는 매달려 이 애들이 “아저씨, 오빠”하면서 재롱까지 떨어대니 귀여워 어쩔줄을 몰라했다.

배도 부르고 술도 얼큰해지자 김모동 선생의 안내로 세계연박물관(大形會館)을 견학했다.

입구를 들어서자 1층 홀 정면 벽에 대형연이 걸려있었다.

가로 12m, 세로 13m로 다다미 100장(50평)의 넓은 ‘요우카이치 오다코’는 요우카이치의 상징물로 매년 5월의 넷째 일요일에 띄운다고 한다.

지금까지 띄워올린 제일 큰 연은 1882년에 만든



△ 문화교류협정조인식을 마치고 우리 무용단과 八日市기관·단체장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 시가학원고등학교의 컴퓨터실습실은 2곳을 두어 양쪽이 번갈아가며 컴퓨터의 개발속도를 맞춰 나가고 있다.

다다미 240장(120평) 크기의 연이지만, 1984년 요우카이치시의 시제 30주년을 기념하여 만든 가로 19m, 세로20.5m, 다다미 220장(110평) 크기의 오다코를 띄우는 광경을 TV로 생방송했다고 한다.

2층 전시실에는 일본 각지의 연 400여점과 세계 35개국의 연 100여점이 상시 전시되고 있는데 기바리논쟁이연을 비롯한 우리의 통영연도 여러점 있어

반가웠다.

오다코 마쓰리

5월 27일 아침, 기획과의 이토오가 호텔 로비로 당일자 교도신문(京都新聞)을 가지고 왔다.

한국의 통영문화원과 요우카이치시가 문화협정을 조인했다는 4단짜리 기사가 승전 무 칼춤추는 사진과 함께 실려 있었다.

아사히신문(朝日新聞)에도 같은 내용의 3단짜리 기사가 실렸다.

5월 27일은 5월의 넷째 일요일이라 요우카이치시의 연축제일이다.

‘요우카이치 오다코 마쓰리’는 에치가와(愛知川) 하상(河床)에서 열렸다.

댐으로 인해 이 강이 마르자 넓은 강바닥이 드러났고, 툇트여 거칠 것 없는 이 마른 강바닥은 연축제를 열기에 안성맞춤인 곳이었다.

강안(江岸)의 하상에 특설무대가 설치되고 강둑은 이미 콘크리트로 계단을 만들어 스탠드가 되어 있었다.

연축제개막식에서도 우리일행은 외국에서 온 ‘특별한’ 귀빈으로 소개되었다.

TV생중계가 진행되고 남녀 사회자가 채치있는 진행을 하는 가운데 이날 연날리기 대회에 참가한 팀과 연이 차례로 소개되었다.

일본 전국의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 가운데 20개처에서 38개팀이 참가했단다.

팀은 초등학교 학생들에서부터 노인클럽에 이르기까지 다양했고 연은 작게는 세로 기준으로 2m에서부터 6~7m에 이르기까지, 연에 그린 그림도 곤충에서부터 용이나 호랑이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각양각색의 연이 경연대회를 벌였다.

요우카이치의 오다코는 연 윗쪽에 물고기·새·짐승 따위 동물을 쌍으로 그리고 아래쪽에 상징성이 있는 글자를 쓰는데 연의 뼈대나 목숨을 매는 방식 등이 우리나라의 방패연하고는 판이했다.

특히 이 연들은 바람을 태워 겨우 공중에 올릴 뿐으로 통영연처럼 양쪽으로 후리고 곤두박질을 치며 아슬아슬하게 재주를 부리는 기동성은 전혀 없었다.

이날 우리가 놀라고 부러웠던 점은 군중이 계속 모여들어 우리가 거기를 떠난 12시까지만해도 만여명의 주민이 가족 단위로 축제를 여유있게 즐기던 것이다.

만여명이라면 요우카이치 인구의 4분의 1이 아닌가.

아, 비와코박물관

연축제장을 빠져나와 교토(京都)로 향했다.

400만년전에 형성됐다는 비와코(琵琶湖)를 끼고 남으로 달리다가 비와코박물관에 들렀다.

박물관은 비와 호수 남쪽 호반에 자리잡고 있었다.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거대한 박물관 본관은 지하층은 수장고, 1층은 사무실, 회의실, 기획전시실, 정보센터, 레스토랑 등이 들어있고 2층이 상설 전시실이였다.

2층의 A전시실은 약 2억 5천만년전부터 자연환경의 변천을 비와코의 성장과정으로 소개하고, B전시실에서는 사람과 비와코의 관련역사를, C전시실에는 호수환경과 사람들의 생활사를 식물, 모형, 유물, 영상, 사진 등 폭넓은 자료를 활용하여 설명하고 있었다.

작은 아씨들이 매료된 곳은 2층 C전시실 아래에 있는 1층 C전시실이였다.

'담수(淡水)에 사는 생물들'이라는 주제의 이수족관은 그 질과 양에서 세계최고 수준이라는데,

이 호수에 사는 각종 생물에서부터 세계의 호수에 사는 온갖 물고기가 적게는 수십마리에서 많게는 수천마리가 헤엄치고 다니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였다.

교토로 가는 버스안에서 비와코수족관의 감동을 떠올리며 통영에서 건설중인 해양과학관은 어떤 수준일까 하고 다들 마음속으로 견주어보며 좀 쓸쓸해 했다.

교토의 기요미스지(清水寺)를 관광하고 요우카이치로 돌아와 교포식당에서 불갈비 파티로 일본에서의 공식일정을 마감했다.

국가차원의 특별지원이

이번 3박 4일간의 일본 요우카이치 방문에서 기억에 남는 것이 몇 가지 있다.

먼저 요우카이치 시당국의 이번 문화교류협정에 대한 기대치와 손님맞이다.

그들은 이번 협정체결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이를 거시적 행사로 격상시킨 듯 했다.

두 도시가 연이라는 공통분모 속에서 해변과 내륙, 푸른 바다와 녹색의 자연림이 상호보완작용을 일으켜 문화교류의 새 패턴을 형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믿는 것 같았다.

이런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사고의 바탕에는 국제교류에 대한 국가차원의 예산지원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가뜩이나 모자라는 문화원사업비에서 교류협력비를 쪼개 쓰자니 숨도 가쁠뿐아니라 도저히 그들과 밸런스를 맞출 수가 없는 것이다.

일본과 같이 국제교류에 대한 국가차원의 특별지원이 시급한 형편이다.

어쨌든 그들의 환대는 우리에게 좋은 인상으로 각인되었다.

일본 사람들의 예의바른 태도와 씩씩한 응대는

이미 정평이 나있지만 이번에는 거기에다 우리를 VIP로 맞는 세심한 배려가 곳곳에 깔려있었다.

공손하되 지나치지 않았고 꼼꼼하게 마음을 써주되 피곤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부러웠던 것은 그들의 축제문화이다.

마쓰리 현장에서 느낀 감흥은 우리의 축제와는 너무나 달랐다.

그들에게 축제는 생활의 연장선상에 있는 듯, 언제든 그속에 뛰어들어 하나같이 화락(和樂)하며 신명풀이를 할 준비가 되어있는 것처럼 보였다.

놀이꾼과 구경꾼이 따로 없었다. 너와 내가 아닌 우리만 있는 것 같았다.

거기에는 흠여지려는 분위기를 끌어모으는 시각적 음향적 기법이 짙은 민속성을 띄고 구심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그러니 일본의 마쓰리를 잘 다듬어진 대동(大同) 놀이요, 가타르시스 문화라 아니할 수 있겠는가.

결국은 인간관계

끝으로 나흘동안 함께 움직였던 세 사람을 얘기하고 싶다.

김모동 선생은 첫 머리에서 얘기했지만 이번 일의 교랑역담게 80세노령임에도 우리일행을 잠시도 떠나지 않고 온갖 것을 챙겨주었다. 참으로 고마운 분이다.

다음 이토오(伊藤隆司)씨를 빼놓고 이번 일본방문을 말하기가 어렵다.

그는 5월 25일 우리가 고오베공항에 내려서부터 5월 28일 떠날때까지 취침시간만 빼고 우리와 함께 있었다.

그의 마음 씩씩이가 고마워 장태조(張泰祚) 고문이 가져간 지필묵으로 휘호 한점을 써서 그에게 선물했더니 펍 좋아했다.

그로인해 수고한 몇 사람에게 장고문의 문인화와 휘호를 선물한 것도 기억에 남는 일이었다.

우리가 떠나올 때, 도로사정을 고려해서 앞당겨 출발했더니 되려 시간이 남았다.

배웅하러 나온 그를 돌아가라고 해도 듣지 않아 그를 해방(?)시켜 주기 위해 이른 점심을 서둘러 먹고 면세매장에 들어가 두어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해사한 얼굴에 옷매무새가 단정한 이 청년은 있어도 없는 듯, 없어도 있는 듯이, 우리일행을 돌봐줘 손님시중의 본령을 보여준 사람이다.

이제 통역을 맡아 나흘동안 수고한 강지나(姜智娜) 부인에 대하여 한 마디 하고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자기 아버지가 50년대에 스크린을 풍미했던 이태리 여배우 지나 롤로브리지디의 열성팬이어서 첫딸 이름을 '지나' 라고 지었다고 웃으면서 말하던 그녀는 요염한 육체파 지나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여인이었다.

결혼 후 남편을 따라 일본에 건너온지 10년이 넘었다는 그녀는 요우카이치에서 승용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오츠코(大津港)에 사는 주부로 초등학교 다니는 두 아이의 어머니라고 했다.

나는 첫날부터 그녀에게 은근히 신경이 쓰였다.

문화교류협정체결이라는 민간외교에서 통역의 역할이란 막중한 것이기 때문이다.

첫날 시장 예방 때의 환영사, 답사 등에서 그녀의 적합한 어휘의 구사와 머뭇거림 없는 통역을 듣고 나서 나는 그런대로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뒤 일상대화에서 적절한 어구의 침착이 마음에 들었고 항상 메모하는 자세를 보며 나는 그녀가 미더웠다.

무엇보다 꾸미지 않은 얼굴과 수수한 차림에서 은근히 배어나오는 지성미와 세련미가 우리를 아주 편안하게 했다.

나는 그녀가 앞으로도 요우카이치를 방문하는 우리측사절단의 통역을 맡아주었으면 참 좋겠다.☞

중국에 까지 알려진 정자 ‘압구정’

유현석 | 자유기고가

‘압구정’은 조선 세조 때부터 성종에 이르기까지 고위 관직을 두루 지낸 한명회가 벼슬을 떠난 이후 선비들과 시연을 베풀며 여생을 즐긴 정자다.

정자는 조선시대 동호(東湖)의 남쪽 강가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닳나무가 무성했던 저자도와의 강물 사이에 서남으로 바라다 보이던 낭떠러지 언덕 바지에 있어 아름다운 한강의 풍경에 멀리는 북한산의 여러 봉우리까지 시야에 들어와 절경을 이루었다고 한다.

정자는 언제, 어떻게 없어졌는지 알 길이 없고, 다만 현대아파트 72동과 74동 사이에 압구정 터임을 알리는 표석만이 서 있을 뿐이다. 위치는 압구정 1동 456번지 일대이다.

한양 팔경의 하나였던 압구정자의 모습은 이제 접계의 그림으로만 느껴볼 수 있다.

1484년 한명회가 그의 나이 70세로 궤장(機杖)을 하사받고 물러나 압구정에서 여생을 보낼 때 성종이 친히 압구정시를 지어 내렸고, 조정의 여러 문사들도 어제(御製)에 화운(和韻)하여 수백 편의 시가 빚어졌다고 전한다.

압구정이란 이름은 한명회의 부탁을 받은 명나라

사신 예겸(倪謙)이 지은 것으로,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조선 왕성에서 남쪽으로 10리 쯤에 물이 있는데 한강이라 한다.…그강은 넓고 파도가 아득하여 바람 뜻이 오가고 갈매기 오르내리니 마음이 시원하고 경치가 다함이 없어 황홀히 몸을 창해에 머문 것 같다.

내 이름 짓기를 압구라 하고, 이르기를 갈매기는 물새로서 한가한 새라, 강이나 바다 가운데 빠졌다 떴다 하고 물가나 섬 위에 날아다니는 것으로 사람이 길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어찌 가까이 친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위태로운 기미를 보면 바로 날아 떠오르고 공중을 휘날다 내려앉는 것이니 새 이면서 기미를 보는 것이 이같은 까닭으로 옛적에 해옹(海翁)이 아침에 바다로 나갈 적에 갈매기가 이르러 도는 마리 수를 백으로 헤아린 것은 기심이 없는 까닭이요, 붙들어 구경하고자 함에 미쳐서는 공중에서 춤추며 내려오지 아니하니 그것은 사람의 기심이 동했기 때문이다. 오직 기심이 없으면 갈매기도 자연히 서로 친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

만물의 정은 반드시 기심이 없는 뒤에라야 서로 느끼고, 만사의 이치는 반드시 기심이 없는 뒤에라야 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털끝만치라도 사심이 붙어 있게 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기심이 진실로 없게 되면 조정에서는 사람들이 더불어 친하기를 즐기지 아니할 사람 없고, 이 정자에 오를 적에는 갈매기도 더불어 한가히 반겨하지 아니함이 없느니라. 이욕과 관록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관계가 없는 것 같이 한다면 이는 도에 나아감이 높은 사람이 아니겠는가. 정자를 이로써 이름 짓는 것이 아마도 마땅할 것이다....

일찍이 구양수(歐陽修)가 시를 읊어,

험난하거나 평탄하거나 한 절개는 금석과 같아
공훈과 덕이 함께 높아 예나 지금이나 비치네
어찌 기심을 잊어 갈매기가 믿는데 그치리
만물은 다스리는 것인즉 본래 무심함에 있거늘

하였듯이 내가 공에게 바라는 것도 자못 이와 같다.

정자가 낙성되던 날에는 왕을 위시하여 조아의 문호들이 시를 지어 주인공의 덕을 기리고 낙향을 축하하였다. 한명회와 합심하여 세조(世祖) 즉위에 공이 많았던 범옹(泛翁) 신숙주(申叔舟)는 압구정 시를 지어 주인공의 공적을 찬하였다.

손으로 해수레를 떠받들어 하늘길을 바로하니,
하늘을 돌리고 별을 굴리는 일 한번 돌아보는
동안이었다.

빛나고 빛나는 공훈과 이름 한 몸에 다 모였으니
소하·장량(蕭河·張良)과 구수(歐詢), 등우(鄧禹)
를 세어 말할 것이 없다네

높은 벼슬 우연히 온 것이지 기약한 일 아닌 것
이세월은 흘러만 가고 머물지 않는다

한 평생의 맑은 운치를 임천에 붙여 보려고
높은 정자 새로 지어 강가에 서 있다.

마음을 알아주는 이 흰 갈매기뿐인 것이
날고 울며 서로 따르니 한가롭기만 하구나

옥 패물을 버리고 난초(蘭草), 지초(芝草) 께어 차니
강 위의 잔잔한 물결이 제멋대로 출렁거린다.

공을 이루고 이름 날리니 변화함이 싫어져서
아침 저녁 그윽한 생각으로 강가를 거닌다.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中
누정조(樓亭條)

당대 중국 명사들의 시를 받아와 국내 명사들의 시와 함께 현판에 새겨 정자 위에 걸어 놓았으니 호화스러움이 도리어 자연풍경에 누가 될 정도였다. 그리하여 권신세가 한명회의 행동을 위선으로 보아 비웃는 이가 많았다. 특히 성종조의 문신으로 한명회의 전횡을 달갑지 않게 여기던 최경지(崔敬止)는 다음과 같은 압구정시를 지어 한명회의 관욕(官欲)을 꼬집었다.

세번 찾아 부탁하는 임금의 은총 깊으니
정자 있으니 와서 놀 길 없다네
가슴 가운데서 공명심만 없어진다면
환해(宦海) 앞에서도 갈매기를 친압할 수 있으리

이 시에 대한 평판은 엇갈린다. 수백편의 압구정 시 중 백미로 꼽는가 하면, 정작 한명회는 이 시가 너무 싫어서 현판하는 데서 제외시켰다고 한다.

서민시인 이윤종(李尹宗)도 이곳을 지나치다 한명회의 인간성을 풍자하는 장편시를 지었는데, 그 말미는 다음과 같다.

정자는 있어도 돌아가지 않으니
인간으로서 정말 원수가 목욕시킨 것이다.

주인인 한명회에 대한 평가는 이렇듯 양면이 있었으나 한강 명승지에 자리잡은 압구정에는 계속 명사들과 풍류 시인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고, 많은 명사들이 남겨 전해지게 되었다. 이 시를 통해 옛날의 풍경을 느껴볼 수 있는 것이 다행이다.

송당집(松塘集)에 이르기를,

강 위에 좋은 자리 골라 화려한 집 지으니
백척이나 높은 누대에 구름과 물이 한가롭다
갈매기야 사람의 마음을 어이 알 수 있으리
푸른 난간 저 밖으로 날아서 오간다

라고 하였는가 하면 석북집(石北集)에는

물노라 강 위의 갈매기야
한상국(韓相國)을 본 일이 있느냐
갈매기야 주인은 알아 무얼 하나
다만 봄 물이 좋아 떠 있다네

라 읊었다. 상전벽해라고 하였거늘 압구정의 풍경도 불변일 수 없었다. 순조 때(1801~1834)의 문인 몽촌 박봉의(夢泉 朴鳳義)와 어당 이상수(李象秀)의 압구정시 대목대목에서 세월이 흐르면서 호화롭고 한가롭던 압구정도 차츰 변모해 갔음을 알 수 있다.

여덟 신선 술을 들며 강을 마주 앉아 노는데
요란한 매미 소리 가을을 알린다

승상이 한가한 곳 차지하여 새 별장 마련한 것이
중국에도 좋은 경치 알려진 옛날의 명루(名樓)라네
비단발 높이 걸으니 삼산(三山)이 저기인래
순풍에 돛단배는 두물머리로 지나간다

석양녘 연기가 방초 언덕에 깔리니
여기서 옛 시인들 한가로운 수심을 달랬다.

-대동시선(大東詩選) 몽천시(夢泉詩)

황량한 언덕에 말을 매고 혼자서 서성거리는데
부원군의 이름난 정자가 풀 속에 들어 있다

강물의 기세는 동쪽 산기슭을 훑어 오고
산악의 형태는 한양을 다 둘러쌌다

강갈매기는 지금도 훨훨 날아드는데
두전새 울음소리 옛부터 사람의 애를 끊는다네

날 저무니 연기와 물결 끝간 데 없는 것이
육신사당(六臣祠堂) 아래는 더욱 아득하구나

-대동시선(大東詩選) 오당시

압구정은 저자도와 함께 철종의 딸인 영혜공주와 결혼하여 금릉위가 된 박영효(朴泳孝)에게 하사되었으나, 갑신정변에 역적으로 몰려 한 때 몰수되었다가 고종 말년에 다시 그에게 돌려진다.

정자가 없어진 연유와 시기는 알 길이 없고 압구정 서쪽에는 수은 홍석보의 숙몽정이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터 마저 찾아 볼 길이 없다. 홍석보는 경종 원년에 동부승지로서 당시 노론 사대신과 세자 책봉을 주청했던 인물이다. **문**



◁겸재 정선이 그린 압구정도

한강이 낳은 용산의 ‘부군당’

용산에는 어느 지역보다 부군당이 많이 있다. 원래 부군당은 고려 때부터 각 관아마다 따로 당(堂)을 짓고 신(神)을 모시던 곳이다. 부군(府君)이라는 말은 망부(亡夫) 또는 바깥 조상의 존칭이며 각 관아에서 제사하던 신령을 일컫는다.

조선시대에는 마을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여기서 동제를 지냈다. 당집에서 행해지는 동제는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참여함으로써 유대와 결속을 다지는 실마리가 되는 것은 물론 협동과 생산의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역에는 당집이 있다. 그러나 유독 한강 연안에 있는 당집들은 부군당이라 하여 다르게 불려지고 있다. 용산을 비롯하여 전농동·마포·서강 등에 현존하고 있는 당집은 모두 부군당인 것이다.

이들 부군당이 생겨나기 시작한 시기는 대부분 경강 상업이 번성하는 조선후기인 17세기 후반 이후부터이다. 이는 한강변에 마을이 생겨난 시기가 17세기 후반이라는 점과도 맥을 같이 한다.

주지하듯이 한강은 뱃길로 연결되는 전국적 수로의 중심지였다. 이에 따라 경강을 중심으로 상업 활동을 영위했던 상업세력, 즉 경강 상인들이 성장하였다. 이들은 시전상인과 달리 특권에 의하지 않고 자유롭게 상업활동을 하는 사상층으로서 여러 가지 영업을 영위하면서 영향력을 키워갔다. 그들의 상업활동은 선상활동·선운업·장빙업·하역

운수업·여객주인업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였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도성 안의 상권을 장악하였던 시전상인에 대항하여 자신들 중심의 새로운 유통 체계를 확립하기에 이르렀다. 이들 경강상인들은 대부분 당시의 권세가문과 연결을 가져 시전상인과는 또 다른 특권을 행사하면서 상업적 부를 축적하였다.

이처럼 한강 주변에 상업적 부가 쌓이자 이곳을 중심으로 많은 당(堂)집, 즉 부군당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전농동의 부군당이 ‘부강당(富降堂)’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이를 부군당들은 모두 상업적 번성을 기원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부강당이라는 이름은 글자 그대로 부를 내려달라는 소망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와 같이 부강당이라 칭해진 곳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부군당이라 칭하고 있다.

서울시내에서 동제를 시행하는 부군당의 전반적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의 동제당은 부군당이라고 칭해지는 것이 많다. 전국의 당 명칭은 서낭당(강원도), 산신당(경기·충청), 당산(영·호남), 본향당(제주도) 등이 주된 명칭들이다. 서울시에도 산신당·산제당 등이 많이 있지만 타지방에서는 듣기 어려운 부군당이란 이름이 10건이나 된다. ‘부군’은 본래 한대(漢代)의 태수(太守)의 칭호라 하지만 부군당이란 옛날 관청 내에 두던 사당

지금의 부군당은 대체로 마을과 함께 존재하고 있어 찾기가 그다지 쉽지 않다. 옛날에는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높은 곳에 가장 우뚝 솟아 있던 부군당. 그래서 배를 타고 가던 선원들이 그 앞을 지나면서 가슴 깊이 안전과 부를 기원했던 부군당. 그러나 산동네가 들어서고 주변의 건물들이 점차 높아가는 고층 건물들 속에서 이제 작은 집이 되어 가고 있다. 또 기성세대의 생활에서 동제당은 제화의 책벌자로, 길복(吉福)의 시혜자로 인식되어 왔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타의에 의해서, 또는 자의에 의해서 점차 도태되어 소멸되어 가고 있다.

의 이름인 듯하다. 『문헌비고』에는 “본조 풍속에, 도하 관부들에는 으레 수호신을 모신 한 작은 숲을 두고 그 사당에 지전을 걸고 부군이라 일컫는다(本朝國俗 都下官府 例置一小守叢 祠掛紙錢 號曰府君)”라고 했다.

용인에 있는 민속촌에 가보면 관청 건물이 있고 그 관내의 구석진 곳에는 부군당(府根堂)이라 하여 뿌리 근(根)자를 쓴 신당이 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단군으로 보이는 듯한 할아버지가 양옆으로 어린 무동(巫童)을 거느리고 있는 그림이 걸려 있다. 여기에서는 왜 군자대신 근자를 썼는지 궁금하다.

둘째, 서울에 있는 부군당의 건물들은 비교적 큰 편이다. 지방의 당들 중에는 건평이 1.2평 정도가 많고 그것마저 없이 신목(神木)만이 있는 경우가 태반이다. 서울 시내 부군당도 그런 사례가 없지는 않으나 신단과 제청을 구비해서 10평 또는 20평씩 되는 것들이 적지 않았다. 용산에 있는 부군당들도 그 규모는 매우 큰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서빙고동 부군당

셋째, 신격에 있어서 역사상 위인들의 신격화가 많았다. 조선왕조의 태조 이성계를 비롯하여 최영 장군, 고려 태조 왕건, 중국의 무후관우가 1건씩이고, 국가의 시조인 단군, 신라를 통일한 김유신 장군, 이시애의 난을 진압하고 또 여진족을 무찌른 남이 장군이 각 2건씩 있다. 지방의 당신(堂神)들에는 7, 8할을 여신이 차지하는데 비해 서울 동제당에는 여신의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남자 신들이 많고 또 역사적 실존 인물들이 많다. 용산의 신들도 마찬가지이다. 마을 사람들은 부군들의 영험이 뚜렷하여 동네 사람들의 건강과 안녕이 모두 다 이 부군들이 주시는 은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넷째, 제사비용이 지방에 비해서 많다. 비용은 전국적으로 볼 때 집집마다 각출하여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서울은 각 동마다 호수가 많아 액수도 시골보다 많다. 용산 부군당의 경우도 경로당의 노인들이 주동이 되어 동네 토박이 가정에서 추렴하고 많은 돈이 건넌 해에는 유교식 제의를 끝낸 뒤 제사음식을 각 가정에 분배하는 반기 돌리는 것으로 끝낸다. 추렴을 하기위해 가정을 돌 때 예수교 신자들에게는 돌리지 않는다고 한다.

다섯째, 제사를 지내는 날짜가 10월에 많이 있다. 이에 비해 정초는 오히려 적다. 지방에서 제일 많은 것이 정월 보름, 다음이 정초, 다음이 10월, 그 밖에 매월마다 행해지는 것과 비교되는 점이라 하겠다. 용산의 부군당들은 대부분 정월, 4월, 10월을 중심으로 일년에 한 번 또는 두 번 지내고 있었다.

여섯째, 경로당(敬老堂)과 여기에 모이는 노인들

이 주도 세력이다. 물론 지방 동제도 노인층이 뒷전에서 있기는 하지만 청장년 층들의 활기가 넘치고 농약대들이 앞장선다. 그러나 서울에서는 경로당의 노인들이 비용을 각출하는 것에서부터 제관, 놀이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담했다. 용산에 있는 부군당들도 대부분 경로당이나 노인회의 어른들을 중심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다.

지금의 부군당은 대체로 마을과 함께 존재하고 있어 찾기가 그다지 쉽지 않다. 옛날에는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높은 곳에 가장 우뚝 솟아 있던 부군당. 그래서 배를 타고 가던 선원들이 그 앞을 지나면서 가슴 깊이 안전과 부를 기원했던 부군당. 그러나 산동네가 들어서고 주변의 건물들이 점차 높아 가는 고층 건물들 속에서 이제 작은 집이 되어 가고 있다. 또 기성세대의 생활에서 동제당은 제화의 책별자로, 길복(吉福)의 시혜자로 인식되어 왔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타의에 의해서, 또는 자의에 의해서 점차 도태되어 소멸되어 가고 있다. 그런 중에서도 서울에서는 소수 마을의 토착인들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존속시켜 나오고 있는 마을들이 있다. 용산이 대표적인 마을이라 하겠다.

용문동 부군당

원효대교를 건너 한국통신조달본부의 뒷쪽 용문동 106번지 언덕에는 남이장군 사당이 있다. 이곳은 조선시대 군자감이 설치되어 있던 곳이기도 하다. 이 마을은 원효로 2가 한강변에 위치하여 마을 가운데에 용문시장이 있어 옛부터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고 비교적 토박이들이 많이 살고 있다.

구전에 의하면 이곳에 남이장군 사당을 세우게 된 연유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26세에 처형되었으나 순조8년에 충무공 시호가 내림과 아울러 귀봉서원에 배정하자 그를 길이 추모하기 위해 모셨다고 한다. 이 당은 원래 용산구청 뒤편에 있었으나 1904년 철도부지 설정문제로 주변이 소란해지자

유지들이 합의하여 사당을 현위치로 옮기고 영정을 봉안해 왔다고 한다.

당의 구조는 대지 89평에 건평 10평 크기의 3칸 한옥 기와집이며 단 입구에는 관리인의 숙소가 있고 좌측에는 안내판이 있다. 입구 전면에 사당이 위치해 있다. 현재 남이장군 사당은 남이장군 대제사업회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음력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에 제사를 지내고 3년에 한번씩 4월 1일에 대규모의 제사를 올린다.

주민들은 남이장군신이 신통력을 지니고 있어 자신들과 마을을 보호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동제는 서울의 대표적인 축제의 하나이다.

산천동 부군당

용산구 산천동 122의 10번지에 있다. 대지 약20평에 건평 4~5평 정도의 두칸짜리 한식 기와집이 한강을 향해 있다.

이 당은 남이장군의 첫째부인을 모시고 있다. 이 부인은 세조 때 훈신 권람의 딸로서 악귀가 죽이려 한 것을 남이장군이 귀신을 몰아내 살린 것이 인연이 되어 부인이 되었다고 한다.

당 정면에 부군님 내외분이 있고 우측벽에는 세분의 제석신이 봉안되어 있다. 부군내외상은 좌상으로 부군상은 관복을 입고 홀을 잡고 있다. 제석세분은 모두 연꽃위에 앉아 있으며 왼쪽 제석과 뒤의 제석은 왼쪽을 반쯤 오무려서 내영인상(來迎印相)의 모습이다. 남이장군의 부인을 모신곳이지만 남이장군사당이라 하지 않는다. 이곳에서 남이장군 대제 때 제사를 시작하기 전에 '꽃받이'라 하여 꽃을 가져간다.

보광동 부군당

남영동에서 23번 버스를 타고 종점에 내려서 언덕을 올라다 보면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우뚝 솟은

산기슭에 단아하면서도 정감어린 당이 하나 자리잡고 있다. 이곳은 보광동 419번지로 김유신 장군을 모신 부군당이다. 보광동에는 웃당과 아랫당의 두 개의 부군당이 있는데 김유신 부군당이 웃당에 해당한다. 이 당은 김유신 장군을 주신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남자들은 김유신 장군 사당이라 부르고 부인들은 당 또는 부군당이라 부른다. 김유신 장군 사당은 본래 명화전(明化殿)이라고 한다. 솟을 대문에 걸려 있는 현판도 명화문이라 쓰여 있다.

당은 대지 1백82평에 3평내외의 제당과 5~6평 크기의 제실이 있으며 당입구에는 명화전이란 현판이 있고 대문옆에는 '김유신장군 명화전연혁비'가 있다. 신상은 김유신 장군을 주신으로 하고 그 외 산신·삼불 제석 등 모두 15점의 신상이 모셔져 있다.

보광동에는 윗당인 김유신장군 사당에 짝하여 아랫당에 해당하는 부군당이 하나 더 있다. 이 당은 무후묘(武侯廟)라고도 한다. 이 무후묘에는 중국 삼국시대 무신인 관우를 모시고 있다. 보광동 419번지에 있다. 무후묘의 규모는 대지 150평에 3칸짜리 목조 기와집으로 단청이 되어 있다. 음력 3월 1일과 10월 1일, 동네 노인들이 제를 올린다.

서빙고동 부군당

용산구 서빙고동 200의 2번지에 위치해 있다. 이곳은 현재 서울특별시 지방민속자료 제2호로 지정된 문화재로 서울의 부군당 가운데서도 오래된 대표적인 부군당이다.

제당은 약 80여평의 대지 위에 3평내외의 맞배지붕으로된 한옥이다. 제당내에는 3점의 신상이 있다. 정면에는 당의 주신인 태조 이성계와 부인 강씨의 신상이 그리고 왼쪽 벽에는 삼불제석이 모셔져 있으며 청색과 적색, 황색으로 되어 있는 휘장으로 보관되어 있다.

제당 왼쪽에 하주청이라고 부르는 약 150평 정도의 제물청이 있는데 부엌·마루·온돌방·창고

이다. 이 건물도 맞배 기와집이다. 주위는 돌담으로 둘러 있고 대문도 기와를 얹은 솟을대문의 형태로 문 가운데에는 태극모양이 그려져 있다.

이태원 부군당


이태원1동 산동네 괴목으로 둘러쌓인 신림(神林) 속에 당집이 있다. 밖에서 보면 여느 살림집 대문과 비슷하다. 그 문을 열고 들어서면 넓은 숲공간에 큰 당나무가 서 있고 그 아래에는 담으로 둘러쌓여 안이 잘 보이지 않으나 규모가 꽤 큰 당집이 있다. 행정상으로 용산구 이태원동 189번지다. 이곳은 용산에서도 규모가 큰 유명한 부군당이다.

건물은 4평 정도이고 관리가 잘 되어 있다. 주민들은 부군당이라 부르지만 당내에 '부군묘(府君廟)'라고 쓴 비석이 서 있다. 당집은 경로당이 주체가 되어 관리하고 일년에 두 번(4월 1일·10월 1일) 마을제사를 지낸다.

동빙고동 부군당

동빙고동 62번지에 있다. 당의 구조는 대지 약30평에 당집은 4칸짜리 맞배지붕이다. 왼쪽에 윗당으로 불리는 별실이 있고 오른쪽에는 부엌과 방이 있다. 뒷편에는 터주단이 있으며 약 200미터 떨어진 곳에 신목인 은행나무가 있다.

한남동 제1, 2 부군당

한남동에는 2개의 부군당이 있다. 제1부군당은 한남동 385의 5번지에 자리잡고 있다. 이곳에 부군당이 두 채 있는데 본채는 큰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모시고 작은 별채에는 작은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모시고 있다. 원래는 현위치 보다 아래에 있었는데 한강을 개발하면서 지금의 장소로 옮겼다고 한다. 

(자료제공 : 강남문화원·용산문화원)



2001, 지역문화의 해 뉴스파일



'2001, 지역문화의 해'는 6월 26일~28일 전남 영암·담양·순천을 탐방해 현지 문화에 술관계자들과 토론을 벌였다. 담양의 소쇄원 입구에 하늘을 찌를 듯 서있는 대나무(왼쪽사진)가 지역문화의 용기와 미래를 말해주는 듯하다. ① 영암의 도기문화센터. ② 담양의 가사문학관. ③ 순천의 낙안읍성.



하늘을
찌를 듯 서있는
대나무처럼...



영암·담양·순천 등지서 '전라남도 지역문화의 현안과 대안' 토론 벌여

여수세계박람회·영산강 축제 등 '광역권 남도문화'에도 관심을...

강민철 (월간 우리문화 기자 · mckang@kccf.or.kr)

함평나비축제·진도 민요장극등 성공사례 발표

"65년 13만명이던 인구가 4만5천명으로 줄어든 있습니다. 이처럼 '버려진 땅'이나 다름없는 우리군이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으로 탄생한 게 '함평나비 축제'입니다. 이 축제는 지금 주민들에게 희망과 부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김창훈 함평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 겸 함평문화원 사무국장)

'2001, 지역문화의 해' 추진위원회(위원장 이중환)가 지난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2박3일동안 전남 영암·담양·순천 등에서 개최한 '지역문화의 현안과 대안' 토론회에선 열악한 지역문화의 성공 사례와 함께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영암문화원에서 열린 첫날 행사는 영암·목포·영광·함평·무안·신안·진도·강진등 서부권 문

화예술 관계자들이 나와 주제발표를 했다. 최성환 목포문화원 향토사 연구원은 일제시대 유물이 많이 남아있는 지역의 특성을 살려 저팬투어와 같은 프로그램들을 구상중이라고 소개했다. 지난 5월 백령도 행사때 주제발표를 하기도 했던 진도출신 소설가 박의진씨는 "주민들 스스로 민요 창극 '진도에 또 하나 고려가 있었네'를 만들어 중앙에서 공연하는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특히 힘들었던 함평나비 축제 추진 과정을 설명하다 눈물을 흘리기도한 김창훈 함평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은 "전남지역의 대부분 시·군이 영산강을 뿌리로 하고 있다"며 "이들 지역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영산강축제를 열어보는게 어떻냐?"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또 이날 초청 강연을 한 김종규 한국박물관협회장은 "(이 자리는) 무엇보다 지역문화를 토론할 수 있는 마당이라는데 의미가 있다"고 전제한 후 "문화시설 가운데 가장 뿌리 깊은 역사를 지닌 문화원이 지금까지 큰 몫을 해왔고 또 앞으로도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둘째날 오전에는 담양의 가사문학관으로 이동해 박준규 명예관장으로 부터 '무등산권의 누정과 가사문학'이란 주제 아래 비디오 상영과 함께 특별강연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박 명예관장은 "무등산 주변의 누정은 주로 원효계곡이 흐르는 광주호를 중심으로 무등산 서북쪽의 담양과 인접한 산 언덕에 집중돼 있다"며 "식영정·환벽당·소쇄원이 일



△이중환 '2001, 지역문화의 해' 추진위원장을 비롯한 문화예술계인사와 지자체 관계자들이 전남지역문화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동삼승(一洞三勝)으로 유명한데서도 알 수 있듯이 이 곳은 16~17세기에 조선조의 명류(名流)시인들이 끊임없이 출입해 훌륭한 시작(詩作)을 이룸으로써 한국문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자랑했다. 이어 오후부터는 담양·화순·곡성·장성·나주·장흥·해남 등 중부권 문화예술 관계자들의 주제발표가 계속됐다.

한편 김석중 장흥별곡문학회장장은 "올해 지역문화의 해 행사를 중앙에서 관장하는 것 자체가 문화 중앙집중"이라며 "이처럼 중앙에서 내려와 몇명 모여놓고 하는 '소박한' 행사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중환 추진위원장은 "올해를 지역문화의 해로 정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를 올해안에 해결하지는 것은 아니다"며 "올해만큼은 다른 것 보다 특별히 지역문화에 관해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자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추진위는 이같은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토론 마당을 마련하는 일을 하고 있다"며 "추진위는 회사로 말하면 총무부격"이라고 답변했다.

마지막 날에는 순천문화회관에서 순천·여수·광양·구례·고흥·보성·완도등 동남부권 문화예술 관계자들이 나와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이상철 2010여수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기획실장은 "남해안의 관광권을 하나로 묶어 광역화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완도 출신 이경구 장보고연구회 이사도 "여수세계박람회와 같은 광역단위행사에 범도민적 관심과 협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청강사로 나온 차범석 대한민국예술원 회장은 "문화행사에 대한 사후평가가 없다"고 따끔하게 꼬집은 다음 "문예진흥기금은 '입막음' 식 소액다원주의보다 철저한 사후평가를 거쳐 잘 하는 쪽으로 집중 지원하는게 더 낫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차회장은 △문예회관 대관료 인하와 △신인양성 △관의 간접 배제등의 부분에 이르러서는 한층 더 목소리의



△ 무더위가 더해가는 날, 담양의 식영정 옆 소나무(왼쪽)와 영암의 평야가 싱그럽다.

톤을 높였다. 이번 행사를 위해 추진위에서는 이중환 추진위원장, 이종인 상임추진위원, 강신표·이혜경 추진위원이, 주무부서인 문화관광부 전통지역문화과에서는 최천식 과장과 안선국 사무관이, 그리고 추진위 사무국에서는 홍성일 팀장과 '2001, 지역문화의 해' 사이트영상담당업체인 채널인의 홍중혁씨 등이 참석했다. 또 현지에서는 조보훈 전라남도 정부부지사와 김철호 영암군수·유창중 담양군수·기갑서 순천부시장등을 비롯한 지자체 시·군 관계자들이 나와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한편 추진위 일행은 영암의 도기문화센터와 담양의 가사문학관·소쇄원·식영정·면양정·송강정, 순천의 낙안읍성 민속마을등 지역문화의 현장을 답사하며 남도문화에 흠뻑 젖어들었다. 다음은 주제발표 내용.

▲김희규 영암문화원장=정부에선 축제를 민(民)주도로 하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민(民)주도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이 산재하고 있다. 자금 동원도 그렇거니와 장부 부기도 잘못하면 징역을 살아야한다. 지역민들은 공무원처럼 서류 만드는 선수가 아니지 않는가?

▲최성환 목포문화원 향토사 연구원(목포문화원 총무과장)=일본 관련 문화재가 수도룩하다. 목포 일대의 유적지를 하나의 답사코스로 묶어 '역사의 길'로 개발하자는 논의와 함께 일본인 관광객을 겨냥한 저펜 타운을 건설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경



첫날인 26일 이종인 상임추진위원의 사회로 김희규 영암문화원장이 주제발표(맨위)한 데 이어 27·28일에는 담양과 순천에서 각각 강신표 추진위원과 이해경 추진위원의 사회로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나와 주제 발표를 했다. 위로 부터 영암·담양·순천행사

북 안동에선 불가능하지만 전남 목포에선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다.

▲김영수 영산월불교대학교 교수(영광) = 영산성지는 원불교의 제1성지다. 문화가 부가가치를 가지려면 보존·개발·재창조되어야 한다. 종교 성지를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재창조할 필요가 있다.

▲김창훈 함평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함평문화원 사무국장) = 65년 인구 13만명이던 함평은 지금 4만5천명의 조그만 군으로 축소됐다. '버려진 땅'이나 다름없는 우리군이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으로

탄생한게 '함평나비축제'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무엇인가 심각하게 고민했다. 물과 공기 등 천혜의 자연자원이다. 여기에 인심을 하나 더 보탤다. 이 축제는 주민들에게 희망과 부(富)를 안겨주었다. 그리고 지자체들이 개별적으로 축제를 여는데서 한발 나아가 권역별로 축제를 열었으면 한다. 우리 전남을 보면 담양(죽세품축제)·나주(배꽃축제)·장성(홍길동축제)·영암(왕인문화축제)·함평(나비축제)·무안(연꽃축제)·목포(유달산철쭉제) 등이 모두 영산강을 뿌리로 한다. 이들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영산강 축제를 제안하고 싶다.

▲서오근 무안문화원장 = 날이 갈수록 민속놀이가 쇠퇴하고 있다. 각급 학교에서 한달에 한번씩 민속의 날을 정해 한복(또는 개량한복)을 입고 연날리기·팽이치기·웃놀이·줄다리기등을 집단적으로 행하도록 하는 방안이 절실하다.

▲김진오 신안군청 문화체육담당 = 양질의 신안 갯벌을 원료로 한 머드팩·삼푸·비누·바디클린저·엠텐스등 머드화장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마케팅 전략에 한계가 있다. 생산및 판매의 민간 위탁을 통한 전문 경영체제와 다양한 마케팅 전략·지속적인 품질향상·디자인의 고급화가 요구되고 있다.

▲곽의진 소설가(진도) = 지역민들끼리 민요창극 '진도에 또하나 고려가 있었네'를 만들어 중앙에서 공연했다. (관련기사 본지 7월호 47페이지)

▲김경진 참진요 대표(강진) = 전통도자기가 부담스러운 크기와 가격으로 되어 있어 구매욕구가 떨어지는 게 현실이다. 전통 도자기의 기술력에다 현대적인 기계 제작 방식을 가미하고 고유의 문양과 현대적 감각을 살려야 한다. 도자기는 전통적인 멋스러움과 함께 쓰임새가 있어야 한다.

▲이해섭 담양향토문화연구회장 = 임란때 구국정신을 불사르다 희생한 고경명의 의병답을 비롯 한말 고광순 의병장의 사당과 김태원 의병장의 전비등을 건립해야 한다.

▲문제선 향토사 연구가(화순) = 백아산·옹성산·

오지호 기념관·동북천변 자연림·사평폭포등을 둘러보는 제1권역(동북부)코스와 운주사의 천불천탑과 고인돌군·유적지 죽수서원·송석정·영벽정등을 탐방하는 제2권역(서남부)코스등 문화와 역사를 체험하며 체력을 단련하고 하루를 즐길 수 있는 권역별 코스를 개발해야 한다.

▲**김학근 곡성군향토사연구협의회회장**=전라좌도 농악의 계승을 위해 오곡초등학교에서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시·군단위이상 기초자치단체에 민속놀이 지도자·학예연구사등이 상주해야 한다. 정부가 민속놀이기구 제작을 위해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민속놀이의 디지털 자료화도 힘써야한다.

▲**정인근 장성군청 문화관광과 담당**=전설속의 홍길동을 문화상품으로 개발했다. 홍길동 캐릭터 사업을 비롯 홍길동 축제·학술연구등이 착실히 실행되고 있어 세계적인 문화관광상품으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박준영 금성산되찾기 시민연합회장(나주문화원장)**=유사한 축제가 많은 현실을 타파할 수 있는 방안중의 하나는 전통민속놀이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김석중 장흥별곡문학회장**= '2001, 지역문화의 해'를 중앙에서 관장하는 것 자체가 문화 중앙집중이다. 이처럼 중앙에서 내려와 몇명 모여놓고 하는 '소박한' 행사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황도훈 해남문화원장**=순수민간인 단체인 '문화를 사랑하는 모임'이 해남지역 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범군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보호망을 구축하기 위해 나섰지만 역사문화에 대해 무감각 상태인 대중의 호응을 이끌어내는데 어느 만큼 유효할 지에 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진인호 향토사학자(순천)**=우리가 보유한 자연과 그 자연에 융합되어 꽃피운 문화재를 관광자원화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상철 2010여수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기획실장**=남해안의 관광권을 하나로 묶어 광역화해야 한



△ 순천 낙안읍성 입구에 서있는 감나무(위)와 동헌.

다. 우리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은 볼거리를 찾아오는 것이지 시·군 즉 개별자치단체를 보러오는 것이 아니다.

▲**정현섭 광양문화원장**=종합적인 문화발전 메커니즘을 통한 박물관·종합문화회관·문화원의 기능 극대화가 요구된다.

▲**박하운 구례문화원장**=중요무형문화재 제83-가호인 구례향제줄풍류와 구례판소리·구례소리시조등의 계승발전에 힘쓰고 있다. 구례판소리는 동편제의 창시자인 송홍록을 시작으로 송광록·송우룡·송만갑·송기덕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이처럼 5대에 걸쳐 명창이 배출된 일은 전무후무한 일이다.

▲**송학중 향토사학자(고흥)**=70년대까지만해도 발두령에 하얗게 덮여있던 도자기 파편들이 일본인들에 의해 국외로 유출되어 지금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제라도 도자기 자료박물관을 건립해 도예학도들의 교육장으로 활용해야 한다.

▲**김용환 보성문화원장**=판소리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또 보성의 열선루



는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가를 읊은 곳으로 명랑대
첩을 준비한 민족구원의 성지다. 열선루 복원이
요구된다.

▲이경구 장보고연구회 이사(완도)=여수세계박람
회는 남도문화발전의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

하반기는 2010년 세계박람회를 한국에 유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름하는 중요한 시기다. 지역단
위를 넘어 광역단위 행사에 대한 범도민적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

제주도 지역문화의 현안과 대안

‘문화프로그램운영조직자’ 직종부터 만들자

“성산일출문화의 집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전문 인력의 부재입니다. 시설규모에
비해 직원은 지방사서 서기 1명과 지방행정서기보
1명, 지방기능직 1명, 청원경찰 1명이 고작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부재
는 지역문화의 생산주체 공간으로 역할하기 위해
반드시 개선되어야할 과제입니다” (강승수 남제주
군청 관광공보과장)

지난 7월 19~20일 제주도 문예회관에서 열린
‘지역문화 현장 탐방및 대화’에서는 축제나 문화 행
사·연구조사를 위한 전문인력의 필요성에 대한 주
장들이 대두됐다.

경기문화재단에 이어 두번째로 문을 연 제주문화
예술재단의 김일우 학예연구사는 ‘제주문화예술재
단의 출범과 그 역할’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의
팀장급 5명과 함께 연구원급 인원 확충이 전제돼야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박정석 서귀포문화원 부원장은 “제주도 전체
가 문화유산의 보고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를 맡을 문화재관리요원이 도단위에 3명, 시·군에
각 1명뿐이어서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공무
원의 구조조정으로 충원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단언
할 게 아니라 문화재 관련 전문가의 배치및 확대를
정책적 차원에서 모색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고태민 북제주군청 문화공보실장은 ‘정월대보름
축제의 추진성과와 활성화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
를 하면서 “축제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및 교육이 필
수적이며 축제 관계자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중한 ‘2001, 지역문화의 해’ 추진위
원장은 “노동부 직업사전에 문화전문인력을 나타내
는 직종이 없는 실정”이라며 이같은 상황에서 전문
인력을 확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
다. 따라서 그는 무엇보다 “문화행정이 또는 문화축
매자등으로 달리 불리는 가칭 문화프로그램 운영조
직자라는 직종을 만드는데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도문예회관에서 열린 ‘2001, 지역문화의 해’ 행사 모습

8월말까지 영화·게임 제작 위한 기초 시나리오 공모

최우수상에 3백만원 상금... '지역문화 선도 웹사이트 추천하기' 이벤트도

‘2001, 지역문화의 해’ 사무국

‘2001, 지역문화의 해’ 추진위원회에서는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지역문화의 해’ 홈페이지(www.region2001.org)에서 사이버 이벤트를 개최한다. 이번 이벤트는 가상공간 속에서 이상적인 지역문화도시 구축을 위한 기초 시나리오 공모인 ‘문화도시 꿈꾸기’와 네티즌들의 활발한 참여를 바탕으로 한 ‘지역문화 선도 웹사이트 추천하기’ 등의 행사로 구성되어 있다.

‘문화도시 꿈꾸기’는 가상현실 시나리오 공모로서 문화도시 건설 분야, 지역문화공간의 구상과 프로그램운영 분야, 지역문화예술 창작활성화 분야, 축제기획 분야, 지역문화 네트워크 분야 등 5가지 주제에 관해 아이디어를 응모하는 것으로, 이 시나리오는 영화나 게임 제작 등을 염두에 둔 기초 시나리오의 성격이다.

응모 자격과 대상지역은 제한이 없고, 기획 아이디어가 담긴 초기 시나리오와 장면배치(또는 줄거리) 정도를 A4용지(11pt) 5장 정도의 분량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시에는 응모자 성명, 주소, 연락처, 응모 분야 등을 신청양식에 맞게 기입하고, 시나리오 출력본과 디스켓 등을 동봉하면 된다. 제출 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2001, 지역문화의 해’ 추진위원회 사무국으로 이메일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신청양식은 ‘2001, 지역문화의 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이번 공모의 선정 기준은 ① 멀티미디어를 구현

하여 구체적인 밑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 아이디어, ② 등장인물이나 상황설정이 지역문화의 현안과제를 담은 내용, ③ 희망사항과 방해요소가 모두 고려되어 게임과 같은 극적 긴장이 있는 구성이면 좋겠고, 보다 자세한 안내는 신청안내 및 양식 화일을 다운로드하면 볼 수 있도록 꾸며 놓았다.

발표는 9월 30일에 할 예정이며, 최우수작 1편에 문화관광부장관상 및 상금 300만 원, 분야별 우수작 5편에는 상금 각 100만 원, 입선작 10편에는 상금 각 30만 원이 수여될 예정이다.

이 행사는 지역문화의 해를 맞아 지역문화 관련 홈페이지를 발굴하고 인터넷상에서 이들 홈페이지 제작 및 홍보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현재 인터넷에서 운영 중인 웹사이트들 중에서 지역문화와 관련된 주제로 운영 중인 우수 웹사이트들을 ‘지역문화의 해’ 홈페이지(www.region2001.org)에 추천하면 된다.

공모 대상은 현재 운영 중이며 주기적인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는 국내 지역문화 관련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하며, 추천인은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추천 방법은 ‘지역문화의 해’ 홈페이지의 ‘웹사이트 추천’ 게시판에 추천 웹사이트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사이트 주소, 추천자 실명과 연락 가능한 e-mail 주소를 기입한 게시물을 작성하면 된다.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웹사이트 추천도 가능하나 시상은



1인 1건으로 한정하며,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통해 우수 웹사이트 10개와 해당 추천인 10인을 선정, 9월 10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 기준은 ① 선정 당시 운영 중이며,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지역문화 또는 그와 관련된 내용이 핵심 주제인지 여부, ② 상업적인 이익추구가 중심인 사이트는 가급적 배제, ③ 단순 정보전달이 아닌 심층적인 내용 구성으로

지역문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나 실제 활동가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여부, ④ 고정 방문자들의 확보 정도이며, 시상은 우수 웹사이트 추천자 10명에게는 문화상품권 1만원권 각 10장씩을 제공하며, 우수 웹사이트로 뽑힌 10개의 사이트는 '2001, 지역문화의 해' 추진위원회 지정 우수 지역문화 사이트로 공식 홍보할 예정이다. ('2001, 지역문화의 해' 추진위원회 홈페이지에 링크 예정)

지역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지역내·지역간 교류) 사업 하반기 선정 목록

지역	사업명	단체명
서울 서초	대전·평택 순회공연	서울팝스오케스트라
서울 중구	서울중심 문화권과 문화소외지역간의 문화적 교류활동	정동극장 전속예술단
서울 종로	해변음악회	문화뱅크
부산 진구	청소년을 위한 우리문화보급 순회공연	남산놀이마당
부산 진구	문화소외지역 순회공연	남산놀이마당
부산 중구	백산문화하마당	백산예술단
대전 중구	대전시민을 위한 국악종합예술제	대전국악예술단
대전 동구	노인봉사, 재소자 위문공연, 청소년활성화 저변 확대	이정희 고전무용 국악학원
대전 중구	2001 충청지역 청년미술제	미협 대전지회
광주 동구	2001 전통문화순회활동	민예총 광주지회
광주 동구	2001 장터 어울마당	풍물놀이패 굴림
광주 동구	영호남 민족미술교류전	민미협 광주지회
강원 춘천	강원벽지 어린이를 위한 인형극 순회공연	춘천인형극단
경기 고양	[춤추는 허수아비] 순회공연	극단 남비곰비
전남 목포	영호남 마당극교류공연	극단 갯돌
경북 김천	국제문화교류(미술분야)	예총 김천지부
경북 김천	한국사진대전 순회전시	사진협회 김천지부
경북 김천	자매도시 군산문인협회 회원 교류	문인협회 김천지부
경북 구미	구미 시민을 위한 대동제 공연	한국농악보존협회 구미지회
제주 시	제주도 한바퀴 "숨겨진 제주설화를 찾아서"	설문대어린이도서관
북제주군	서예, 서각 작품전시회	조천읍연목회
서귀포시	서귀포시립관악단 순회연주회	서귀포시립관악단

이천시 호법면 매곡리 우물제사

이천문화원 제공

이천시 호법면 지역의 마을공동체 신앙으로는 우물제사(井祭祀)가 대표적이다. 우물제사는 우물의 무궁함과 마을의 태평, 비가 적당히 내려 한해 풍년이 들기를 용왕에게 비는 제사이다. 물론 식생활에서부터 농사를 짓는데 없어서는 안되는 생명수이다. 그러기에 향시 우물에 물이 가득차기를 바라고 비가 적당히 내려 풍년이 들기를 기원하는 것이다. 농업위주로 생활하는 이천지방에서도 우물제사의 사례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 내용은 강남대학교 학술조사단과 이천문화원에서 호법면 매곡리에서 행해지는 마을신앙의 하나인 우물제사와정을 조사한 내용이다.

영동고속도로에서 덕평인터체인지로 진입하여 329번 지방도로를 타고 남쪽으로 10분쯤 내려가면 매곡리 입구에 달한다. 마을 가옥들은 구릉지를 따라 위치하고 있고, 뒤쪽으로는 소학산(巢鶴山)이 자리를 잡고 있어 풍수적으로 보아 배산의 역할을 하고 있다. 마을내의 도로망은 마을 어귀에서 가지형으로 뻗어 있다.

매곡 1리는 147가구에 470명의 인구가 모여 살고 있는 곳이다. 이중 농사짓는 일을 생업으로 하고 있는 가구는 반 정도이며 나머지는 기타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 마을은 안말(돈실)과 바깥말로 나누어져 있으며 안말보다는 바깥말이 마을의 규모가 큰 편이다.

매곡1리는 해주 오씨가 제일 먼저 정착하였고, 그 다음은 고령 박씨, 의령 남씨들이 들어와 살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고령 박씨네가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12대 박난영 불천위 위패를 모신 정려문도 있다. 매곡 1리는 안말과 바깥말 두개의 자연부락으로 이루어진 마을로써, 안말은 28호 사는 작은 자연부락이다.

우물제사는 안말과 바깥말이 따로 지내고 있다. 비록 한 개의 마을이지만 오래전부터 우물제사는 각자 지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우물제사에 쓰이는 제물도 안말은 통돼지를 올리나, 바깥말은 주로 소머리를 쓰다가 근래에는 돼지머리로 바꾸었다. 안말에는 본래 5개의 우물이 있었으나 현재는 2개만 남아있으며, 바깥말은 6개의 우물 중 '제일어른우물'이라고 부르는 우물만 남아있다. 제일어른우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물 가운데 제일 먼저 만들었고, 우물제사를 제일 먼저 하기 때문이다. 모든 우물은 바가지우물이다.

우물제사는 음력 1월 3일 오전 9시경에 지낸다. 제관과 집사는 생기복덕을 보고 1일날을 선정하며, 제관과 집사로 뽑힌 사람들은 제사지내기 전까지 몸가짐을 깨끗이 한다. 그리고 2일날 저녁에 목욕을 하고 우물을 깨끗이 청소를 한다. 예전에는 돌에 붙은 흙을 긁어내고 빗자루로 깨끗이 청소를 하였으나 지금은 우물을 사용하지 않는지라 우물 주변만

깨끗이 청소를 한다. 청소가 끝나면 우물 주위에 황토흙을 뿌려 부정한 사람들의 접근을 막는다. 제사를 지낼 때는 주위에 사람들이 있어도 무방하나 여자와 임산부·환자의 남편들은 오지 못한다. 바깥말의 제관과 집사는 이상권(65세)·박병소(59세), 안말은 박시하(73세)·박성범(68세)씨가 맡았다.

술잔에는 우물의 물을 담아

우물제사는 마을의 중요한 행사이기에 예전에는 우물제사만을 위한 '치성계'를 만들어 경비를 충당하였다. 보통 겨울철에 가마니를 짜서 팔아, 그 수입을 치성계 자금으로 활용하였다. 은행이나 남에게 빌려주어 이자를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외지인이 들어오면서 비계원이 생기고, 돈을 모을 수 없어 10년 전부터 치성계가 없어졌고, 제사에 드는 경비를 각호에서 추렴하여 지냈다. 안말의 경우, 올해 1만원을 걷어 30만원 하는 돼지 한 마리를 구입하였다. 우물제사에 쓰이는 돼지는 새까만 숫돼지만을 쓴다. 이 돼지를 "까막돼지"라고 부른다. 까막돼지는 우리의 토종으로 예로부터 제사에 써왔기 때문이지 특별한 이유는 없다. 돼지의 품종이 개량되어 흰 돼지가 주종을 이루지만 검정색 돼지를 고집하여 쓴다.

돼지고기는 이장집에 보관 하였다가 제사 당일날 가져다가 제사를 지낸다. 바깥말의 경우 돼지머리를 비롯해 상, 주전자, 잔 등을 가지고 간다. 술은 쓰지 않으며 우물의 물을 주전자에 담아 술 대신 담아 잔에 올린다. 세 번 잔에 올리며, 물리는 물은 우물 주위에 버린다. 제사가 끝나면 술잔에 부은 물로 음복을 한다. 제사시간은 20분이면 족하고, 돼지머리는 안주로 삼아 마을 사람들이 나누어 먹는다.

안말의 제사 과정도 바깥말과 같다. 단지 돼지머리 대신 통돼지를 올리고, 두군데의 우물에서 제사를 지낸다. 마을 위에 있는 우물에서 제사를 지내고, 마을 입구에 있는 우물에 와서 다시 제사를 지낸다. 안말에는 본래 다섯 개의 우물이 있었고, 마

을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제사를 지냈으나, 우물이 복개되어 현재는 두 우물에서만 지낸다. 우물의 명칭은 위치에 따라 웃우물, 가운데우물, 아래우물 등으로 불렀다. 다섯 우물을 제사지낼 때는 제물 운반하고 제사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제사 및 음복하는데 하루가 필요했다고 한다.

안말의 통돼지는 인천 도살장에서 직접 공수해오며, '고사'라는 낙관이 찍혀 있다. 우물제사에 쓰이는 돼지는 다른 마을에서 잡아서 가져오는 것이 전통적이다. 깨끗함을 중요시하는 우물제사에서 피를 보는 것이 불길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90kg되는 통돼지는 무겁고, 길이 미끄러운지라 불도저로 운반하였다. 제사를 지내는 한쪽에는 수수강으로 삼각형 지뢰대를 만들고 그 위에는 주저리를 씌웠다. 마을 사람들은 부정타지 말라는 의미로 설명을 하나, 부밭을 여러 지역의 우물제사의 사례를 견주어 보면, 본래는 우물 위를 덮었던 것을 약식으로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우물 위에 삼각형 다리를 만들고 그 위에 주저리를 씌워 우물을 완전히 덮어 부정한 것이 들어가지 않은 깨끗한 상태에서 제사를 지내기 위함이다. 또한 마을 사람들이 물을 퍼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마을 사람들은 삼밭이에 주저리를 튼 것에 대해 '터주 같은 것'으로 설명을 한다. 삼밭이는 부정이 없는 사람이 만들며, 제사가 끝나면 태워버리거나 그냥 놓아두어 자연적으로 소실되도록 한다.

제사가 끝난 통돼지는 '분빠이'

제사가 끝나면 통돼지는 신속하게 이장집으로 옮겨져 나누는 작업을 한다. 마을의 가구 수는 26 가구로써, 젊은 남자들은 통돼지를 잘라 해당 수만큼 고기를 나누는 작업을 한다. 이것을 '분빠이'라고 일본식으로 말한다. 마을 청년들은 종이에다 나눠 줄 가구의 이름을 적고 빠진 가구가 없는지 검토하였다. 통돼지는 크게 네 부위로 잘랐으며, 그

무게는 10kg·16kg·15kg·17kg로 총 58kg이었다. 26가구로 나누면 2.2kg정도의 양이 분배가 된다. 그러나 오차가 많이 나므로 2kg 안쪽으로 달아서 주었고, 제관에게는 한 목을 더 주었다. 뼈와 내장은 마을 사람들이 찌개를 끓여 먹을 수 있도록 다듬고 씻는다. 통돼지를 분할하는 방법은 먼저 머리부분부터 제거한 후 배를 가르고 갈비·목뼈·척추뼈 등을 제거한다. 갈비는 불에 구워서 술안주로 먹는다.

통돼지의 내장은 도살장에서 따로 보낸다. 보내온 내장은 소금을 뿌리고 비벼서 씻는다. 큰창자는 '내창'이라고도 불렀다. 도살장에서 내장을 뒤집지 않고 가져왔다고 하였으며, 간 옆에 붙은 쓸개는 터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떼어낸다. 쓸개가 들어가면 맛이 써지기 때문이다. 소금물로 비벼 씻은 후에는 밀가루를 넣고 비비면서 씻는데, 그러면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한다. 내장은 본래의 상태로 왔기에 이날은 찌개로 끓이지 않고 볶아서 먹는다.

찌개는 뒤곶의 한데부엌에서 끓였다. 한데부엌은 아궁이가 2개이며 양은솥을 걸칠 수 있게 구멍이 위로 두 개 나 있다. 아궁이에 불을 붙이고, 솥에 고추장에 양념한 고기를 넣고 물을 넣어 고기의 2/3 정도가 잠기도록 한 후 끓였다. 이 찌개를 '사댕이 뼈 찌개'라고 하며, 이것은 돼지 등뼈로 끓인 찌개이다. 이 찌개를 '순대국'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찌개에 넣는 무는 미리 고추장·고춧가루·파·마늘·다시다 등의 양념에 무쳐 놓은 것으로 '찌개무'라고 부른다. 찌개는 이웃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였다. 오신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해 집안에서는 두부 찌개를 끓인다. 이 찌개는 돼지고기의 살코기를 넣고 끓인 것으로 무·두부·고추장·고춧가루·마늘·파·양파 등을 넣어서 끓였다.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동네 어른들이 삼삼오오 반장 맥(박명호, 52세)으로 모였다. 남자들은 남자들대로 모이고, 여자들은 여자들대로 모인 후 서로 간에 새해인사를 한다. 새해를 맞아 술을 가져오는

이들도 있었다. 예전에는 우물제사가 끝나기 전에는 여자들은 문밖으로 나오지도 않았기에 이날 처음 만나 새해 인사를 하는 것이다. 예전에는 제관의 집에 모여 음식을 만들었다.

'모듬밥'으로 '하나' 되는 마을 주민

이날 밥은 밥공기에 푸지 않고 큰 사발에 담아 여러 사람이 숟가락질을 해서 먹었다. 한 그릇의 밥을 여럿이 모여 먹기에 이밥을 '모듬밥'이라고 하며, 상 가운데에 놓는다. 많은 사람이 모였기에 밥그릇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라는 공동체 의식에서 생겨난 습속이라고 볼 수 있다. 오늘 상에는 모듬밥을 비롯하여 콩나물무침, 마늘장아찌, 깻잎장아찌, 고추 장아찌, 북어찜, 돼지뼈찌개(사댕이뼈찌개), 시래기 나물, 김치, 소금(소금+깨+고춧가루) 등이 올라왔다. 밥상은 어른, 젊은이, 부녀자가 따로 놓았으며, 반장은 우물제사에 대한 결산도 하고, 마을주민들에게 설명을 하였다.

우물제사는 마을주민 모두가 치성을 드리는 세가이기도 하나, 개인적으로 치성을 드리기도 한다. 가령 10월 상달에 제사를 지내고 떡을 떼어놓기도 하고, 따로 우물에 시루떡을 해서 제사를 지내기도 한다. 박동규씨(74세)는 가을고사 때면 떡을 놓고 제사를 지내며, 박성대씨(60세)는 수시로 우물에 정성을 보인다. 특히, 박성대씨는 옷우물과 밀접한 사연도 가지고 있다. 옷우물이 상수도로 개수된 후에 몸이 아파 여러 병원을 전전하였지만 차도가 없어 만신을 찾아가게 되었다. 만신은 물을 건드려 생김병이라고 말한 후 남쪽으로 가서 약 5점을 먹으면 낫을 것이라고 가르쳐주었다고 한다. 그가 말하는 데로 약을 먹은 후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고, 그 우물에 남다른 치성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바가지 우물은 근래에 낫강을 놓아서 다시 만들었다.

우물제사는 마을의 공동체의식을 강화하는데 커다란 도움을 준다. 하나라는 의식과 어른들을 공경하고 존경하는 장이기도 하다. 

담양 가사문학관 해설가로 일하고 있는 이정옥씨

시조 2백편 줄줄... 송강 정철이 여자로 다시 태어난듯

강민철 기자 (mckang@kccf.or.kr)

“十年을 經營하여 草廬 三間 지어내니 / 나 혼간
들 혼간에 淸風 혼간 맞져 두고 / 江山은 들일 티
없스니 들러 두고 보리라.

홍진 세상을 뒤로 하고 초야에 묻혀 문우들과 시를
읽으며 유유자적한 삶을 살았다는 송순. 그의 혼과
정신이 깃든 면양정으로 향하는 관광버스안. 이제 막

담양의 문화유적을 둘러보기 시
작한 관광객들은 남도 특유
의 억양이 묻어난 목소리로
명사들의 시조를 줄줄 외
우는 한 여성가이드에 그
만 반하고 만다.



여 고 때 부터 한시 좋아해 2 백여편 줄줄 외워

이 정 옥 씨
(39). 올해 3월
부터 가사문학관
해설가로 활동하
고 있는 그녀는
담양을 찾는 관광
객들을 문화유적지

로 데리고 다니며 향토문화를 소개하는 일도 겸하
고 있다. 만일 담양에 내려가 대나무 숲에서 불어오
는 바람을 맞으며 송순·정철 등 선비들의 삶을 배
우고 싶다면 이씨를 만나라고 권하고 싶다. 수백년
전 담양과 담양에 살다간 그네들의 삶이 이씨가 읊
조리는 시조에 녹아 내린다.

여고때부터 한시를 외우는 게 취미였다고 말하는
그녀가 단숨에 외울 수 있는 시조는 무려 2백여편.
송순의 ‘면양정가’나 정철의 ‘성산별곡’ ‘관동별
곡’ ‘사미인곡’ ‘속미인곡’ 등은 보통이다. 듣고 있
노라면 시냇물이 줄줄 흐르는듯 섯파람이 솔솔 부
는듯 옛 선비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절
로 나고 주책스럽게도 벌써부터 술 생각에 침이 꼴
짝 넘어가고 취기마저 돈다.

이런 관광객의 기분에 불을 지를 양인지 그녀가
황진이의 시와 더불어 가장 좋아하는 시조인 송강
정철의 장진주사 전문을 줄줄 읊어 내려간다.

“한 잔 먹세 그려. 또 한 잔 먹세 그려. 꽃 꺾어 산
(算) 놓고 무진 무진 먹세 그려. 이 몸 죽은 후면, 지
게 위에 거적 덮혀 주리어 매여 가나, 유소보장(流
蘇寶帳)에 만인(萬人)이 울어 예나, 어육세 속새 떠
갈나무 백양(白楊)속에 가기 곧 가면, 누른 해 흰 달
가는 비 굵은 눈 소소리 바람 불제 뉘 한 잔 먹자 할
꼬, 허물며 무덤 위에 잔나비 파람 불제야 뉘우친들

◁ 담양 가사문학관 해설가로 일하고 있는 이정옥씨



어찌러” 이미 세상을 떠난 정철이 듣는다면 ‘누 나와 한잔 먹자 하는고?’ 라고 소리치며 무덤을 헤치고 벌떡 일어날 듯 하다.

게다가 이씨는 여독이 쌓인 관광객들을 위해 옛 선비와 기생간에 주고받았던 ‘야한’ 애정시도 부끄럼을 무릅쓰고 읊조려 가라앉았던 장내를 활기 띠게 한다.

‘친절베스트’ ... 보수 작지만 직업 만족

담양이 고향인 이씨는 담양 여고를 졸업하고 광주대 유아교육학과를 다니다가 결혼해 다시 이곳에 와 살게 됐다.

현재 아들 하나를 둔 주부로 시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그녀는 지난 98년부터 3년간 전라남도 여성회관에서 주최한 전라남도 홍보가이드 양성과정을 밟은 후 최근에 담양군과 관광문화시민연대가 공동 주최한 6개월간의 관광지 해설가 교육 과정을 거쳐 도우미로 활동하다 유창종 군수의 눈에 띄어 가사문학관에서 해설가로 일하게 됐다. 현재는 전국 규모의 답사단체인 대동문화연구회의 상임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같은 경력을 바탕으로 담양 향토문화관광가이드도 겸하게 됐다. 지난해 전라남도 홍보대회에선 금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그녀가 처음으로 가이드를 한 대상은 해남의 모 단체 관광객들이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 해남군 관광과에서 담양군으로 이씨를 초청하는 공문을 보내오기도 했다. 담양군 홈페이지에도 이씨의 안내를 받았던 관광객들이 아낌없이 칭찬하는 글들이 자주 올라온다. 이런 사실이 널리 알려져 올해에는 전도민 365일 친절운동 캠페인에서 6월의 친절베


스트로 뽑혀 도지사 표창을 받는 기쁨을 누렸다.

“여고때부터 한시를 좋아해 항상 메모지에 시 한편을 적어 다니며 사우나실에 가서도, 화장실에 앉아서도, 버스를 타서도 외우는 게 취미였다”는 그녀는 “지금도 친구들과의 모임에 가면 암송했던 시조를 응용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시조는 이미 생활의 일부”라고 말한다.

담양군 공무원인 남편과도 부부간의 각별한 정을 주고받는 통로다. 술을 특히나 좋아하는 남편을 위해 그녀가 시조나 가사를 읊조리면 남편은 술 한잔 들다 말고 그것을 부체에 쓰거나 그림을 그려 건넨다고.

아침 8시 30분에 출근해 저녁 6시 30분까지 가사문학관에서 근무하며 하루에 두세번 정도 담양의 문화를 해설하고 있는 그녀는 기껏 한달 일해 받는 보수라고 해봐야 60여만원에 불과하지만 그녀의 해설을 다 듣고난 관광객들이 이구동성으로 “국문학과를 졸업했느냐? 아니면 녹음기를 옆에 끼고 하느냐? 대학에서 강의를 해볼 생각은 없느냐?”며 질문을 해올 땐 날듯이 기쁘다.

“문화는 아는 것 만큼 보여”

“앞으로도 우리 고장을 찾는 분들에게 최선을 다해 드리는 게 꿈입니다”. 소박하게 꿈을 말하는 그녀는 “어린 자녀들에게 내 고장의 향토문화를 가르쳐 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래야만 향토문화가 더욱 더 아껴지고 세계적인 문화유산이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왜냐하면 “문화는 아는 만큼만 보이니까”. 그녀의 문화관(文化觀)이다. 

靑岩亭과 溪西堂

봉화문화원 제공

봉화평은 경상북도와 강원도가 경계를 이루는 산간 오지에 위치해 있다. 삼한 시대는 안동과 함께 기저국(己低國) 땅이었다. 신라 경덕왕 때 옥마현으로 개칭되고 고려 현종 때 봉성현이 되었다가 공민왕 때 봉화현이 되었다.

봉화는 봉화읍과 춘양읍이 중심을 이루고 있고 동남쪽에 청량산도립공원이 위치해 있다.

봉화를 관향으로 하는 금(琴)씨와 정(鄭)씨 집안에서 출중한 인물을 배출하기도 했으나 안동의 사족(士族)들이 이주해 곳곳에서 동족마을을 이루면서 창녕 성씨의 종택 '계서당'과 답실마을의 안동권씨 권충재 종택 같은 유적을 남기고 있다.

택리지의 저자 이중환이 삼남 4대길지의 하나로 꼽을만큼 봉화읍 유곡리(답실마을) 권충재 종택은 유명하다. 현재 물야면 가평리의 창녕 성씨 종택 '계서당'과 함께 답사여행코스도 각광을 받고 있다.

권충재 종택

대문을 들어서면 전면에 사랑채가 있고 중문을 들어서면 안채가 있는 전형적인 영남지방 반가의 □자 집이다. 마당 맞은편에 종가가 있고 그 서쪽에 유물각이 위치해 있으며 안쪽으로 충재가 지은 청암정이 있다.

유물각에는 ▲ 보물제261호 충재일기 ▲ 보물제262호 근사록(近思錄) ▲ 보물제896호 15종 184책의 전적류 ▲ 보물제901호 책레도감계병과 고문서 15종 274점 ▲ 보물제902호 충재와 퇴계·미수의 서첩과 글씨 8종 14점이 보관돼 있다.

종택 서쪽 들담을 통해 작은 쪽문을 나서면 청암정(靑岩亭)이 있다. 청암정은 크고 넓은 거북바위 위에 올려지은 丁자형 건물이다. 6칸으로 탁 트인 마루옆에 2칸짜리 마루방을 만들고 그 방가로 퇴를 둘러쌌다. 건물을 빙 둘러서 연목 '척축천'을 조성 돌다리를 건너야 정자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운치가 뛰어나다. 주위에는 향나무 등 수목이 어우러져 자연을 만끽할 수 있다.

종택을 나와 창평천과 가계천이 합해 봉화읍으로 흘러드는 내성천 합수지점쪽 계곡에는 풍광이 수려한 '석천정사'가 있다. 이 석천정사는 충재의 큰아들 청암 권동보가 1535년 지은 정자인데 충재가 동문밖에 쌓았다는 대(臺)위에 지은 것이다.

가평리 계서당

물야면 가평리에 있는 창녕 성씨 마을의 종택이 '계서당'이다. 조선시대 문신 계서 성이성(溪西 成以性)이 1613년에 지었다고 한다.

계서당'은 안채와 사랑채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영남 반가의 구조이다. 앞쪽의 대문채는 바로 앞에 논이 연이어 있지만 낮은 경사를 이용해 집을 지었기 때문에 뒤쪽의 안채는 높직이 앉아 있다. 대문채는 솟을 대문으로 위엄을 갖추었고 본채는 정면 7칸 측면 6칸의 □자집으로 증가치고 그리 큰 규모는 아니지만 아담하고 짜임새가 있다. 정면 3칸의 팔작지붕집인 사랑채와 중문간채가 연이어져 있는데 중요민속자료 제171호로 지정되어 있다.



△계서당



△청암정

계서는 사간원에서 당대의 세력가이던 김류·김자점 등의 죄를 논하기도 했으며 외직에 나가 진주·강계 등지에서 선정을 베풀어 청백리로 뽑히기도 했다. 그의 아버지 부용당 성안익은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의병장으로 1591년 문과에 급제하고 다음해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의병을 모집하여 1천여 명을 거느리고 홍의장군 박재우 휘하에서 활약했다. 난이 끝난 뒤에 벼슬길에 나아가 1607년 남원 부사 1612년 광주목사를 지냈다. '계서당'은 안채와 사랑채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영남 반가의 구조이다. 앞쪽의 대문채는 바로 앞에 논이 연이어 있지만 낮은 경사를 이용해 집을 지었기 때문에 뒤쪽의 안채는 높직이 앉아 있다. 대문채는 솟을 대문으로 위엄을 갖추었고 본채는 정면 7칸 측면 6칸의 □자집으로 증가치고 그리 큰 규모는 아니지만 아담하고 짜임새가 있다. 정면 3칸의 팔작지붕집인 사랑채와 중문간채가 연이어져 있는데 중요민속자료 제

171호로 지정되어 있다.

정면이 높직한 사랑채는 정면 3칸에 측면 2칸반으로 방이 남북으로 연이어 있는 겹집구조이다. 전체로는 7칸반으로 장중한 위엄을 갖추었다.

중문을 들어서면 마주하게 되는 안채는 서쪽으로 2칸짜리 안방과 역시 2칸짜리로 벽체도 없이 넓게 트인 부엌이 연이어 길게 이어져 있다. 정면은 4칸 대청인데 그 중의 반칸은 안방의 도장방에 연이은 도장방으로 꾸며져 있어 특이한 구조이다.

도장방은 뒤주나 짐기·가구들을 두는 일종의 창고방을 이른다.

대청 동쪽으로는 도장방, 상방(다락), 부엌이 있고 부엌에서 사랑채로 통하는 문이 나 있다. 문 앞쪽에 있는 쪽마루와 쪽문은 사랑채에서 안채로 드나드는 문이다. 기능과 모양을 두루 갖춘 고가의 아가자기한 구성이 눈에 띈다.문

노성의 옥천말랭이

논산문화원제공

논산에서 10km 정도 국도를 따라 공주쪽으로 가다보면 국도변에 노성중학교가 있는데 노성중학교에서 동쪽으로 100m 지점에 '옥천말랭이' 라고 하는 야산이 들 가운데 놓여있다.

이 야산에는 다음과 같은 설화가 전해 오고 있다.

아주 옛날 옥천땅에 가뭄이 극심하던 해였다. 농부들은 모를 내기 위해 하천에 웅덩이를 파고 논에 물을 대기 시작하여 겨우 모내기를 마치기는 하였지만 가뭄이 계속되어 논바닥은 거북이등처럼 갈라지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모를 살리기 위해 샘을 파서 논에 물을 대어보기도 하였지만 샘물조차 말라서 더 이상 어찌 하지를 못하고 하늘만 원망스럽게 바라보면서 밭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이렇게 비를 애타게 기다리던 차에 팔월 초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농부들은 타다남은 벼를 살릴 수 있게되어 좋아라 뛰어들다니며 논에 물을 대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한번 내리기 시작한 비는 좀처럼 그칠 기미가 없었다. 처음에 축축히 내리던 비가 점차 폭우로 변하여 물은 점점 불어나 홍수로 변하였다. 마을 사람들이 물난리를 피해 올라온 산이 움직이지 않는가? 사람들은 이제 죽었다고 울부짖으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사람살리라고 외쳤다. 그러나 온천지가 물로 뒤덮인 곳에 사람들이 있을리 없었다. 산은

둥실둥실 떠나려가기 시작했다.

얼마나 많은 비가 내렸던지 옥천땅이 물에 떠나려 오다가 밀려서 지금의 노성땅에 와서 둥근 야산을 이루어 놓았다. 이 야산과 더불어 떠나려온 마을 사람들은 이것이 내땅이러니하고 여기서 몸담아 생활을 하면서 자신들은 옥천사람이라 일컫고 세금을 옥천 관아에 바쳤다. 이렇게 되니 옥천 관리들도 이 땅에 대한 관리를 함과 동시에 세금을 거두어 가게 되었다. 이 때부터 이 야산을 노성에 있는 땅이지만 옥천에서 관리하는 땅이 되어버린 것이었다.

오랜 세월이 흘렀다. 노성에 신억이란 원님이 새로 부임하였다. 그는 나이는 비록 어리지만 선정을 베풀어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었다. 이 원님은 "내가 다스리는 고을에서 세금을 옥천 관현의 관리가 받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이라고 생각했다.

"노성에 있는 땅의 세금을 옥천 관리가 받아간다니...."

신억 원님은 늘 이것이 매우 불쾌하였다. 더구나 노성땅은 기름지고 산세가 좋은 곳이라 웅기종기 부자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데 이곳에서 세금을 옥천 관리가 받아간다는 것은 꼭 내 돈을 빼앗기는 것 같아 불쾌하기 짝이 없었다.

이런 생각에 골뜩하고 있던 차에 옥천 관리들이

세금을 걷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그래서 그는 우선 옥천 관리들을 여기에 대령시키라고 명을 내렸다. 신억 원님 앞에 나타난 옥천 관리들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붙잡혀 왔다.

“그래, 세금을 많이 걷었느냐?”

“예! 올해는 풍년이 들어서 세금이 잘 걷히고 있습니다.”

“그래,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 집 광 속에 들어가서 곡식을 퍼 간다면 너희들은 어찌하겠느냐?”

이에 옥천 관리들은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고 몸둘 바를 몰라했다.

“그래, 너희들은 옥천 사람으로 노성 땅을 밟았겠다. 그러니 나도 너희들로부터 노성땅을 밟은 통행세를 받아야겠다. 알았느냐?”

하고 호통을 치면서

“여봐라! 이 놈들이 걸어들이 세금을 노성땅을 밟은 세금으로 메꾸어야겠으니 그놈들이 받아들이 세금을 모조리 압수하고 그 놈들을 동산 근처로 끌어들여!”

하고 원님 자신도 동산으로 향했다.

“여봐라!”

“네-!”

“그 놈들을 여기에 대령시키고 어서 짚단을 준비해서 이 동산을 짚단으로 둘러싸아라”

원님은 짚단으로 동산을 둘러싸게 한 다음 다시 호통을 쳤다.

“어서 한 쪽에 불을 질러라”

메마른 짚단은 삼신간에 불길이 치솟더니 잠깐 사이에 다타고 재만 남았다.

“자 보아라. 조금전까지 짚단으로 두른 땅의 안은 옥천땅이라 했겠다. 그러나 짚단으로 전부 불태워 버렸으니 재만 남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 옥천땅이라고 하던 땅은 재가 되었느니라 너희 땅인 재를 쓸어 모아줄 것이니 너희 땅을 가지고 가거라” 하고 재를 쓸어 모으라고 명령했다.

지금도 노성 중학교 옆에 있는 야산을 ‘옥천말랭이’ 또는 ‘옥천피’라 부르고 있는데 이것은 옥천땅이 여기에 붙어서 옥천 원님이 세금을 거두어 갔다고 해서 옛부터 그렇게 불렀다고 한다.

신억 원님은 불에 탄 재를 쓸어 모은 것을 보고,

“여봐라, 옥천 관리들은 들어라. 노성에 있는 옥천땅은 분명히 너희 원님이 선을 그어서 알려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선은 집단으로 불에 타 없어졌으니 여기 남아있는 땅은 분명히 노성땅이렸다. 그러니 이제부터 이 땅의 세금은 내가 걷겠다.

그리고 이번 세금은 옥천 사람인 너희들이 노성에 온 세금으로 내가 압수하겠으니 그리 알고 너희 원님께 똑똑히 아뢰어라.”

하고 말했다.

옥천 관리들은 신억 원님의 서슬퍼런 질책에 대꾸를 하지 못하고 서둘러 옥천으로 돌아갔다. 옥천에 돌아온 관리들은 자기 원님에게 노성 원님의 말을 그대로 보고했다.

그러자 옥천의 ‘원님은’ “그렇지 노성의 원님은 참 훌륭한 원님이시다. 이제 노성에도 사람이 들어섰구나!” 하고 무릎을 치며 칭찬하였다.

지금도 노성 중학교 옆에 있는 야산을 ‘옥천말랭이’ 또는 ‘옥천피’라 부르고 있는데 이것은 옥천땅이 여기에 붙어서 옥천 원님이 세금을 거두어 갔다고 해서 옛부터 그렇게 불렀다고 한다.☞



칠석과 백중

박 후 식 | 전국문화원연합회 운영위원

칠석(七夕)

칠석은 음력 7월 7일이다. 이날은 하늘나라 견우와 직녀가 까막까치들이 놓은 다리 '오작교'에서 1년에 한번씩 상봉하는 날이다. 이 견우와 직녀 이야기는 중국에서 전래된 전설이다. 이 전설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하늘과 땅을 다스린다는 옥황상제에게 예쁜 딸 직녀가 있었고 옥황상제의 궁전과 은하수를 사이에 둔 건너쪽에는 견우라는 젊은이가 있었다. 옥황상제는 이 젊은이가 착하고 부지런하여 농사일에 열중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들어 직녀와 결혼시키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 청춘남녀는 사이가 너무 좋아져서 자기들이 맡은 직분을 게을리하고 사랑놀음에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이들이 일을 하지 않으니 천계(天界)에는 혼란이 생기게 되었다. 직녀가 베를 짜지 않아 옷감이 부족하고 견우가 농사일을 게을리하여 식량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고통을 받게 되었다. 옥황상제는 크게 노하여 직녀공주를 은하수 동쪽에 살게 하고 견우 부마는 은하수 서쪽에 살도록 둘을 갈라 놓았다. 이렇게 되자 두 사람은 몹시 애통해 하였다. 옥황상제는 그들을 가엽게 여겨 1년에 한번 칠월칠석에 밤에만 서로 만나게 해주었다. 이 때 지상의 까치들은 하늘로 올라가

은하수에 모여 자기들의 몸을 잇대어 오작교를 놓고 견우와 직녀가 만날 수 있게 해주었다는 것이다”

칠석날에는 비가 내리는 것이 보통인데 이날 내리는 비는 견우와 직녀가 1년만에 만나는 환희의 눈물이라고 한다. 또 칠석 다음날 오는 비는 작별을 서러워하는 눈물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칠석의 풍습으로는 결교(乞巧)라하여 처녀들이 바느질 솜씨가 좋아지기를 비는 풍속이 있었고 선비와 선녀들은 견우·직녀 두 별을 소재로 시를 지으면 문장실력이 는다고 해서 글짓는 풍습이 있었다. 또 이날 비가 내리지 않으면 햇볕에 옷과 책을 말리는 습속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좀이 먹지 않는다는 것이다.

농촌에서는 칠석에 사당에 천신을 하였고 샘을 깨끗이 청소하고 우물제사를 올리는 풍습이 있었다. 농군들은 칠석때면 김매기가 끝나 한가한 시기이므로 하루를 쉰다. 칠석날은 요즘으로 치면 공휴일이었던 것이다.

백중(百中)

칠월 보름날은 백중이다. 백중은 명절의 하나인데 백중(百種) 또는 중원(中元)이라고도 했다.

백중날은 남녀가 모여 여러가지 음식을 준비해

노래하고 춤 추면서 즐겁게 놀았다. 지방에 따라서는 씨름대회, 장치기 등의 놀이로 내기를 하기도 하였다. 절에서는 이날 재(齋)를 올리는데 신라·고려 때는 이를 '우란분회'라고 하였다. '우란분경'의 다음과 같은 설화에서 연유한 것이다.

“석가모니의 제자 중 목련이라고 하는 착한 제자가 있었다. 목련은 어머니가 지옥에서 고생하고 있는 것을 알고 어머니를 구원하기 위해 석가모니에게 간청하였다. 석가모니는 효성에 감동하여 7월 15일 백중날 쟁반에 오미백과(五味百果)를 담아十方大德(十方大德)에게 공양케 하였는데 그 후 목련의 어머니 영혼이 구제되었다”

민간에서는 이날 저녁 달밤에 채소·과일·술과 밥을 차려 죽은 부모의 혼을 불러들여 제사를 지낸다. 농촌에서는 백중날을 전후해 시장이 켜는데 이를 백중장(百中場)이라 불렀다. 머슴을 둔 집에서는 이날 하루를 쉬게 했는데 백중장에서 벌어지는 씨름, 농악경연, 그네대회에 참석해 흥겹게 놀았다. 그래서 백중을 '머슴날' 또는 '머슴의 생일'이라고도 불렀다.

백중날은 여러가지 민속놀이가 행해졌는데 '밀양백중놀이'와 '괴산백중놀이'는 유명했다.

밀양백중놀이

백중놀이의 대표적인 '밀양백중놀이'는 중요무형문화재 제68호로 지정된 우리나라 전통민속놀이이다. 놀이의 내용은 ▲농신제 ▲작두말타기 ▲춤 ▲뒷놀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 농신제 : 농신대를 에워싸고 앞놀이 성격의 풍물놀이에 이어 '신장일으키기굿'을 하고 이것이 끝나면 농신대 앞에 늘어선다. 단마치로 북을 세번 울리면 강선했다고 생각해 고사소리를 한다. 고사를 마치면 음복을 하고 농요를 부르며 어울려 논다. 이때 부르는 농요는 모심기노래, 감매기노래, 타작노래 등 흔히 듣는 것이지만 어사령은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그 곡조가 대단히 구슬프게 들리는데 초동



△ 밀양백중놀이의 '양반춤'

의 노래라고 한다. 이 때 사람들의 대형은 원형이며 빙빙 돌아다니면서 춤을 춘다.

▲ 작두말타기 : 옛날에는 농군(머슴)들이 뽑은 좌상·무상을 소의 등에다 거꾸로 태우고 작은 삿갓을 관(冠)처럼 씌워 동네 골목으로 돌아다녔으나 지금은 소대신 작두말을 탄다. 작두말은 지게와 비슷한데 지게로 대용할 수도 있다. 작두말은 두개가 필요하며 각각의 무상을 태우고 네 사람이 멘다. 그 다음에는 가장(假裝) 양반놀이가 시작되는데 이 놀이는 양반을 흉보면서 모욕하는 놀이다. 이 때 등장하는 양반은 재보양반, 고자양반, 빙어리양반 등 모두 병신들이다.

▲ 춤판 : 가장 구성지고 신명나는 놀이다. 양반춤, 병신춤, 범부춤, 오복춤 등이 추어진다.

▲ 뒷놀음 : 뒷풀이로서 참가자 모두가 한데 어울려 노래하며 춤추고 신명나게 논다. ㉞

기능과 미적 감각 뛰어난 가마

류장수 | 前 월간 '우리문화' 편집주간

가마는 사람이 메고 다니는 탈것이다. 일명 승교(乘橋)라고도 한다.

「신부는 늦쇠로 가마집 꼭대기를 장식하고 사면에 발을 늘어뜨린 팔인교를 댔는데 가마 앞에서는 네 사람이 청사초롱을 들고 안보기라 하여 보자기로 덮은 상을 두 사람이 들었다. 이들 여섯명은 대추, 말린고기, 옷상자 및 경대를 등에 지고 곱게 단장한 계집중 열두명이 혼인식 때 피우는 부용향을 받들고 앞에서 인도한다. 가마 뒤에는 검정 비단으로 만든 가리래를 쓴 유모가 말을 타고 따르고 하인 무리가 행렬을 호위한다」

18세기 후기 서울의 세시풍속을 기술한 유득공의 '경도잡지'에 대가집 처녀가 혼인식을 치른후 시덕으로 떠나는 신행길 모습을 묘사한 글이다. 새신부의 수줍음과 휘황한 가마행렬이 잘 묘사되어 있다.

이처럼 가세가 당당한 집안의 처녀는 팔인교를 타고 호사를 다했지만 대다수 양가의 처녀는 사인교를 타고 시집을 갔다. 사인교를 일러 보통 꽃가마라고 하는데 꽃처럼 화려하게 치장했기 때문에 꽃가마라고 부르기도 했다.

화려하게 치장한 혼례가마

혼례 때 사용되는 가마는 덮개의 사면 둘레에 오색 술을 둘러 장식하고 양옆의 미단이 들창문에는 꽃그림을 그린 유리를 끼웠다. 들창문과 양쪽 문밖에는 색실로 거북등 무늬를 바탕에 둔 주렴을 달았고 주렴에는 부채꼴 수식(垂飾) 여러개를 곱으로 늘어뜨렸다. 수식은 붉은색이고 이것들을 매단 넓은 띠는 녹색 비단을 사용했다. 십장생의 거북 무늬와 칠보 무늬를 닮은 수식은 홍·녹의 대비와 더불어 신부의 앞날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는 강한 길상성(吉祥性)을 띠고 있다.

신부가 시집갈 때 가마를 타는 풍습이 보편화된 후에는 가마 탄다는 말이 여자의 일생 중 가장 중요한 일인 혼례의 대명사로 되었다. 서민이 혼례 때 가마를 탄다는 것은 일생에 한번 뿐인 좋은 날에 모든 사람의 기쁨을 받는다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부잣집에서는 동네 공용가마를 쓰지않고 고급으로 새로 맞추는 등 크게 사치를 부리기도 했다. 또 신행가다가 낮모르는 가마와 마주치면 길을 비키지 않고 서로 실랑이를 벌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마끼

신부가 시집갈 때 가마를 타는 풍습이 보편화된 후에는 가마 탄다는 말이 여자의 일생 중 가장 중요한 일인 혼례의 대명사로 되었다. 서민이 혼례 때 가마를 탄다는 것은 일생에 한번 뿐인 좋은 날에 모든 사람의 기쁨을 받는다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부잣집에서는 동네 공용가마를 쓰지않고 고급으로 새로 맞추는 등 크게 사치를 부리기도 했다.

리 서로 맞대고 밀어붙이는 싸움이 벌어지기도 한다. 기세에 밀리거나 싸움에 지면 가마에 타고있는 사람이 운수가 사납고 불길하다는 속설이 있다. 그래서 다른 가마에 밀리지 않도록 경험이 많고 힘이 센 가마꾼을 구하는 데도 애를 썼다고 한다.

이런 풍습이 승화된 것으로서 우리 민속에 가마 놀이가 있다. 가마놀이는 모두 다섯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신부어머니가 성주나 조상에게 정화수를 바치고 딸의 앞날을 비는 첫째과장, 신부가 가마에 오르면 가마꾼이 노래를 부르면서 신행길을 떠나는 둘째과장, 가마싸움으로 다른 가마꾼을 만났을 때 서로 길을 비켜주지 않으려고 부딪치는 싸움을 하는 셋째과장(이 싸움에서 가마를 먼저 땅에 놓는 편이 지고 이긴 편에서 길을 비켜준다) 넷째과장에서는 새색시를 시가집에서 마중할 때 친정 하녀가 조랑말에서 내려 시집하녀와 서로 모시겠다고 다투는 장면이며 다섯째과장은 덕물림으로 대문앞에서 신부를 맞이하여 다남(多男)을 빌며 무당굿을 펼치는 장면이다.

또 호랑이가 많던 옛날에는 먼 산행길을 갈 때 신부가 호환을 당하는 일도 적지 않았다. 그래서 이를 피하기 위해 가마위에 호피를 덮는 것이 관습이 되었다. 그러나 호피는 값이 비싸고 구하기도 어려워 대신 호피무늬를 넣은 담요를 덮는 것이 보통이었다고 한다.

이는 호랑이의 해침을 피하기 위한 것인 동시에 요사로운 기운을 막는다는 뜻도 있었다. 친정에서 새색시에게 갖추어 주는 노리개에는 부부궁합이 좋

기를 비는 도끼노리개와 함께 호랑이 발톱 노리개도 한 몫 차지했다. 이렇듯 호랑이는 옛 사람에게 공포의 대상이면서도 수호신 역할을 해왔다.

조선시대 모든 생활공예품의 무늬는 대부분 나쁜 것을 쫓고 복을 비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하지만 혼례용 가마에는 벽사기복(辟邪祈福)의 무늬보다 부부의 금실이 좋고 자식을 많이 낳기를 기원하는 문양이 많이 쓰였다.

포도·석류·물고기 등은 자손이 많기를 바라 활용하는 문양이지만 혼례용 가마에서는 이보다 더 적극적인 뜻을 지닌 음양화합의 문양을 자주 볼 수 있다. 대부분은 온갖 새와 짐승 그리고 물고기, 곤충 등이 칸마다 쌍쌍이 짝을 이루어 좋은 금실을 상징하는데 그것으로 그치지않고 쌍쌍이 교미를 하고 있는 모습을 생생하게 조각한 것도 볼 수 있다. 그 시대에는 한번 시집가면 개가(改嫁)가 어려워 그집 귀신이 되어야 하면서도 아들을 못낳으면 칠거지악에 들어 쫓겨날 수도 있었다. 그러므로 신부와 친정 식구들에게는 신랑과의 원만한 부부관계가 가장 큰 소망이었다. 또 아들을 낳아 가계(家系)를 이어가는 것이 자식된 도리였으므로 시집쪽에서도 이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기는 마찬가지였다. 부부화합 무늬는 이러한 시대상, 사회상의 반영인 동시에 절실한 현실적 소망이었던 것이다.

가마도 신분·계급따라 차등

「문 밖에서 통소, 피리, 징 등의 소리가 나기에 급

히 나가보니 벼슬아치 행차였다. 채색 그림 그린 사등룡이 여섯쌍, 푸른 일산이 한 쌍 붉은 일산이 한 쌍이요 통소 한 쌍, 초금 한 쌍, 날라리 두 쌍, 진경 한 쌍이 있고 가운데 푸른 가마 한 채를 교군 넷이서 메고 간다. 사면에 유리를 끼워서 창을 냈고 네모에는 색실을 드리워서 술을 달았다. 가마 한 허리에 통나무를 받쳐서 푸른 밧줄로 묶고 그 통나무 앞뒤로 다시 짧은 막대로 가로질러 엮매어서 그 양쪽 머리를 네 사람이 메었는데 여덟 발이 똑똑 맞추어 한 줄로 가므로 흔들리거나 출렁거리지 않고 그저 허공에 떠서 가는 폭이라 그 법이 아주 묘하다」

연암 박지원이 '열하일기'에 그려내고 있는 벼슬아치가 가마를 타고 행차하는 모습이다.

가마가 언제부터 생겨났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탈것으로 널리 이용된 것은 조선시대부터인 것으로 보인다. 그 이전의 교통수단으로는 주로 말과 수레가 있었다. 말을 타는 관습은 삼국시대 이후로도 계속되었지만 중세 이후에는 수레를 대신하는 탈것으로 가마 종류가 널리 이용되었다.

'고려도령'에는 당시 중국 황제가 고려에 보내는 조서(詔書)를 맞이할 때 이것을 봉안하는 채여(彩輿), 중국사신을 영접할 때 태우기 위한 견여(肩輿) 등 가마에 대한 기록이 나오며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가마의 이용이 양반 관료사회에 보편화 되었다. 그래서 지금의 회현동(회형방)에 여러 가지 가마만 취급하는 전문상점 교자전(轎子廛)이 있었다.

조선시대 양반 계층이 가마를 탈 수 있었다고 하지만 신분과 계급에 따라 엄격하게 차등을 두어 탈것을 구분했는데 자신의 신분에 웃가는 것을 타면 남기율(濫騎律)에 의해서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남기율은 탈것의 종류 뿐만 아니라 재료나 색깔, 더 나아가서는 탈것을 타고 행차할 때 따르는 시종의 숫자도 제한하였다. 왕실에서도 왕족 이외의 관원들도 품계에 따라 구별을 둔 교여지제

(轎輿之制)가 시행되었다. 이에 따르면 품계별로는 평교자는 종1품 이상 현직 관리와 기로서 당상관이, 사인교는 판서 또는 그에 해당하는 관리, 초헌은 종2품 이상이 타며 쌍마교(雙馬轎)는 관찰사와 종2품 이상의 관리가 성밖에서만 탈 수 있도록 대전회통에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 말안장, 언치, 등자의 재료와 꾸밈도 품계에 따라 차등을 두었다. 당하관이 교자를 타거나 말안장을 은입사로 꾸미면 남기율에 따라 처벌을 받고 내시는 지위가 아무리 올라도 가마를 타는 것을 금했다. 종친이나 당상관집 여인, 음관(蔭官)집 신부외에는 방처럼 된 교자의 사용을 못하게 하고 말 갖춤에 있어서도 왕실 이외에서는 붉은 말 언치를 못쓰게 하였다. 서민들은 황동 말안장 장식, 무늬 새긴 등자와 담비털도 사용할 수 없었다.

한편 가마를 타고 도성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은 삼정승과 조선 말기의 청나라 공사에 한정되었다. 이러한 신분에 따른 차등은 조선시대 후기로 내려오면서 점점 허술해져 시민들이 혼례를 올릴 때 관복을 예복으로 입고 가마를 타는 일이 당연한 일로 되었다. 원래 경조사 때에는 한급 위의 복제를 허용하고 있었지만 서민으로서는 평소에도 꿈도 꾸어보지 못한 관복, 원삼, 활옷을 갖춰 입고 말이나 가마를 타고 장가, 시집가는 풍습이 허용된 것은 조선시대 양반 지배층의 신분체제 유지 방법의 일환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원래 서민생활과 거리가 멀었던 가마는 왕족이나 관리가 타고 행차할 때면 황급히 땅에 엎드리거나 길을 피해야 하는 귀찮은 대상이었을 것이다. 이때에 시종들이 권마성(勸馬聲, 행차할 때에 위세를 더하기 위해 사복(司僕)이나 역졸을 시켜 목청을 가늘고 길게 빼어 부르는 소리)이나 벽제(僻除, 신분 높은 사람이 길게 나다닐 때 시종이 사람 통행을 금하여 길을 치우는 일) 치는 소리로 미리 알리기는 하지만 자칫 예를 갖추지 못하면 곤장을 맞거나 옥에 갇히고 곤욕을 당하기도 했다. 물론



△ 꽃가마



△ 교자바탕



△ 보교



△ 사찰용 연

의정대신이 타는 평교자는 신분 높은 사람이 교만하지 않음을 보인다는 뜻에서 채를 높이 매지 않고 빨리 가지 않도록 제도가 되어 있었지만 상징적인 표시일 뿐 서민이 가까이 접근하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기능과 미적감각 뛰어난 가마

가마는 가벼우면서도 튼튼해야 하고 타는 사람의 신분에 걸맞은 품격과 아름다움을 드러내야 한다는 여러가지 조건을 함께 만족시켜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과 예술적 감각이 뛰어난 소목장이 아니면 감히 손대기 어려웠다. 무게는 될수록 가벼워야 하기 때문에 굵거나 두꺼운 목재를 쓰지 않았다. 기둥이나 쪼구미 등의 힘을 받는 부분은 굳고 질긴 목재를 썼고 벽면과 지붕은 오동나무, 피나무 등의 가벼운 재질의 나무를 얇게 켜서 대었다.

사람이 앉는 바닥도 무게를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살평상 바닥처럼 나무 살만 댄 것이 많다. 흔들림이 심하고 비에 젖기도 하는 가마를 트집안나게 만드는 일은 장이나 농 등의 가구류를 만드는데 비해 기술적으로 아주 어려운 일이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오늘날 남아있는 가마를 살펴보면 기능상의 완성도 보다 더욱 눈을 끄는 것은 가마를 구성하고 꾸민 미적 감각의 빼어남이라고 할 수 있다. 가마의 뼈대와 면구성에는 매우 섬세한 맛이 있다. 복잡한 듯하면서도 어지럽지 않고 단순한 듯하면서도 단조롭지 않으며 균형을 벗어난 곳에 새로운 균형이 이루어진다. 앞면과 뒷면이 다르고 옆면을 보면 또 전혀 다른 구성을 보인다. 맨 아래칸에서 맨 위칸까지 폭이 같은 곳을 찾기 힘들면서도 조화와 균제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가마의 구성에서 빼놓을 수 없는게 창문이다.

오늘날 남아있는 가마를 살펴보면 기능상의 완성도 보다 더욱 눈을 끄는 것은 가마를 구성하고 꾸민 미적 감각의 빼어남이라고 할 수 있다. 가마의 뼈대와 면구성에는 매우 섬세한 맛이 있다. 복잡한 듯하면서도 어지럽지 않고 단순한 듯하면서도 단조롭지 않으며 균형을 벗어난 곳에 새로운 균형이 이루어진다. 앞면과 뒷면이 다르고 옆면을 보면 또 전혀 다른 구성을 보인다.

가마의 종류

조선시대 가마제도는 크게 왕실용, 서민용 및 의례용으로 나눌 수 있다. 각종 가마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연 : 옛날 임금과 왕비, 그리고 왕세자가 타던 가마로서 난가, 난여, 옥연으로 부른다. 앞과 좌우에 주렴을 늘이고 형질을 비늘 모양으로 늘이었으며 두개의 채가 길게 붙어 있다.

▲ 덩 : 공주나 왕자가 나들이 할 때 타던 가마로 연과 비슷한 형태지만 덩개가 없다. 그 형태나 꾸밈새가 여성취향의 화사함이 돋보인다.

▲ 가교 : 앞·뒤의 채를 두마리의 말에 얹는 가마로 임금이 타는 가교와 관찰사와 종2품 이상 관리가 도성 밖에서 타는 쌍가마가 있다. 임금이 거동할 때는 자객의 해침을 막기 위해 두틀을 메었다.

▲ 남여 : 의자 비슷하게 생긴 것의 밑에는 두개의 약간 긴 채를 꿰어 붙인 포장이나 덩개가 없는 작은 가마다. 호피를 받쳐 깔고 벼슬아치가 탔으며 넷이서 방망이로 메고 한 사람이 일산(日傘)을 받들어 햇빛을 가리기 마련이다.

▲ 용정자 : 나라의 금보(金寶), 옥쇄 등 보배를 운반할 때 사용하던 가마이다. 이처럼 귀중품을 운반하던 것으로 교역와 채여가 있다.

▲ 평교자 : 의정대신이나 기로소 당상관이 타던 가마로 교자 바탕만 있고 지붕이 없으며 파초선으로 위를 가린다.


교의에 호피를 덮고 앉는다. 네명의 교자꾼이 긴 멜빵을 걸어서 가마를 낮게 메며 채가 길어서 휘청휘청하므로 아주 천천히 발을 맞춰 걷도록 되어 있다.

▲ 초헌 : 외바퀴 수레로 죽대가 높은 외바퀴 위에 의자가 놓여 있으며 앞뒤로 채가 달려 쓰러지지 않도록 하고 채꾼이 메고 가도록 되었다. 빨리 달릴 수 있으며 종2품 이상의 벼슬아치가 탔다.

▲ 사인교 : 가마바탕에 문과 장이 달린 벽체를 세우고 지붕을 얹은 형태이다. 관리의 행차용, 민간에서 신행 때 신부의 탈것으로 쓰였다. 앞뒤에 각각 두 사람씩 모두 네명이 채를 메었다.

▲ 보교 : 조립식으로 만든 네기둥과 사각뿔 지붕 열개위에 천을 두르고 창문 대신 둥그렇게 올려내고 얇게 김을 댄 가마의 한가지이다. 나이 많은 사람, 양반집 부녀와 여염집 신부들이 탈 수 있었다.

▲ 장독교 : 뒷부분 전체가 벽이고 양옆에는 창을 냈으며 양쪽에는 들창처럼 버티게 된 문이 있고 뚜껑은 지붕처럼 둥그스름하게 마루가 지고 네 귀가 추녀처럼 되었으며 바탕의 바닥은 살을 대었는데 전체가 불박이로 되어있다. 사람이 없을 때는 소등에 올려놓고 한사람이 뒤채를 잡아 안정을 취하면서 물고 간다.

▲ 상여 : 상여로는 국상용 대여, 일반행상 및 꽃상여 등이 있다. 

전국문화원연합회

제3회 조선족전통음악제

전국문화원연합회와 (사)연변조선족문화발전추진회는 8월 23일 오후 3시 30분 중국 연길시 연변 예술극장에서 제3회 조선족 전통음악제를 개최한다. 이를 위해 이수홍 전국문화원연합회장을 비롯한 전국 문화원장·사무국장 등 임직원 60여명은 22일 한국을 출발해 4박5일과 5박6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 조선족전통음악제에 참석한 후 백두산과 집안 등을 답사할 계획이다. 이 행사는 문화관광부와 유한양행재단이 후원한다.

향토문화연구자 초청 연찬(研鑽)

전국문화원연합회와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향토문화연구자 초청 연찬(研鑽)'이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2박3일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열린다. 지난 6월에 이어 두번째인 이번 연찬에는 서울·강원·제주 지역향토문화연구자를 대상으로 한다. 금년에 총 6회에 걸쳐 열리는 연찬은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를 맞아 민족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향토문화의 체계적인 집대성과 디지털화를 목적으로 '21세기 전통문화의 재조명' '지방문화의 연구방법론' '인터넷과 향토문화' 등

다양한 주제를 갖고 각계 전문가를 초청해 진행된다.

서울특별시

마포문화원

제2회 삼개민속장기대회

▷일시 : 7월 14일

▷장소 : 마포문화원

송파문화원

제5회 한성백제문화제

▷일시 : 9월 17, 21~23일

▷장소 : 송파구 석촌동 백제초기적석총동

부산광역시

부산강서문화원

의령군 역사유적지 탐방

부산강서문화원 회원 가족 112명은 6월 8일 경남 의령군을 방문해 망우당 광재우 장군의 전적지인 정암진과 충익사 그리고 일방선사의 창건지와 한지전시관 및 독립운동가 백산 안희제 선생의 생가를 답사했다.



대구광역시

달성문화원

제16회 달성충효청소년 문화학교

달성문화원은 7월 24일부터 8월 6일까지 현풍면사무소 3층 강당에서 제16회 달성충효청소년 문화학교를 열었다.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지회

광주지회는 지난 7월 4일 광주 구동실내체육관에서 제3회 광주광역시 민속예술축제를 개최했다.

문화원소식

대전광역시

유성문화원

제5회 유성온천 단오제

▷일시 : 6월 25일
▷장소 : 노인복지회관

경기도

의정부문화원

한여름 밤의 꿈 - '2001 토요일 화마당'

의정부문화원은 7월 21일부터 4주간 매주 토요일 저녁 의정부시 청양 평화의 광장에서 '한여름 밤의 꿈 - 2001 토요일 화마당'을 개최한다. 매년 한여름 더위를 피해 시청 앞 잔디밭에 나온 시민들을 찾아가 다양한 문화예술 향수 기회를 제공해 큰 호응을 받은 바 있는 이 행사는 올해도 평화의 광장 야외무대에서 4주에 걸쳐 수준높은 문화예술감상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공연은 대전대 한국무용과 신명숙 교수가 이끄는 신명숙 & 참무용단의 한국무용 공연을 필두로, 의정부 챔버(단장 이진우 가톨릭의대 교수)의 감미로운 관현악 연주와 의정부정주당놀이 보존회(회장 남정현 의정부문화원 이사)의 정주당놀이 공연이 펼쳐진다. 마지막 주에는 경기문화재단의 '찾아가는 예술활동'의 일환으로 극단 자유로의 악극 '각설이 품바' 공연이 열린다. 이번 공연의 일정

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 ▷7월 21일<한국무용> 신명숙&참무용단
- ▷7월 28일<관현악> 의정부챔버
- ▷8월 4일<민속놀이> 의정부정주당놀이 보존회
- ▷8월 11일<악극> 극단자유로
- 공연문의 : 의정부문화원(전화 02-872-5678)

구리문화원

개원 10주년 기념식

구리문화원은 6월 29일 보훈부페 특설식장에서 구리문화원 개원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천문화원

세계도자기엑스포2001 입장료 예약판매소로 지정

이천문화원은 8월 10일부터 10월 28일까지 80일간 열리는 세계도자기엑스포 입장권 예약판매소로 지정됐다.

강원도

양구문화원

박용순 신임문화원장

양구문화원은 지난 6월 20일 임시총회를 열고 최병대 원장 후임으로 박용순씨를 선출했다.

충청북도

진천문화원

제2회 생겨진천 농다리 축제

▷일시 : 7월 14~15일

▷장소 : 진천 농다리

충청남도

공주문화원

정재욱 신임문화원장

공주문화원은 6월 11일 임시총회를 갖고 이관용원장 후임으로 정재욱 부원장을 원장에 선출했다.

제47회 백제문화제

▷일시 : 10월 11일~14일
▷장소 : 공산성등지
▷내용 : 공산성 서문 수문병 교대의식 · 축제놀이 · 공산성점등식 · 서막식전 · 무령왕 즉위식 · 역사대행렬 · 불전축제의 밤

공주문화원 준공기념행사

▷기간 : 7월 10일~8월 14일 (총6회)
▷장소 : 공주문화원 강당
▷내용 : 공주문화원 원사 준공 기념



7월 10일-공주의 문화 예술(공주 예술인의 무대)

7월 17일-풍물, 관현악(금강풍물패, 놀이패풍장, 봉황초등학교, 중동초등학교)

7월 24일-판소리, 민요, 타령(박동진판소리전수관, 공주민요연구회, 권재덕, 이걸재)

7월31일-무용, 연극(백제무용학원, 젊은무대, 영상정보대)

8월 7일 양악기악, 시낭송, 성악(공주윈드앙상블, 금강시낭회, 이광형)

8월14일-공주의 문화(전체 출연자의 종합무대)

금산문화원

2001 금강민속축제

▷일시 : 7월 27일~29일
▷장소 : 금산군 부리면 평촌리 금강놀이마당 어재리 농박골

온양문화원

제45차 문화현장탐방

▷일시 : 6월 24일
▷장소 : 삼척일대(죽서루·환선굴)

향토사료관

▷일시 : 6월 1~30일
▷장소 : 온양문화원 향토사료관
▷내용 : 옛사진과 향토유물전시

6월의 문화인물 가람 이병기 선생의 기념 사업

▷일시 : 6월 29일~30일
▷장소 : 온양문화원 사랑방

제1회 전국남녀 시조경창대회

온양문화원은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 문화사랑방에서 제1회 전국 남녀 시조경창대회를 개최했다.

아우내문화원

제19회 단오절 민속놀이 경연대회

▷일시 : 6월 26일~27일
▷장소 : 아우내 장터
▷참석인원 : 약 1000명



전라북도

군산문화원

김양규 선임 문화원장

군산문화원은 6월 14일 총회를 통해 남정근 원장 후임에 김양규씨를 선임했다. 부원장은 이복용·고상국·신동수씨등 3명이다.

고창문화원

최이수 선임 사무국장

고창문화원은 6월16일자로 최이수씨(25)를 사무국장에 임명했다.

경상북도

경상북도지회

주소이전

▷주소 : 경북 문경시 점촌동 234번지
▷전화 : (054)556-5234
▷팩스 : (054)555-6539

정현희 선임간사

경북지회는 6월 27일 신입간사에 정현희씨를 임명했다.

이창교 경북도지회장 취임

이창교 전국문화원연합회 경상북도지회장의 취임식이 지난 7월 11일 문경문화원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취임식에는 안윤식 부지사, 신영국 국회의원, 김학문 시장을 비롯한 관내 기관·단



문화원소식

체장과 도내 문화원장, 사무국장 그리고 문화가족 2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창교 지회장은 취임사에서 “이제부터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다른 우리’ ‘남이 하는 대로’가 아니라 ‘남이 하지 못하는 다른 것’ 즉 우리 지방의 냄새를 물씬 풍기는 지방 문화를 창달하고, 아이디어를 내놓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신영국 국회의원과 이의근 지사(안윤식 부지사 대독)·김학문

시장의 축사·축전낭독, 도지회 장단에 꽃다발 증정, 기념 촬영이 있었다.

영주문화원

제9회 영주학생음악경연대회

영주문화원은 지난 6월 23일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제9회 영주학생 음악경연대회를 개최, 피아노·성악·기악등 3개 분야에서 경연을 벌였다.

김천문화원

김영명 신임간사

김천문화원은 김영명씨를 신임 간사에 임명했다.

김천 용복리·신평리 줄다리기 행사 재현

김천문화원은 6월 25일(음력5.5) 단오절을 맞아 이 고장의 전통적인 마을 대항 민속놀이인 용복리와 신평리간 줄다리기 행사를 재현했다. 2001 지역문화의 해 추진위원회의 후원으로 재현된 이날 행사는 1930년에 일제에 의해 강제 금지령이 내려진 후 70년 만에 옛방식 그대로 재현했으며 양마을 주민 3백여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줄다리기 행사

문경문화원

지역현장 문화시민교육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맞이해 지역 청소년들의 일상생활 속에 옳은 생각, 좋은 습성을 함양하고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한 예절바른 생활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생산적이고 선진적인 문화 분위기를 확산코자 2차에 걸쳐 학생 1,100여명을 대상으로 강연회를 가지고 학교 도서관에 ‘생활문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책자 각 50권씩을 기증했다.

◆1차

▷일시 : 6월 23일

▷장소 : 문경공업고등학교 강당

▷참가인원 : 40명

▷강사 : 정필

◆2차

▷일시 : 7월 13일

▷장소 : 점촌중학교 강당

▷참가인원 : 700명

▷강사 : 정필

충효예절교실

▷일시 : 8월 6일~10일

▷장소 : 문경문화원 회의실

▷대상 : 관내 중학교 160명

한문예절교실

▷일시 : 7월 23일~8월 17일

▷장소 : 문경문화원부설 한문예절교실

▷대상 : 관내 초등학교 40명

청소년문화유적답사

▷일시 : 8월 11일
▷대상 : 관내 초·중학생 200명
예정

군위문화원

제16회 청소년대상 문화행사 종합시상식

▷일시 : 6월 7일
▷장소 : 군민회관 2층

청소년 문화유적지 순례

▷일시 : 6월 27일
▷장소 : 관내 중학교 2학년 전원 267명(인솔교사 포함)
▷장소 : 영주 소수서원, 안동 도산서원

고령문화원

2001 학생 종합경연대회

▷일시 : 6월 21일
▷종목 : 문예, 미술, 서예
▷참가인원 : 228명(초·중·고)



2001년은
지역문화의 해

이은정 신입간사

고령문화원의 지난 7월 1일자로 이은정씨를 신입간사에 임명했다.

울릉문화원

2001 청소년총효교실

▷일시 : 7월 24~27일
▷장소 : 울릉군수협 어업인 복지회관(2층)

경상남도

경상남도지회

우리 춤의 맥(脈)을 찾아서

경남지회와 진주문화원은 6월 22일 경남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우리 춤의 맥(脈)을 찾아서' 행사를 개최했다.

마산문화원

마산문화원은 일본 중학교 역사



교과서 한국관련 내용 왜곡을 규탄하고 국민의 역사의식을 높이기 위해 문화원 문화학교 교육과정에 '우리역사 바로알기' 강의를 실시하는 한편 5월 25일부터 원사 옥상에 규탄 표어를 달았다.

2001. 지역 현장 문화시민 교육

마산문화원은 지난 6월 22일 마산문화원 대강당에서 문화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허중성 문화원장의 특강으로 산업화·도시화로 인하여 우리의 아름다운 미풍양속이 훼손되면서 생활문화규범의 해이가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바로잡기 위해 지역문화의 거점인 지방문화원이 주민들의 잘못된 생활규범을 반성케 하고 올바른 생활문화를 문화가족부터 앞장서서 실천할 수 있도록 바라는 사례별 선진문화 강의를 1시간동안 했다.

진주문화원

자랑스런 진주의 인물 선정

진주문화원은 올해의 자랑스런 진주의 인물로 전 럭키그룹회장 구인회씨를 선정했다. 구인회(1907~1969)씨는 본관이 능성, 호가 연암이며 경남 진주시 지수면 출생으로 1926년 서울의 중앙고보 2년을 수료한 후 귀향해 구인회상점을 설립, 포목상으로 첫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어 지수협동조합 이사로 취임했다. 그

문화원소식

후 사업은 순조롭게 발전해 일제 강점기말인 1943년경에는 대토지를 소유하게 되었다. 1947년 화장품(크림)생산을 시작했으며, 이것이 크게 성공해 1953년에는 낙희산업주식회사를 설립했다. 1959년에는 금성사를 창립해 우리나라 최초로 라디오를 생산하기 시작했으며, 이어 전화기·선풍기 등을 생산했다. 그 후 금성사는 크림 이외에 치약·칫솔·비누 등도 생산했다. 한편 그는 부산의 국제신보 사장이 되었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도 지냈다. 1968년 회갑기념으로 고향인 진주시에 연암도서관을 세워서 기증했으며, 1969년 연암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연암공업전문학교(현 연암공업대학)를 세웠다.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창의적인 굴지의 기업가로 럭키그룹을 창립하고 우리나라 기업의 대표주자로서 그 위치를 확고히 함으로써, 진주를 빛낸은 물론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역의 발전을 위한 많은 일을 해준 자랑스런 진주의 인물이다.

진해문화원

진해문화원 문화학교 제21기 컴퓨터교육 수료식

진해문화원은 지난 7월 4일 오전 11시 30분 경남은행 진해지점 2층 회의실에서 문화학교 제21기

컴퓨터 교육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날 주차석씨(62)를 비롯한 수료생 22명은 문화관광부장관 명의의 수료증을 수여받았는데 이날 박차생 문화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21세기는 IT산업시대로 지하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절대적인 좋은 기회로 삼아 우리국민 모두의 문화수준이 높아야하고 정직해야하며 메이드 인 코리아의 제품은 물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신뢰도가 세계 사람들에

게 좋게 인식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영문화원

통영문화원 유적답사

지역문화의 중추적 센터인 통영문화원은 6월22일 서부경남인산청지역일원에서 조상들의 숨결과 발자취를 느끼기 위한 문화유적답사를 실시했다. 특히 이번 답사는 통영문화가족들이 참여하는 정기 답사로써의 의미뿐만 아니라 선비정신의 대명사 남명 조

진해문화원

진해연도여자상여소리



진해문화원은 지난 7월 7일과 8일 양일간 창원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한 제31회 경상남도 민속예술축제에 ‘진해연도여자상여소리’를 출연했다. ‘진해연도여자상여소리’는 1984년에 초연을 한 이후 18년만에 재현한 것으로 연도 노인회 김학곤 회장을 비롯한 연도주민들과 진해문화원 천자봉풍물패 회원등 77명이 출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병로 진해시장이 참석해 진해 출연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는 경남 20개 시군 1,630명이 참가한 가운데 그 지방특유의 전통민속예술의 진수를 선보여 도민의 한마당 잔치가 됐다.

식 선생의 탄생 5백주년을 기념하고 경상남도 문화원 회원들의 단합을 의미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김세운 통영문화원장의 인솔하에 90여명의 문화가족이 참가한 이번답사는 '가야산의 메아리'로 불자는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많은 깨우침을 주고 간 성철 스님의 생가방문으로 시작됐다. 이어 산청군 시처면 원리 사적 제 305호 덕천서원에 도착해 조선시대 선비정신과 남명선생의 실천적 유학정신을 기리고 의류의 대혁명을 이룬 문익점 변화시배지를 둘러봤다. 또한 진주소재 전국문화예술회관에서 전국문화원연합회 경남지회와 진주문화원이 주최하고 각시군 20여개 문화원 문화가족 1천5백여명이 관람한 국립무용단 '우리춤의 맥을 찾아서-한국 천년의 춤'을 관람해 한국인의 자부심과 문화가족간의 단합을 다졌다.

통영문화원 추천 염장 중요 무형 문화재 지정

섬세한 기술과 정밀한 문양을 자랑하는 통영대밭(竹簾)제작기능자 조대용(51 통영시 광도면)씨가 중요무형문화재 제114호인 염장 기능보유자로 지정됐다. 1999년 3월 25일 통영문화원에서 중요무형문화재 신청서를 작성, 시·도를 경유해 문화재청에 제출했다. 문화재위원회와 문화재청이 지난 6월 15일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한 통영대밭은 실을 꼬아 만드는 문양의 모양과 기법에 따라 귀문렴(龜紋簾)과 고문렴으로 나뉘지며 실을 꼬듯 엮는 작업에 손이 많이 가서 귀문렴 1장에 1개월이, 고문렴은 2개월이 걸리는 섬세한 작업이다. 특히 기능보유자로 지정된 조씨는 4대에 걸쳐 장인정신으로 이어온 제작기술이 인정된 것에 대해 남다른 감회에 젖었다. 대밭 제작에 독보적인 장인으로 평가

받고 있는 조대용씨의 통영대밭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됨에 따라 통영지역은 통영오광대, 승전무, 남해안별신굿, 나전장, 두석장, 통영갯, 염장 등 모두 8개 종목 12명의 예·기능보유자가 활동, 전국에서 최다 기·예능보유자를 배출한 곳으로 꼽히게 됐다.

김해문화원

제31회 경남민속축제 석전놀이 출연

▷일시 : 7월 7~8일
▷장소 : 창원실내체육관
▷내용 : 김해문화원은 제31회 경남민속축제에 김해의 전통민속놀이인 김해석전놀이를 출연시켰다. 김해 석전 놀이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그 기록이 처음보인다. 매년 음력 4월 8일부터 단오날에 장정들이 모여 놀이를 했으며 김해의 석전사들이 삼포왜변, 달랑포왜변에서 공을 세웠다는 기록이 문헌으로 전해오고 있다. 김해문화원에서는 매년 가락문화제때 석전놀이를 재현해 오고 있다. 이번 민속축제에는 문화원 농악단원을 비롯한 120여명의 인원이 출연해 김해의 민속놀이를 대외에 알렸다.

여름방학특강개강

▷일시 : 7월 24일~8월 23일
▷장소 : 김해문화원 강의실



△통영문화원 문화유적 답사

문화원소식

▷내용 : 김해문화원 문화학교는 여름방학을 맞아해 학생들에게 전통문화예술을 접하고 문화적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단소반, 사물놀이반, 연극놀이교실(저학년반·고학년반) 등 방학특강을 개강했다.

월간 '우리문화'
구독·광고문의 T.(02)704-2311

남해문화원

지역문화학교 교류

남해문화원은 7월부터 연중행사로 각 시·군·구 문화학교 공연장에서 가야금 병창·국악한마당·민요한마당(대금포함)·사물놀이·가야합창단 등 문화학교에서 배운 예능을 타문화학교와 교류한다.

김해문화원

문화재가이드반 교육

▷ 일시 : 4월17일~9월25일

▷ 장소 : 김해문화원 강의실

▷ 내용 : 김해문화원은 김해시와 공동으로 문화재안내 자원봉사자 교육을 지난 4월 17일 개강해 현재까지 매주 화·목요일 전문 강의를 하고 있다. 현재 4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김해·가야의 역사 문화에 대한 이론강의 및 현지답사를 통해 가이드로서의 자질을 익히고 있으며, 영어·일어·중국어가이드를 함께 양성해 명실상부 김해를 찾는 관광객들을 안내할 수 있는 문화재가이드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들은 교육 후 자원봉사로 김해의 문화재 안내 및 문화지킴이로서 활동하게 된다.



하동문화원

학생향토문화유적지답사

▷일시 : 5월 29일~6월1일

▷대상 : 학생(중·고교생)

▷답사지역

A지역 : 하동군 화개면 소재문화유적지(쌍계사 내 문화재, 칠불사 내 문화재, 덕은사(악양정))

B지역 : 하동군, 옥종면, 금남면 소재 문화유적지(옥산서원, 경현사, 이순신장군 백의종군행로 및 숙영지 동학혁명위령탑(고성산), 경충사(정기룡장군), 하동성)



바로 고칩니다

지난 7월호 표지설명(3페이지)의 만민교는 만년교로 정정합니다. 또 23페이지의 '표충비각' 설명중 창녕군은 밀양시, 홍운대사는 송운대사의 잘못이기에 바로 잡습니다.

‘홀대받던’ 공예문화상품 해외 수출길 오른다

미얀마 현지 합작공장 건설...佛·日 등 제3국에 수출
한국공예예술가협회, 佛에 백만불 수출 확보...연간 4백만불 생산 계획


국 내서 홀대받다시피하던 공예문화상품이 해외에서 판로를 찾아 수출길에 오르게 된다.

한국공예예술가협회(회장 이철용)는 지난 6월 8일 미얀마 더 실렉션 사(대표 사이 마웅마웅 마이인트)와 공동으로 나전칠기 등을 만들어 프랑스·일본 등 제3국에 수출키로 계약을 체결했다.

한국공예예술가협회에 따르면 미얀마측은 올해반기에 7백만불(한화 91억원)상당을 투입해 합작공장을 건설하고 한국측은 나전칠기·패각공예·목칠공예·보석칠공예·목공예 등 8개 분야 16명의 장인이 미얀마로 들어가 현지 2백40명의 기능자와 함께 보석함·벽화·서랍장·진열장·액세서리 등 연간 4백만불(한화 52억원)규모의 공예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여기서 나오는 이익금은 양측의 합의하에 나누게 된다. 미얀마는 세계적인 자개생산지로 대규모의 비용을 들여 공장을 짓는 대신 한국측으로 부터 공예기술을 전수 받는 기회를 얻게 된다.


특히 한국과 미얀마 양측은 이미 한불전통문화교류협회 프랑스측 협회(대표 주민중)로 부터 1백만불(13억)의 주문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또한 앞으로 연간 거래규모를 5백만불 내외로 잡고 있는 프랑스측 협회는 “동사업에 동참할 수 있으며 주문·인도시 수수료 1백만불 내외를 지급할 수 있다”고 밝히는 적극성을 보이고 있어 수출물량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들 상품은 프랑스 유명가구공예 메이커와 연계해 판매하거나 전국 규모 국제박람회에 순회전시하며 팔 예정이다.

이에 앞서 한국공예예술가협회는 지난 4월27일~5월 8일, 5월 19~28일 프랑스 파리와 보르도의 국제박람회에 각각 참가해 20여일간 현장에서 4천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큰 호응을 얻는데 이어 내년 9월 6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국제박람회측으로부터도 주변국으로 초대를 받아 해외에 우리문화를 소개하는 길을 계속적으로 열게 됐다.

이번 한국·미얀마간 합작 공장 건설과 관련 이철용 한국공예예술가협회장은 “30년동안 우리나라가 들어주지 않는 공예인들의 목소리를 후진국인 미얀마에서 들어준 일”이라고 토로한 후 “한국과 미얀마간의 문화교류 증진과 함께 홀대받고 있는 공예인들의 사기 앙양에도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政) 



물에 잠긴 내 고향

제 천문화원과 충청일보사가 공동으로 펴낸 '물에 잠긴 내 고향', '충주댐 수물, 제천사람들'이라는 부제가 달린 이 책은 1985년 충주댐 건설로 보금자리가 물속에 잠긴 3개군 17개면 3백여 자연부락과 주민들의 삶을 담은 사진집이다. 이집게도 이곳은 지금 '청풍호'라는 거대한 호수로 변모되어 옛날의 정취어린 자취는 찾아 볼 수 없게 됐다. 제천문화원의 요청으로 충청일보사가 기록한 수물민들의 삶과 애환이 담긴 사진들을 새롭게 제작해 전시회를 갖은 바 있다. '물에 잠긴 내 고향'의 사진 3점을 골랐다. 



계산리의 아이들 신작로를 사이에 두고 3개 마을로 조성된 계산리는 닭이 알을 품는 형상이라 부자가 많았는데 샘골과 지장골은 비만 오면 진창이 되기 일쑤였다. 땅콩과 무·배추 특산지.



‘나룻배 만원’ 등교하는 학생들과 직장인들. 청풍에서 제천으로 가는 사람들을 건네주는 황석나루는 아침저녁 출퇴근 뿐만 아니라 왕래한 사람이 많아 항상 붐볐다.(위) ‘전설’로 남은 초가집 남한강 뱃길 수로의 요지였던 청풍면 광의리는 새마을 사업으로 초가집이 없어졌지만 유일 하게 고집을 피운 두채가 남아 있다가 총주댐 건설로 없어졌다.

남양주의 사찰



남양주 향토문화총서 제9집. 봉선사·묘적사·보광사·봉영사·봉인사·불암사·수종사·홍국사·견성암·내원암·석천암. 남양주는 조선시대 능(陵)·원(園)을 비롯해 왕가의 묘와 기타계층의 묘가 많은 탓에 대부분 사찰이 원찰로 국가의 비호와 지원을 받았다. 하지만 일제의 수탈기를 거치며 내선일체의 문화말살정책을 강요당했고 한국전쟁 기간동안에도 귀중한 문화재가 많이 소실됐다. 그리고 최근에는 경제개발논리에 밀려 많은 문화재가 파괴 위기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화·역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사찰을 한데 묶어 책으로 펴냈다는 것은 매우 큰 의의를 지닌다. 이 책은 현재 남양주에 위치한 많은 절들 중에서 최근에 건립된 것이 아닌 고찰(古刹) 11곳을 대상으로 일반인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설명했다. 임병규 남양주시 향토사료관장(남양주문화원이사) 펴냄(남양주문화원)

CD롬

문화도시 꿈꾸십니까

국내외 문화도시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CD 롬이 나왔다. 문화관광부·한국문화예술진흥원·한국문화정책개발원이 공동발간하는 '문화도시 문화복지'는 창간 1백호를 맞아 국내외 문화도시 정보를 담은 CD 롬 '문화도시 꿈꾸십니까'를 발간했다. 국내외 지역축제정보와 문화이벤트의 성공사례를 비롯 문화의 집·문예회관·도서관 박물관 프로그램, 외국의 문화도시 사례 등이 총망라된 이 CD롬은 그동안 웹진(www.kcpi.or.kr)에서 불가능했던 필자·제목·내용·호별·일자별 검색이 가능해 창간호(1996년 11월호)부터 10호(2001년 4월호)까지의 문화도시 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다. '문화도시 꿈꾸십니까'라는 제목처럼 이 CD롬은 21세기 문화의 시대에 화두가 되고 있는 '문화도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긴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남양주시지

남양주시지(총6권)가 나왔다. 남양주시는 지난 80년 양주군에서 분리되어 독자적인 행정단위로 성장한 지 20여년만에 처음으로 지역사를 정리한 '남양주시지'를 출간했다. 지난 97년 남양주시사 편찬위원회를 구성해 3년여에 걸쳐 자료를 조사·수집하고 역사·문화재·인물·민속·현대

사회의 각 분야를 집대성해 남양



주시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제1권은 '역사', 제2권 '문화재와 인물', 제3권 '민속', 제4권 '현대사회(상)', 제5권 '현대사회(하)', 제6권 '자료집'으로 되어 있다. 각권 7백페이지 가량.(남양주시지편찬위원회)

이르는 士民이 봉기하여 합천·삼가·초계 등지 고을이 낙동강 연변 왜병들의 보급로를 차단하는 등 영남의병의 중심세력으로 활약한 바 있다. 합천문화원은 임란창의기념관을 건립하는 것을 계기로 「합천임란사」 제2집을 발간했다.(합천문화원)



대덕의 구전설화



대덕은 선비문화와 농경문화가 공존하는 지역이다. 이번에 발간된 '대덕의 구전설화'는 지난해 향토사료조사 사업을 통해 흩어져 있는 구전설화를 집대성해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 책에는 민담, 민요, 설화, 전설 등 무형의 문화유산이 담겨져 있어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대덕문화원)

陝川壬亂史(제2집)

합천에서는 임진왜란을 맞아 정인홍선생을 중심으로 5천여명에

의령문화(宜寧文化)제9호

「의령문화」 제9호. 이번호는 제1회 의령군민의날 및 제29회 의병제전의 문화예술행사와 학생 백일장, 학생서화실기대회, 한시백일장등 입상작품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지상교양강좌에 갈음할 수 있는 효(孝)의 실천과 가정(家庭)바로 세우기, 문화재의 보존 등 유익한 글을 여러편 실고 있다. 또한 올해 우리나라 유학의 태두로



추앙받고 있을뿐 아니라 우리고장과 깊은 인연을 갖고있는 퇴계이황(李滉)선생과 남명 조식(曹植)선생 탄신 500주년 기념 특집으로 두분 어른의 생애와 문제자(門弟子)까지 소개하는 등 책의 무게를 더해주고 있다. 그밖에도 회원작품과 출향문화예술인들의 문예작품도 돋보이며 차츰 잊혀져가고 있는 전래민요를 소개하는 등 알차게 꾸몄다. 허백영의령문화원장은 발간사경 인사말에서 "올해 지역문화의 해를 맞이해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쉬는 전통 반향의 맥을 이어가면서 애항심을 드높이고 살기좋은 고장 건설에 좋은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면서 "사회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후원과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준비된 월드컵

광주 서구문화원에서는 '2001 지역문화의 해'를 맞아 월드컵문화 시민운동광주시협의회와 공동으로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학생글짓기 및 그리기 대회를 개최(5월6일)하고 많은 작품 중에서 우수한 작품을 골라 '준비된 월드컵'이란 제목으로 책자를 발간했다.(광주서구문화원)

전주에 살리라

전주문화원에서 열여덟번째 어린이와 엄마가 함께한 글짓기 대회에서 입상한 작품을 월드컵문화 시민전주시협의회와 공동으로 단행본으로 출간했다. '전주에 살리라'라는 제목의 이 책에는 운문104편, 산문144편이 실려 있으며 모두 초등학교 학생의 글이다.(전주문화원)

서평문화(2001년 여름호)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발간한 정기간행물이다. 양서만을 골라 서평을 내고 있는데 문학·역사·철학·정치·사회·경제와 경영·과학·예술·교양·아동 등 10개분야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다. '66세의 영조, 15세 신부를 맞이하다'를 비롯 28책을 청소년을 위한 좋은책으로 천거하고 있다.(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이달의 정기간행물

- 의령문화 2001. 9(의령문화원)
- 蘆嶺 2001. 여름호(전주문화원)
- 건들바위 제3집(대구중구문화원)
- 文化藝術 2001. 7(한국문화예술진흥원)
- 21세기 천안문화 2001. 여름호(천안문화원)
- 東大門文化 제2호(동대문문화원)
- 갑천문화 제13호(대전서구문화원)
- 수원사랑 2001. 7(수원문화원)
- 늘 푸른 수원 제177호(수원시)
- 문화유성 2001. 7(유성문화원)
- 미르 2001. 7(국립극장)
- 세계무속신문 제25호(세계무속신문)
- 민족예술 2001. 7(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 班鄕 公州文化消息 2001. 6(공주문화원)
- 韓國民俗新聞 제156호(한국민속신문사)
- 廣州文化 2001. 7. 2(경기광주문화원)
- 유성소식 제106호(유성구)
- 스산의 숨결 제212호(서산문화원)
- 청사초롱 제184호(한국관광공사)
- 목포문화사랑 제56호(목포문화원)
- 메세나 2001. 여름(한국기업메세나협의회)

월간 '대전문화사랑' 다시 휴간

대전중구의 문화예술홍보지 월간 '대전문화사랑'이 다시 휴간에 들어갔다. '대전문화사랑'은 IMF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은데다 99년 12월 12일 뜻하지 않게 세상을 떠난 발행인 고 박동규 대전중구 문화원장을 애도하며 잠시동안 휴간했었다. 그러나 지난해 애독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복간한 '대전문화사랑'은 10년간 지원받던 시 문예진흥기금마저도 끊기는 재정상의 어려움을 겪어 부득이하게 또다시 휴간에 들어가게 됐다.

90년 4월 전국문화원연합회에 들어와서 1·2·3·4월호 네권의 '월간 우리문화'를 한꺼번에 만들던 생각이 난다. 그 때가 어제같은데 어느덧 했수로 열두해가 흘렀다. 누가 그랬던가? '세월은 유수와 같다'고. 정말 세월은 빠르다. 지난 열두해동안 월간지를 한번도 빠짐없이 제달에 발간한 것은 연합회 회지 창간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며 일해 왔으나 이제 정든 일터를 떠나려하니 만감이 교차된다. 지난 열두해동안 세분의 회장님과 다섯분의 총장(국장)을 모셨으니 장기근속한것이 실감난다. 그동안 정년이 지났으나 계약직으로 계속 일하게 해준 회장님께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낀다. 또 지난 열두해동안 여러가지로 도와주신 지방문화원장님과 사무국장님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문화원가족 여러분의 건강과 정들었던 '월간 우리문화'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작별을 고하고자 한다. 안녕!(柳)

지금 까지 월간 '우리문화'를 위해 힘써주신 류장수 편집주간님이 8월호를 마지막으로 떠나십니다. 항상 화를 내거나 성을 부리는 일 없이 빙그레 웃는 얼굴로 나이차 많은 젊은 사람의 얘기를 많이 들어주신 분이어서 떠나고 안계시면 그 자리가 몹시나 크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별은 아쉽거나 슬픈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덧없는 세월속에서 배우고 느낍니다. 또다른 만남인거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더 나은 삶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여기자가 들어와 월간 우리문화의 취재와 편집을 맡게 됐습니다. 박계현이라고 하는 나이 서른된 여기한테 성격도 시원시원하고 문학에도 조예가 깊어 꽤 관심이 갑니다. 류주간님의 환송식과 박계현기자의 환영식을 마치고 얼큰하게 술에 취한채 집에 들어간 제게 아내가 묻더군요. "그 여기자 어때?" "걱정할 정도는 아니야" (敗)

알림

본회 편집실에는 전국문화원에서 발간하는 각종 사료나 향토지를 비치하고 있어 수시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합니다.

- ◎ 史料 및 情報資料 提供
전국 시·군지, 향토사 자료등 각종자료 3천여권이 비치되어 있는 본회에 訪問하면 됩니다.
- ◎ (향토지) 각종 圖書 復刊相談
지방에서 발행할 각종 책자의 편집 및 출간을 위해 자료, 견본 등을 제공하고 편간에 대한 자세한 상담도 해드립니다.
- ◎ 海外 刊行物 交流
해외에서 발행되는 여러 간행물을 통하여 우리의 文化遺産에 대한 올바른 評價와 자료의 수집을 위해 "海外刊行物交流事業"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관련자 여러분이 소장하고 있는 서적이거나 관련자료 또는 정보를 교류추진을 알선해 드립니다.

정기구독 안내

월간 우리문화는 5천여년 간 숨쉬어 온 民族文化를 아름답게 꽃 피워보고자 하는 마음과 우리의 마음에 自矜心を 기르하고자 합니다.

이 책은 특히 海外에서 한민족의 自矜心を 갖고 꾸꾸이 살아가는 분들에게 권유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구독료(권당 3,000원)
국내 : 1년 정기구독료 36,000원 (우송료 본회 부담)
6개월 구독료 18,000원
海外 : 1년 정기구독료 36,000+우송료
6개월 구독료 18,000+우송료
(*문화원 회원은 1권당 2,000원)

- 송금방법
송금은 농협 온라인 계좌를 이용해 주십시오.
• 온라인번호 농협 032-01-013084 문화원연합회

- 보낼곳
121-715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1-1 성우빌딩 1202호
전국문화원연합회 우리문화 편집실

전국 문화원 현황

우리문화원은 전국에 2백11개 있습니다

전국문화원연합회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지회 · 종로문화원 · 중구문화원 · 용산문화원 · 성동문화원 · 광진문화원 · 동대문문화원 · 중랑문화원 · 성북문화원 · 강북문화원 · 도봉문화원 · 노원문화원 · 은평문화원 · 마포문화원 · 양천문화원 · 강서문화원 · 동작문화원 · 관악문화원 · 강남문화원 · 송파문화원 · 강동문화원 · 금천문화원 · 영등포문화원 · 부산광역시 · 동래문화원 · 북구낙동문화원 · 부산강서문화원 · 연제문화원 · 기장문화원 · 사상문화원 · 금정문화원 · 대구광역시 · 중구문화원 · 달성문화원 · 남구대덕문화원 · 대구북구문화원 · 대구서구문화원 · 달서구문화원 · 대구동구팔공문화원 · 인천광역시 · 인천문화원 · 부평문화원 · 강화문화원 ·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지회 · 동구문화원 · 광주서구문화원 · 광주남구문화원 · 광주북구문화원 · 광산문화원 ·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지회 · 동구문화원 · 중구문화원 · 서구문화원 · 유성문화원 · 대덕문화원 · 울산광역시 · 울산문화원 · 울주문화원 · 울산중구문화원 · 경기도 · 경기도지회 · 수원문화원 · 성남문화원 · 의정부문화원 · 안양문화원 · 부천문화원 · 광명문화원 · 평택문화원 · 동두천문화원 · 안산문화원 · 고양문화원 · 과천문화원

· 구리문화원 · 남양주문화원 · 오산문화원 · 시흥문화원 · 군포문화원 · 하남문화원 · 용인문화원 · 파주문화원 · 이천문화원 · 안성문화원 · 김포문화원 · 양주문화원 · 여주문화원 · 화성문화원 · 광주문화원 · 연천문화원 · 포천문화원 · 가평문화원 · 양평문화원 · 의왕문화원 · 강원도 · 강원도지회 · 춘천문화원 · 원주문화원 · 강릉문화원 · 동해문화원 · 태백문화원 · 속초문화원 · 삼척문화원 · 홍천문화원 · 횡성문화원 · 영월문화원 · 평창문화원 · 정선문화원 · 철원문화원 · 화천문화원 · 양구문화원 · 인제문화원 · 고성군문화원 · 양양문화원 · 충청북도 · 충청북도지회 · 청주문화원 · 충주문화원 · 제천문화원 · 청원문화원 · 보은문화원 · 옥천문화원 · 영동문화원 · 진천문화원 · 괴산문화원 · 음성문화원 · 단양문화원 · 증평문화원 · 충청남도 · 충청남도지회 · 천안문화원 · 공주문화원 · 서산문화원 · 논산문화원 · 금산문화원 · 부여문화원 · 서천문화원 · 청양문화원 · 홍성문화원 · 예산문화원 · 태안문화원 · 당진문화원 · 대전문화원 · 온양문화원 · 조치원문화원 · 아우내문화원 · 성환문화원 · 전라북도 · 전라북도지회 · 전주문화원 · 군산문화원 · 익산문화원 · 정읍문화원 · 남원문화원 · 김제문화원 · 완주문화원 · 진

안문화원 · 무주문화원 · 장수문화원 · 임실문화원 · 순창문화원 · 고창문화원 · 부안문화원 · 전라남도 · 전라남도지회 · 목포문화원 · 여수시문화원 · 순천문화원 · 나주문화원 · 광양문화원 · 담양문화원 · 곡성문화원 · 구례문화원 · 고흥문화원 · 보성문화원 · 화순문화원 · 장흥문화원 · 강진문화원 · 해남문화원 · 영암문화원 · 무안문화원 · 함평문화원 · 영광문화원 · 장성문화원 · 완도문화원 · 진도문화원 · 신안문화원 · 경상북도 · 경상북도지회 · 포항문화원 · 경주문화원 · 김천문화원 · 안동문화원 · 구미문화원 · 영주문화원 · 영천문화원 · 상주문화원 · 문경문화원 · 경산문화원 · 군위문화원 · 의성문화원 · 청송문화원 · 영양문화원 · 영덕문화원 · 청도문화원 · 고령문화원 · 성주문화원 · 칠곡문화원 · 예천문화원 · 봉화문화원 · 울진문화원 · 울릉문화원 · 경상남도 · 경상남도지회 · 창원문화원 · 마산문화원 · 진주문화원 · 진해문화원 · 통영문화원 · 사천문화원 · 김해문화원 · 밀양문화원 · 거제문화원 · 양산문화원 · 의령문화원 · 함안문화원 · 창녕문화원 · 고성문화원 · 남해문화원 · 하동문화원 · 산청문화원 · 함양문화원 · 거창문화원 · 함천문화원 · 제주도 · 제주도지회 · 제주문화원 · 서귀포문화원